

이야기를 통한 성경과 교리 교육

: 군인교회 사례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김택조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0년 5월

Copyright © 2020 Taikjo Kim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eaching the Bible and the Doctrine through Stories at Military Churches in Korea

Taikjo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ong Bible School』 and 『Pilgrim's Progress Seminar』 which can be learned through narrative for military church members.

『Tong Bible School』 and 『Pilgrim's Progress Seminar』 are an exciting and easy way to learn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Bible and the doctrine in a short time. It is a nurturing process that provides an opportunity to learn the Bible and the doctrine considering the duration of church membership for only one or two years.

According to the above objectives, this research project was set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learning from stories? Second, how do the 『Tong Bible School』 and 『Pilgrim's Progress Seminar』 convey the Bible and the doctrine in stories? Third, what are the results of applying the 『Tong Bible School』 and 『Pilgrim's Progress Seminar』 to military churches?

As a theoretical background, the discussion of the story of Paul Ricoeur and Jerome Bruner was noted. Paul Ricoeur suggests that stories can form human experiences and events into a plot structure through the Mimesis threefold theory. It can lead to hermeneutic circulation through the reader's re-shaping of the story. Jerome Bruner categorizes the paradigm mode and the story mode for the method of knowing. He explains that perception through stories does not exclude senses. It is an effective perception system to grasp the multifaceted and changing situation of human beings and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self-identity through stories.

Tong Bible School recognizes the Bible as ' Jesus' Cross, One Story '. Jesus Christ shouted “It is finished” on the cross. Tong Bible School says that this declaration is a link between the kingdom of priests-the five great empires-the kingdom of God. Since then, he has been telling the core of the Bible through stories through the seven steps of God's heart, the Bible stem, prayer, and evangelism. 『Pilgrim's Progress Seminar』 presents the story of a pilgrim who goes to heaven in an allegorical form. Through this, we can examine the lives of Christians who live a life of salvation and sanctification.

『Tong Bible School』 and 『Pilgrim's Progress Seminar』 were delivered for military church members. Military church members were able to learn the Bible and the doctrine interestingly and easily through these two courses.

I hope that 『Tong Bible School』 and 『Pilgrim's Progress Seminar』 which the thesis learns from the story can contribute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military church nurturing system into an organic and systematic solid nurturing system.

국문초록

이야기를 통한 성경과 교리 교육

: 군인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김택조

육군본부교회, 충남 계룡, 한국

본 논문은 군인교회 구성원들의 잦은 보직순환과 다양한 양육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한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양육체계로 이야기로 배우는 『통통성경학교』와 『천로역정 세미나』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통통성경학교』와 『천로역정 세미나』는 1-2년에 불과한 교회 구성원 순환주기를 고려하여 짧은 시간에 성경과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통해 재미있고 쉽게 배워서 과정 이후 스스로 성경과 교리를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양육과정이다.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이야기로 배우는 것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통통성경학교』와 『천로역정 세미나』는 성경과 교리를 어떻게 이야기로 전달하고 있는가? 셋째, 『통통성경학교』와 『천로역정 세미나』를 군인교회에 적용한 결과는 어떠한가?

이론적 배경으로는 Paul Ricoeur와 Jerome Bruner의 이야기관련 논의를 주목하였다. Paul Ricoeur는 미메시스 3 단계론을 통해 이야기가 인간의 경험과 사건을 줄거리 구조로 형상화하고 이를 통한 독자의 재형상화를 통해 해석학적 순환을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하며, 이야기를 통해 자아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Jerome Bruner는 삶의 방법에 대해 패러다임적 유형과 이야기 유형을 범주화한다. 그는 이야기를 통한 인식이 감각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다면적이고 변화되는 상황을 파악하는 효과적인 인식체계이며 이야기를 통한 자아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통통성경학교』는 성경을 ‘예수 십자가, One Story’로 파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는 선언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가지 질문을 통해 제사장 나라-5대제국-하나님 나라의 연결고리임을 밝히며,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즐기, 성경을 통한 기도와 전도라는 7 스텝을 통해 이야기로 성경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다. 『천로역정 세미나』는 장차 망할 도성을 떠나 천성길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이야기를 우화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구원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사교회, 연무대군인교회와 육군본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통성경학교』와 『천로역정 세미나』는 이야기를 통해 성경과 교리를 재미있고 쉽게 배우며, 성경을 통독할 수 있으며, 이야기를 통해 배운 내용이 자신의 삶의 재구성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후속 프로그램인 성경일독학교와 필그림하우스 방문으로 배운 내용을 심화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이 이야기로 배우는 『통통성경학교』와 『천로역정 세미나』를 통해군인교회 양육체계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견실한 양육체계로 변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차

감사의 글	xii
표 목차	viii
그림 목차	ix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방법	7
연구의 범위	10
II. 이야기에 대한 이해	13
자아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이야기	13
삶의 방법으로서의 이야기	29
이야기와 통(通)성경, 그리고 교리	47
III. 이야기로 배우는 성경과 교리	54
이야기로 배우는 성경: 『통(通)성경』	54
『통(通)성경』 이해	54
이야기와 『통(通)성경』	68
이야기로 배우는 교리: 『천로역정』	82
『천로역정』 개관	82
『천로역정』의 특징	84
『천로역정』과 이야기	87
이야기로 배우는 교리	89

IV. 이야기로 배우는 군인교회 양육체계 - 군인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108
군인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특징	108
군인교회 양육체계에 대한 평가	109
군교회 특성에 최적화된 양육체계: 통성경학교와 『천로역정』 세미나 .	110
이야기로 성경을 배우는 『통(通)성경학교』	111
육군사관학교 육사교회와 『통(通)성경학교』	112
연무대교회와 『통(通)성경학교』	126
육군본부교회와 『통(通)성경학교』	138
통성경학교 후속 프로그램 - 『통(通)성경』 일독학교	152
『통(通)성경학교』 설문평가	154
이야기로 교리를 배우는 『천로역정』 세미나	160
천로역정 세미나 설문평가	174
V. 결론	177
요약 및 평가	177
결론과 제언	179
참고문헌	186

표 목차

<표1> 육군본부교회 통성성경학교 연령대별 출석인원	155
<표2> 육군본부교회 통성경학교 직분별 참석현황	156
<표3> 육군본부교회 통성경학교 참석자 신앙연수	157
<표4> 통성경학교 중 감명 깊었던 단원	158
<표5> 통성경학교의 유익	159
<표6> 성경을 이야기로 배울 때의 장점	160
<표7> 천로역정 세미나를 통한 신앙생활의 유익	176

그림 목차

<그림1> 6.25전쟁기념 한미전몰장병 추모기도회	114
<그림2> 삼일절 기념예배 중 만세 삼창하는 생도들	114
<그림3> 생도들과 함께 드리는 성찬예배	116
<그림4>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생도들과 함께 드리는 주일예배	116
<그림5> 육사 전생도 대상 기독교 특강	117
<그림6> 통성경학교 개강	119
<그림7> 휴식 시간을 이용한 숙제검사 시간	119
<그림8> 통성경학교 스태프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121
<그림9> 답소하는 강사님과 성도님들	121
<그림10> 토요일 아침, 외출을 마다하고 통성경학교를 수강하는 육사생도들 ...	124
<그림11> 『통通성경학교』 졸업식	125
<그림12> 『통通성경학교』 졸업식 기념촬영	126
<그림13> 훈련병 진중세례식	127
<그림14> 훈련병 진중침례식	127
<그림15> 전교인 말씀사랑 퀴즈대회	128
<그림16> 전교인 말씀사랑 퀴즈대회 간식 나눔	129
<그림17> 훈련병 주일예배	130
<그림18> 훈련병 주일예배 찬양의 시간	131
<그림19> 부임 당시 연무대군인교회 신축성전 외관(2016년 12월)	132
<그림20> 부임 당시 연무대군인교회 신축성전 내부(2016년 12월)	132

<그림21>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 외관(2018년 12월)	134
<그림22>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봉헌감사예배(2018년 12월)	134
<그림23> 연무대군인교회 『통통성경학교』 홍보포스터	137
<그림24> 6.25전쟁 중 설립된 육군본부교회 전신, 육군중앙교회(천막)	138
<그림25> 영내 본부교회와 영외 본부교회 봉헌감사예배	139
<그림26> 3군본부교회 전경과 주일연합예배	139
<그림27> 연초 공동의회 시 발표한 목회계획 PPT	141
<그림28> 군선교의 사명을 되새기는 육군 MCF 컨퍼런스	142
<그림29> 금요 기독군인회(MCF) 성경공부 홍보 포스터	143
<그림30> 금요 기독군인회(MCF) 성경공부	143
<그림31> 제1차 광야기도회 홍보포스터	145
<그림32> 광야합심기도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145
<그림33> 육군본부교회 통성경학교 홍보 포스터 1	147
<그림34> 육군본부교회 통성경학교 홍보 포스터 2	148
<그림35> 육군본부교회 통성경학교 교재 소개 포스터	149
<그림36> 육군본부교회 목요 『통통성경학교』	150
<그림37> 육군본부교회 토요 『통통성경학교』	151
<그림38> 신년맞이 통성경 일독학교 일정표	153
<그림39> 신년맞이 통성경 일독학교에 참석한 성도들	154
<그림40> 육사교회 천로역정 특별새벽기도회	162
<그림41> 천로역정 주제가, [예수 인도하셨네]	163
<그림42> 육사교회 천로역정 자료집 표지	164

<그림43> 육사교회 『천로역정 특별새벽기도회 출석부』	166
<그림44> 필그림하우스 순례여행에 함께 한 연무대군인교회 성도들	168
<그림45> 가평 필그림 하우스, 천로역정 지도	169
<그림46> 육군본부교회 『천로역정 세미나』 홍보 포스터	172
<그림47> 육군본부교회 『천로역정 세미나』 자료집 표지	173
<그림48> 육군본부교회 『천로역정 세미나』 수료식	174
<그림49> 육군본부교회 『천로역정 현장탐방』 십자가 체험의 세 천사와 함께 ..	175

감사의 글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라는 표현처럼 돌아보니 제가 한 것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깨닫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이 아니라면 이 죄인은 목회의 길로 들어설 수도, 이어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군종목사로 군선교에 매진한지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후방 각지에서 수십 번 이사를 하면서도 군선교의 열정을 잊지 않고 늘 군인교회를 지켜온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더 보듬고 궁구해야 하는데, 권별주의와 요절주의를 되풀이해와서 죄송합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성도들의 순환주기를 고려한 양육체계를 감히 제안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전하며, ‘성경 한권으로 충분하다’ 고 오늘도 외치시는 조병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사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과 예수 십자가의 통전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통성경사역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계속 갹아 나가려 합니다.

이 논문이 이렇게 끝을 맺게 된 추동력을 끊임없이 제공해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맥을 짚어 주시고 대화를 통해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주셔서 논문의 부박함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강의를 해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키보드소리는 머나먼 타국의 한 학생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열정과 배움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밤마다 아들의 목회와 삶을 위해 간구하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에게서 배웠던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사랑이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도록 사랑의 인내를 요청해 준 믿음직한 두

아들 신영이와 도영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변함없이 말씀을 가까이하시고

평생을 기도 가운데 사시며 믿음의 본을 알게 하신 장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남편의 설교를 경청하고 격려해주며, 변함없는 친구이자

동반자로 함께 해온 와병중인 아내와 이 논문이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제 I 장

서 론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군인교회 교인들은 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 병사의 경우 20여 개월이 못 되고, 장교는 1~2년, 부사관도 5~7년 이상 한 곳에 머무는 경우가 드물다. 군에서 군종목사로 사역하며 지속적으로 고민이 된 것은 이렇게 짧은 순환주기를 가진 교인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양육할 것 인가였다. 군교회 성도들의 보직순환주기만 짧은 것이 아니다. 군목회를 담당하는 군종목사도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인사법상 한 교회(보직)에 2년 이상 머물 수 없다. 민간지원 성직자의 경우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다고 하지만, 10년 이상 사역한 분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너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라는 말을 농담처럼 주고받게 되었다.

군인교회는 병사에게 세례를 베풀고, 신자로 양육하여 민간교회와 연결하는 사역을 오랜 시간 진행해왔다. 병사신우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통일을 대비하는 십자가 정병이라는 비전 속에서 양성기관에서 세례 받은 병사신우를 효과적으로 양육하여 민간교회와 연계시키는 사역은 군선교의 최우선사역이다. 이를 위해 간부 또한 평신도군선교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군목회자와 동역하여 병사신우를 양육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왔다. 그러나 병사신우와 간부신자들이 한 군인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 것을 고려한 효과적인 양육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더구나 10여개 교단에서 파송된 군종목사가 각자의 목회철학과 아울러 다양한 양육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일관되고 유기적인 신우와 간부양육의 제한사항이 되었다. 통일적인 체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양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2년 단위 또는 1년 단위의 군교회 인원들의 순환주기를 고려한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양육체계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성경과 교리에 집중하는 1-2년 단위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경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텍스트라는 데는 이견이 없겠지만 성경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효과적이면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것이다. 성도들은 성경을 어려워한다. 성도들에게 성경은 설교나 관련 소모임을 통해서 많이 접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모른 상태에서는 늘 들어도 생소하기만 하다. 따라서 성경의 전체적인 열개를 제시할 수 있으면서 성도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10-12주나 1년 이내에 마칠 수 있는 짧은 양육기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과 교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체계라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통통성경은 군인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최적화된 양육 체계라고 생각한다. 교리도 마찬가지이다. 이단이 횡행하는 대한민국 교회의 상황과 아울러 군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단과 관련하여 여러 내용을 겪어왔다. 이단들의 논리와 성경이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교리교육이 절실하다. 교리는 어렵다는 선입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교리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 바탕이 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배우려 하는 성도들에게도 버거운 영역임은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교리를 이야기로 배울 수 있는 『천로역정』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성경과 교리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은 이단 단체에 소속된 한 병사가 전역한 후 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되었다. 후임병사들을 데리고 부대교회를 사용하겠다는 이단병사의 요구는 들어줄 수도 들어줄 필요도 없었다. 설전이 이어지면서 이단병사는 ‘자신을 왜 이단이라 하는가’ 반문했고, ‘이단을 이단이라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라는 논쟁이 벌어졌다. 이단병사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고 전역 후 명예훼손 및 다양한 방법의 법적 질의로 군인신분의 목사를 공격해왔다.¹ 이 과정에서 필자는 그 동안의 목회활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누가 말했는가? 이단병사와 논박하는 과정에서 그가 자아내는 거짓된 교리적 남발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 나 자신의 성경적, 교리적 대응도 불충분함을 부끄러움 속에 깨닫게 되었다. 이 사건이 성경과 교리공부를 시작하게 된 촉발점이 되었다. 이후 몇 년을 주일 오후예배나 수요일예배 시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강해’ 이나 ‘하이델베르크 소요리문답 강해’ 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딱딱한 교리를 쉽게 전하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전하는 데에는 버겁기만 했다. 그러던 중 존 번연의 ‘천로역정’ 을 접하게 되었다. ‘천로역정’ 은 세상순례자가 천성을 향해 가는 장구한 우화적 이야기와 수많은 상징적인 내용이 버무려진 탁월한 기독교 문학작품이다. 김홍만의 『해설 천로역정』²과 『52주 스터디 천로역정』³은 존번연의 ‘천로역정’ 을

¹ 이단병사의 주장은 군인신분인, 즉 공무원 신분인 군종목사가 특정 단체를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결국 군종목사는 종단에 소속된 성직자의 신분도 있기 때문에 선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선교의 자유에는 ‘타종교에 대한 비판’까지도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종결 지을 수 있었다.

² 김홍만, *해설 천로역정*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³ 김홍만, *52주 스터디 천로역정*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추리하듯 재미있게 읽어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이후 매 교회마다 봄철이나 사순절 기간에는 ‘천로역정 강해’를 진행해 왔다.

‘통통성경’도 이러한 고민 중에 접하게 되었다. 육군사관학교 육사교회 담임목사로 섬기며, 육사생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재미있고 쉽게 전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다. 조병호는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추는데 꼭 필요하다”⁴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성경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성경은 얇은 책이다.”⁵ 조병호는 성경이 66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성경을 대하는 성도마다 그 막대한 분량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성경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임을 생각한다면 얇다고 여겨야 한다고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압축하고 또 압축해 놓은 책”⁶이라는 것이다. 둘째,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유일한 책이다.”⁷ 성경은 묵독(默讀)으로 읽어야 할 책이 아니다. 성경을 소리 내서 읽으면 성경의 내용이 세세히 와 닿는다.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기에 성경을 읽어가노라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울려질 때 내 귀로는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⁴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7.

⁵ Ibid., 8.

⁶ Ibid.

⁷ Ibid.

된다. 제프리 아서스는 “우리는 성경말씀을 공개적으로 읽도록 명령 받았다”⁸고 주장하며, “말씀읽기에 전념하라”는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인용한다. 사도 바울의 당 시대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소수였고, 활자화된 성경을 접하기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할 때, 성경은 “소리 내어 들려져야” 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소리 내어’ 읽어야 한다. 셋째, “성경은 일 년에 열 번 읽어야 하는 책”⁹이다. 평생을 두고 가까이하며 여러 번 되풀이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동양의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과 맥을 같이 한다. 성경을 역사기록의 순서대로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성경을 직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다. 넷째, “성경은 흐름에 따라 통통”¹⁰으로 읽어야 한다. 성경을 흐름에 따라서 읽을 때 이해하기 쉽게 되며, 통시적(通時的), 공시적(共時的)으로 읽게 될 때 “서양의 분석적, 동양의 직관적 해석을 통통으로 살펴 성경을 정경적이며 동시에 심정적으로 이해”¹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개인·가정·나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신 이야기까지 통통”¹²으로 읽어야 한다고 한다. 『통통성경』의 이러한 성경 이해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를 고민해온 필자에게 근본적인 답변을 주었다. “5살 어린이부터 20살 청년까지” 성경을 가르치자는

⁸ 제프리 아서는 성경을 공개적으로 읽는 전통은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음을 주장하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출 24:3-4,7), 모세의 인생 말년에 신명기를 통해서(신31:10-13),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고 실례를 들고 있다. (수 8:30-35). 제프리 아서스, *말씀을 낭독하라*, 김은정 역 (서울: 국민북스, 2017), 14.

⁹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8.

¹⁰ Ibid., 9.

¹¹ Ibid.

¹² Ibid.

‘통통성경’의 구호와 취지는 깊은 공감이었다. 성경을 이야기를 통해 배우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통통성경’은 성경을 ‘이야기’로 전할 수 있게 한다. 자녀들에게 알기 쉽고, 재미있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전하는 것이 ‘통통성경’이다. ‘통통성경’의 특이점은 성경 66권을 “예수 십자가, One Story”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교리적인 내용에서 흔히 접하는 “예수 십자가”를 ‘통통성경’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로 전하게 해준다.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며, 5대 제국의 변천을 공부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고 주관하신다는 거대한 그림을 20대가 되기 전까지 보게 하자는 제안은 군교회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양육체계에 실질적인 대안으로 다가온다. 10주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성경의 핵심 줄거리를 이야기로 배우고 지속적인 성경통독을 통한 습(習)의 과정을 통해 성경을 통통으로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는 군교회에 본질적이면서 효과적인 양육체계로 제안하는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통통성경’과 ‘천로역정’이 ‘이야기’라는 매체를 통해서 성경과 교리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성경은 구약성경의 1/3 그리고 신약성경의 1/2 이상이 이야기로 되어 있다. 성경 자체가 내용을 ‘이야기’의 형식을 빌어서 전하고 있다.

성경을 ‘이야기’로 전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일까? 레너드 스윗은 어릴 적부터 요절 암송하는 것으로 성경을 접했지만,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야 “요절 수백 개를 외우는 자신이 정작 제대로 외우고 있는 성경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¹³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가 자신의 마음에 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절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주의 말씀을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마음에 두었다”¹⁴며 아쉬워한다. 예수님의 소통방법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비유라는 이야기의 수단을 통해서 훌륭하게 의사소통을 하셨음을 볼 수 있다. 레너드 스윗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완벽하게 외우지만, 이 성경구절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이야기 나누는 중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파악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요절로 성경을 대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가져오는 폐해를 드러내는 한 예이다. 성경은 요절암송이 아니라 이야기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힘과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군인교회 신자들의 상황에 최적화된 1-2년 주기에 적합한 양육체계로 “이야기로 성경과 교리를 배울 수 있는 ‘통통성경’ 과 ‘천로역정’ ” 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통통성경’ 과 ‘천로역정’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된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군인교회 신자들이 성경과 교리를 ‘통통성경’ 과 ‘천로역정’ 을 통해 이야기로 배워 신자의 개인 정체성을 온전하게 확립하고, 역사 속 5대 제국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 하나님과 나라를 위한 성숙한 신자로서 자아정체성을 가진 삶을 사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

본고는 이야기로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의 장점을 논할 것이다.

¹³ 레너드 스윗,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장택수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5), 40.

¹⁴ Ibid.

이야기는 인간의 경험과 세상 인식의 중요 수단이다. 이야기는 인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변화가능성을 가져오는 중요한 수단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이야기와 자기정체성의 관계를 논한 Paul Ricoeur의 논의와 삶의 방법으로서의 이야기를 주창한 Jerome Bruner의 ‘패러다임적 유형과 이야기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Paul Ricoeur는 그의 저서 『시간과 이야기』¹⁵ 1권에서 인간의 시간경험에 대한 어거스틴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상술하며, 시간에 대한 이야기의 기여와 인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이야기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Paul Ricoeur는 “시간과 이야기”를 연결하여 시간이라는 전통적 철학 주제를 자신의 해석학적 틀 속에서 이해한다. 이야기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서술방식이다. 경험은 인간이 바깥 사물과 만나는 것이며, 인간의 정체성은 경험을 통해 알고 믿게 되는 것을 바탕으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시간은 인간에게 한없는 무력감을 안겨다 주는 주제이며 삶의 실체이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함께 탄생한 시간은 인간에게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실체이며, 파악하기도 쉽지 않는 대상이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이어간다. 인간의 삶은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경험을 통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제한적이다. 바로 여기가 시간에 대한 분석과 경험의 조직을 통한 이야기의 발현의 상관관계를 염두해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인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Paul Ricoeur가 시간과 이야기를 통해 밝혀낸 ‘이야기적 정체성 (narrative identity)’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¹⁵ Paul Ricoeur, *시간과 이야기 1*, 김한식 외 1명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7).

김영래는 Jerome Bruner의 앎의 유형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며, 앎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앎이란 ‘경험을 정렬’ 하고, ‘실재를 구성’ 하며, ‘기억의 표상을 조직’ 하고, ‘지각된 세계를 정제’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인간의 인지적 기능”¹⁶이다. 패러다임적 유형(paradigmatic mode)이 “합리적 가설에 따라 인도된 좋은 이론, 철저한 분석, 논리적 증명, 경험적 발견”¹⁷ 이라면, 이야기 유형(narrative mode)은 “좋은 이야기, 흥미로운 드라마, 신뢰할 만한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 인간 또는 인간과 같은 의도, 그리고 행동, 그 과정에서의 우여곡절과 결과를 다루는”¹⁸ 것이다. 본 논고는 이를 통해 지식습득의 구조에서 ‘이야기 유형’이 가져다 주는 경험적 지식 습득의 장점을 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라는 전달형식을 통해 성경과 교리를 알아가는 방식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자아정체성 형성과 신앙의 진보를 위해 이야기로 배우는 성경과 교리가 어떻게 교회현장에서 기능하는지에 대한 실례를 본인이 군대교회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통성경학교’와 ‘존 번연의 천로역정 강해’의 성과들을 제시할 것이다. 본인은 이 두 종류의 목회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야기로 성경을 가르치는 ‘통통성경학교’와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교리 강좌인 ‘천로역정 강해’가 이야기로 성경과 교리를 충분히 재미있고 쉽게 전할 수 있는 양육체계로 충분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을 갖추기 쉽지 않은 군인교회의 효과적인 양육체계로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통통성경학교와

¹⁶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 교육,” *신학과 세계* 제81호(2014), 299.

¹⁷ Ibid., 300.

¹⁸ Ibid.

천로역정' 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이야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Paul Ricoeur를 살펴보는 것은 도전적 과제이다. Paul Ricoeur의 저서인 『시간과 이야기』는 김한식의 번역으로 3권까지 완간 되었다. Paul Ricoeur의 사상이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의 변모과정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 논지를 명확히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Paul Ricoeur의 이야기 관련 논의를 모두 거론하는 것은 이야기의 역동성과 자아정체성과의 연관을 살펴보려는 본 논문의 논지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Paul Ricoeur의 이야기 관련 논의를 『시간과 이야기 1』¹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Paul Ricoeur의 개념과 논지를 정리하기 위해 김한식의 「리코르의 이야기론」²⁰과 「폴 리코르의 이야기 해석학」²¹을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기독교교육과 이야기의 연관은 Jerome Bruner의 이론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Jerome Bruner의 이론은 김영래의 「이야기와 기독교교육」²², 「성경과 기독교교육」²³에서 접하게 되어, 관련 논의를 정리하였다. 따라서 기독교교육과

¹⁹ Ricoeur, *시간과 이야기 1*, 김한식 외 1명 역(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7).

²⁰ 김한식, “리코르의 이야기론: 『시간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제4호(2002).

²¹ 김한식, “폴 리코르의 이야기 해석학,” *국어국문학* 제146호(2007).

²²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교육-신앙교육을 위한 앞의 방법으로서의 이야기 탐구,” *신학과 세계* 제81호(2014).

²³ 김영래, “성경과 기독교교육-교수학습에서의 “이야기”의 재발견,” *신학과 세계* 제75호(2012).

이야기의 연관은 Jerome Bruner와 김영래의 논지를 따르고자 한다.

이야기로 배울 수 있는 성경과 교리의 부분에서, 성경은 조병호의 ‘통통성경’을, 교리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조병호는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통통으로 전하는 것에 매진해 왔으며, 성경통독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로 5세부터 20세의 자녀에게 전하자는 성경통독 운동을 펼쳐왔다. 조병호는 “구약을 3개의 제사장 나라 트랙(track)으로, 신구약 중간사를 1개의 트랙으로, 신약은 3개의 하나님 나라 트랙으로 보는 7개의 트랙 분위기로 성경을 볼 것”²⁴을 제안한다. 또한 “7개 트랙을 바탕으로 7개 스텝(그 순간, 영성, 나라, 마음, 줄기, 기도, 전도)으로 이야기하여 성경을 파편화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²⁵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7개 스텝 중 그 순간, 영성, 나라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야기로 성경을 이해하고 전하는 것의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할 것이다.

『천로역정』은 구원과 성화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리를 이야기의 형식으로 정리하는 데 탁월함을 발휘한다. 그 중 본고는 『천로역정』이 다루는 교리 주제 중에서, ‘소명, 칭의, 양자됨, 성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 신자들이 죽을 때 받는 복’의 6개 분야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해당 주제 부분을 제시한 후 『천로역정』에서 어떻게 이 주제를 풀어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야기로 배우는 성경과 교리’의 목회적용 사례로는 군인교회 -

²⁴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25.

²⁵ Ibid.

육사교회, 연무대군인교회, 육군본부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통성경학교』와 『존 번연의 천로역정 세미나』를 정리하였다. 이 세 교회는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신자의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교회여서 주중시간을 이용한 연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성경과 교리를 이야기로 배울 때 많은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발견하게 해 준 목회현장이기도 하다. 다만 육사교회에서는 실험적인 내용으로 진행하는 면이 강했음을 밝혀둔다. 육사교회에서 처음 진행한 『통통성경학교』의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10주를 진행하는 초창기 모델이었기 때문에 필자 스스로도 그 효과를 장담하기 쉽지 않았다. 강사마다 강의의 질과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육사교회에서 처음 진행한 『존 번연의 천로역정 강해』 또한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새벽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충분히 내용을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연무대군인교회와 육군본부교회는 전달과 진행에 있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이야기로 배우는 성경과 교리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었으며, 특히 육군본부교회는 설문지를 통해 그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제 II 장

이야기에 대한 이해

본고의 주목적은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과 교리를 전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통한 인간의 자아정체성 형성의 측면에서는 Paul Ricoeur의 ‘미메시스 3단계론’과 관련된 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야기가 자아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또한 이야기라는 틀의 인식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Jerome Bruner의 ‘패러다임적 유형(paradigmatic mode)과 이야기 유형(narrative mode)’²⁶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Jerome Bruner의 이야기에 대한 논의는 기독교교육적 함의와 연관되어 이야기를 통해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의 인식론적 장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자아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이야기

시간과 이야기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수많은 경험이 그대로 개인에게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²⁶ 국내 학자에 따라 이야기로 번역하기도 하고, 내러티브(narrative)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통일성을 위해서 이야기로 통칭하기로 한다.

하나의 경험은 다가오는 또 다른 경험에 의해서 묻히고 사라진다. 기억에 의해서 그 경험이 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억도 잊혀 지게 된다.

성경의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²⁷고 외쳤다. 이는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탄식이기도 하다. 전도자는 인간 존재의 경험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남는 것은 아니며, 인간사회에서도 당대에는 유의미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풀이되어 그 유의미성이 퇴색해감을 직시했다. 흘러가는 경험과 그 경험의 무의미성에 대한 안타까움은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되고 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음이라.²⁸

왜 시간은 인간에게 무의미함을 가져다 주는가? 선한용은 그의 저서 『시간과 영원』에서 세계창조의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세계창조는 무형의 질료인 ‘거의 무(*prope nihil*)’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prope nihil*은 절대 무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체에 내버려두면 그 고유의 경향은 어떤 형상으로 향하기보다는 무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²⁹는 것이다. 창조주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창조의 속성상 “사물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시간의 기초”³⁰가 되는 것이며 시간의 무의미성의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²⁷ 전도서 1:9.

²⁸ 전도서 1:9-11.

²⁹ 선한용, *시간과 영원*, (서울: 성광문화사, 1994), 61.

³⁰ *Ibid.*, 62.

창조주는 세상을 허무에 내버려 두도록 창조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세계는 모든 형상의 형상이 되신 말씀에 의해 형성되고 질서 지워졌기 때문에 일정한 형상을 지닌 존재들은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존재하게 된다.”³¹고 한다. 그렇지만 이와 아울러 “세계는 항상 무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을 가진 *prope nihil*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무로 향해 움직이는 존재의 분산과 오해 즉 비존재로 향해 있게”³² 되는 것이다.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지만, 무에서 지어진 세계이기에 존재의 소멸로 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일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묻는 자에게 내가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모릅니다.”³³라는 존재론적 대답을 하고 있다. 시간은 가변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시간은 자체 안에 질서와 무의 양면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유동하여 지나가고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³⁴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간은 비존재(*non esse*)로 흘러 지나가는 것으로만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³⁵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비존재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인간의 경험은 무의미성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무의미한 경험의 소멸 속에서 인간은 존재의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조직화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인간의 무수한 “경험은 할 말이 있고,

³¹ Ibid., 61.

³² Ibid.

³³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선한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394.

³⁴ 선한용, *시간과 영원*, 62.

³⁵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394.

말해지기를 기다리는”³⁶ 것이다. 말해지기를 기다리는 경험은 특히 고통과 고난(pain and suffering)의 문제에서 두드러진다. 인간에게 숙명적으로 주어지는 개별적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 자신의 경험의 의미를 찾게 만든다. 자신에게 발생한 다양한 경험에 대한 숙고는 구체화된 말로 표현하게 된다. 상징이라든지 은유, 이야기의 형식을 취하여 구체적인 언어로 드러나게 된다. 김한식은 이를 “경험은 이야기되기를 기다리고 이야기는 서술적인 방식으로 경험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³⁷ 라고 정리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무의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행위를 통해 자기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험과 시간의 관계는 “모든 삶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시간을 갖는다면 인간의 경험은 시간경험”³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의 경험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시간 속의 경험을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는 양식이 된다. Paul Ricoeur는 “시간은 서술적 방식으로 진술되는 한에 있어서 인간의 시간이 되며, 반면에 이야기는 시간 경험의 특징들을 그리는 한에 있어서 의미를 갖는다.”³⁹고 표현했다. 시간은 인간이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진술될 때 인간에게 유의미한 것이 되며, 이를 통해 인간도 자기 존재의 의미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야기도 인간의 시간경험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간이 경험한 모든 것은 서술적 방식이라는

³⁶ 김한식, “폴 리콥르의 이야기 해석학,” 160.

³⁷ Ibid.

³⁸ 김한식, “리콥르의 이야기론: 『시간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160.

³⁹ Ricoeur, *시간과 이야기 1*, 25.

이야기의 형식을 취할 때에야 비로소 인간에게 “유의미한 시간” 이 되는 것이며, 이야기라는 형태도 인간이 경험한 것을 특징적으로 재현한다는 것에서 그 ‘의미성’ 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인간은 시간의 물결 위에 부유하는 경험이라는 편린들을 이야기라는 형식을 통해 조직화하며, 인간은 이렇게 형성된 이야기를 통해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존재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아정체성이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야기의 힘이 드러난다.

어거스틴의 시간과 이야기

Paul Ricoeur는 어거스틴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통해 시간과 이야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어거스틴의 시간에 대한 논의는 ‘시간의 패러독스’ 라고 불린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만일 아무 것도 흘러 지나가지 않으면 과거의 시간이란 없을 것이요, 만일 아무것도 흘러오지 않으면 미래의 시간이 없을 것이며, 만일 아무것도 현존하지 않는다면 현재라는 시간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지금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시간, 즉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하여 있게 되는 것입니까?⁴⁰

선한용은 “우리가 어떤 존재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의 있음을 파악하는 것”⁴¹이며, 그렇기에 “시간은 항상 지나가는 것이어서 그 본질을

⁴⁰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394.

⁴¹ 선한용, *시간과 영원*, 74.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⁴²라고 한다. 어거스틴은 “시간은 비존재(*non esse*)로 흘러가는 것으로만 존재한다⁴³”고 말하여 시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미래나 과거의 어떤 시간을 두고 짧다든지, 길다든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한용은 “어거스틴에 의하면 우리가 시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지만 그것을 인간의 내면(*home interior*)에서 의식된 시간경험에서 파악하려고 하면 그 난점이 풀리게 된다”고 한다.⁴⁴ 인간의 정신작용으로 시간의 실체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즉 과거 일의 현재는 기억이요, 현재 일의 현재는 직관이며, 미래 일의 현재는 기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다면 나는 그와 같은 면에서 세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보며 그것을 또한 주장하겠습니다.⁴⁵

어거스틴은 “시간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체험”⁴⁶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기대’ 하고, ‘직관’ 하고, ‘기억’ 한다. 우리 마음이 기대하는 것은 직관하는 것을 통하여 기억하는 것으로 흘러 지나간다.”⁴⁷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균열은 무의미와 혼돈으로 다가온다. 인간은 이를 그냥 두지 않고 “(시간의) 균열을 통합하고 불협화음에 화음을 부여하려는

⁴² Ibid.

⁴³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394.

⁴⁴ 선한용, *시간과 영원*, 76-77.

⁴⁵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401.

⁴⁶ 김한식, “리콰르의 이야기론: 『시간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162.

⁴⁷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413.

정신의 긴장(*intentio animi*)으로 또 다른 시간 체험”⁴⁸을 형성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작용을 통해서 시간의 균열을 온전히 통합하고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 선한용은 “하나님은 만물의 존재 근원으로서 불변하신 영원자이기 때문에 그는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아시는 존재자이시므로 그에게만 안정과 행복이 있고, 피조물은 가변적인 시간적 존재로서 항상 변하기 때문에 안정과 평안이 없다.”⁴⁹고 한다. 끝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 스스로의 존재됨을 찾기란 어려운 것이다. 인간은 시간을 경험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래하거나 시를 낭송하거나 이야기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은 오로지 말하는 현재의 긴장을 통해서만 존재한다.”⁵⁰고 말할 수 있다.

Paul Ricoeur는 어거스틴의 시간과 관련된 논의를 설명한 이후에 어거스틴이 암시했던 일종의 해결책, 즉 이야기 하는 행위가 시간 체험과 어떻게 결부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끌어들이고 있다. 시간체험이 인간의 정신작용이라고 본 어거스틴의 논의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줄거리 구성’이라는 이야기 행위의 연구와 연결지어 시간과 경험사이의 관계를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과 이야기

Paul Ricoeur는 이야기의 행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뭉토스(*muthos*, 줄거리 구성)’로 이해한다. 수없이 많은 행동과 경험의 사건들을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며 배열해 가는 행위를 통해서 줄거리 구성을 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⁴⁸ 김한식, “리콥르의 이야기론: 『시간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162.

⁴⁹ 선한용, *시간과 영원*, 71.

⁵⁰ 김한식, “리콥르의 이야기론: 『시간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163.

완결적인 체계를 가진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Paul Ricoeur는 어거스틴의 시간 이해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줄거리 구성이 시간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음에 주목한다. 어거스틴의 시간체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균열되어 있는 시간을 긴장을 통해 극복하는 인간정신의 활동을 말한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뤼토스는 산발적으로 흩어진 사건들을 완결된 이야기로 엮어내는 줄거리를 꾸미는 구조를 말한다. 상호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험과 사건들을 하나의 이해될 수 있는 유기적인 시간 단위로 묶어 내는 것이다.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을 일관성 있는 이야기로 묶어내어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뤼토스는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⁵¹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는 줄거리 구성을 통해서 “시작-중간-결말을 갖는 완결되고 전체적인 스토리”⁵²가 되는 것이다.

줄거리 구성을 통해 형성된 이야기는 시간을 온전히 극복한 완전체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야기에든 균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시간적 순서에 의해 사건과 경험을 나열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줄거리 구성을 통해 이질적 사건과 경험을 배열하고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줄거리 구성을 통해서 모든 경험과 사건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한식은 이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어거스틴의 시간은 정신의 긴장과 이완에 따라 ‘화음을 이루는 불협화음’으로 체험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의 시간은 줄거리 구성 고유의 질서에 따라서 ‘불협화음을

⁵¹ Ibid., 164.

⁵² Ibid.

내는 화음' 으로 체험되게 되는 것이다.”⁵³

Paul Ricoeur는 “이야기하는 행위와 시간 경험 사이에 근본적인 유사성을 설정”⁵⁴한다. 인간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경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줄거리를 구성한다는 것은 시간 선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삶-역사-시간’의 눈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시야를 통해서 무질서하게 보이고 흩어져 있던 사건과 경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이야기로 직조(織造)되어지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이란 줄거리를 엮어가면서 시간을 그려보는 다양한 방식”⁵⁵인 것이다. 인간은 시간을 그려보는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현재를 인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기 존재를 구성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경험에서 어떻게 줄거리를 이끌어 내며, 그것의 결론적 효과는 무엇인가? 이야기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 Paul Ricoeur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의 줄거리 구성을 둘러싼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Paul Ricoeur의 미메시스 3단계론

인간은 어떻게 경험을 이야기로 직조하는가? 시간체험을 어떻게 이야기를 통해 재구성하며, 이 재구성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이야기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Paul Ricoeur는 『시간과 이야기』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뮈토스-카타르시스”의 3단계 재현활동을 상술하면서 경험과 이야기의 상관관계를

⁵³ Ibid., 166.

⁵⁴ 김한식, “폴 리콰르의 이야기 해석학,” 218-19.

⁵⁵ Ibid.

고찰하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재구성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경험한다는 해석학적 논리 체계를 세운 Paul Ricoeur의 ‘세 겹의 미메시스(미메시스I, 미메시스II, 미메시스III)’를 살펴보자. 이를 통해서 인간의 변화가능성이 이야기를 통해 주어질 수 있다는 주장의 실효성도 점검하게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따르면 ‘미메시스’는 ‘행동하는 인간의 재현’이라고 한다. 이것은 현실 그대로를 재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과 재현에는 많은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행위는 사건과 경험을 만들어 내고 이를 이야기로 엮어낸다. 리콤폴르는 “행위-사건-이야기를 시간-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세 겹의 미메시스’ (미메시스 I, 미메시스 II, 미메시스 III)로”⁵⁶ 제안하고 있다.

리콤폴르가 말하는 ‘미메시스 I’ (전형상화)는 이야기로 형상화되기 이전의 경험, 즉 줄거리로 구성되기 이전의 ‘행동의 세계에 대한 전(前)이해’의 단계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과거는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속에서 현재의 상황과 경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이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아직 말로 이야기되지 않은, 이야기되기를 기다리는 이야기”⁵⁷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미메시스 I은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리콤폴르는 “줄거리 구성은 행동의 세계-행동의 이해 가능한 구조들과 그 상징적 표현 능력, 그리고 그 시간적 특성-에 대한 전(前)이해에 뿌리 박고 있다.”⁵⁸고 한다. 미메시스I는 “행동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것, 그것은 우선 인간의 행동, 즉

⁵⁶ Ibid., 221.

⁵⁷ Ibid.

⁵⁸ Ricoeur, *시간과 이야기 1*, 128.

그 의미론과 상징성 그리고 시간성이 어떠 한지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며, 줄거리 구성, 그리고 그와 더불어 텍스트와 문학의 재현성은 작가와 독자에 공통된 바로 이러한 전이해를 바탕으로 세워진다.”⁵⁹고 한다. 줄거리를 구성하기 전에 경험, 즉 인간의 행동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경험이 있다고 해서 줄거리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험세계에 대한 이해와 말해지기 전에 이에 대한 정신작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미메시스II’ (형상화)는 “미메시스I에서 이해된 행동의 뜻을 실제로 줄거리로 꾸며 이야기로 옮기는 행위”⁶⁰이다. 이 단계를 통해 이야기로 조직화되어 표현되기 이전의 이야기들, 즉 “의미 있는 행동으로 체험된 시간에 질서와 형상을 부여”⁶¹하게 되는 것이다. 줄거리 구성은 세 가지 명목으로 매개되는데, 첫째는 “사건 또는 개인적 일상사와 하나의 전체로 구성된 스토리 사이를 매개”⁶²한다. 둘째, “행동 주체, 목적, 수단, 상호작용, 상황, 예기치 않은 결과 등과 같은 이질적인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구성”⁶³한다. 셋째, 줄거리는 “그 고유의 시간적 특성이라는 명목으로 매개적”⁶⁴이라 할 수 있다.

줄거리 구성은 이질적 시간들 사이의 간격을 메우며, 경험이라는 개인적 차원이 전체적인 이야기에 편입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줄거리 구성을 통해서 이질성이 극복되고 이해될 수 있는 현실로

⁵⁹ Ibid., 146.

⁶⁰ 김한식, “리콥트의 이야기론: 『시간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168.

⁶¹ Ibid., 168.

⁶² Ricoeur, *시간과 이야기 1*, 149.

⁶³ Ibid.

⁶⁴ Ibid., 150.

바라보게 된다. 그렇다고 무작위적으로 이야기를 조합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라는 틀”에 맞추어야 한다. Paul Ricoeur는 이것을 두고 “작품의 내적인 코드에 따른 이야기의 자기 구조화(self-construction)”⁶⁵라고 한다.

미메시스 III(재형상화)은 “텍스트의 세계와 청중이나 독자의 세계가 교차함을 나타낸다.”⁶⁶ 즉 “독자가 이야기의 뜻을 풀어 삶의 뜻을 찾아가는 작업이며 독서행위를 통한 카타르시스가 생기는 것도 이 단계”⁶⁷이다. 이제 말하기를 기다려온 경험과 사건들이 이야기로 형상화되고, 형상화된 이야기가 독자의 현실세계를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의 논의와 내용이 모두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독자 또한 저자의 뜻을 풀어서 이해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자기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풀어서 자기 삶의 뜻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읽는 것은 잠재적 현실의 세계, 질서를 갖춘 세계를 ‘경험’ 하는 것”⁶⁸이다. 이처럼 이야기의 기능은 경험과 사건의 세계를 줄거리 구성을 통해서 재현하고 제시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현실세계와 관계를 맺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가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독자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문제제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해석학적 순환이 완성된다. 이야기를 통해 독자는 자신의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도전적 과제를 받아 안게 된다. 여기에 자아정체성 형성과 변화에 기여하는 이야기의 힘이 있는 것이다.

⁶⁵ 김한식, “리쾨르의 이야기론: 『시간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169.

⁶⁶ Ricoeur, *시간과 이야기 1*, 159.

⁶⁷ 김한식, “폴 리쾨르의 이야기 해석학,” 146.

⁶⁸ Ibid, 222.

자아정체성과 이야기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상황을 대하게 되며, 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아의 구축과 재구축도 병행하게 된다. 구축과 재구축의 작업은 과거에 대한 기억 및 미래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 속에서 진행된다. 인간이 희망과 두려움 속에서 자아를 형성해 가는 것은 인간은 본질적 한계, 즉 죄와 연관된다. 선한용은 그의 『고백록 해설』에서 “인간은 자신이 본래 속한 고유의 제자리에 가 있으면 안정을 찾게 되고 제자리를 벗어나면 불안정”⁶⁹해지며, 이것은 “인간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 즉 하나님이 창조 대 인간으로 하여금 있으라고 정해주신 ‘제자리’에 있지 못하기”⁷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있어야 할 ‘제자리’는 “당신(하나님)을 향해서(ad te), 그리고 당신 안에(in te)”⁷¹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거스틴의 결론을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⁷²라는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 자리’를 벗어난 인간은 스스로의 ‘자아 정체감’을 어떻게 구축 할 것인가? ‘자아 정체감’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연관된다. 즉 변화하는 ‘자아’와 변하지 않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정체감’의 구성이 ‘자아정체감’이라 할 수 있다. Paul Ricoeur에게 정체성이란 “이야기에 의한 형상화와 재형상화를 통한 역동적이고 일관된 시간적 구조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⁶⁹ 선한용,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38.

⁷⁰ Ibid.

⁷¹ Ibid.

⁷² Ibid.

정체성”⁷³이다. 이는 “고유의 문화에 의해 계승된 역사적 허구적 이야기를 받아들여 뜻을 이해하고 자기의 존재의미를 찾아가는 정체성”⁷⁴이라는 점에서 반성적 사유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적 정체성은 자신에게서 그치지 않고 민족의 정체성과도 연계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 속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민족적 경험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는 틀을 통해 해석되며, 이를 통해 민족적 비전을 다시 형성하는 과정을 역사 속에서 되풀이해왔다. 즉 “이야기를 만들어 내면서 역사를 돌이켜보고 그 이야기를 풀어 역사의 뜻을 찾고, 그 속에서 자기 삶의 뜻을 찾는 것”⁷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리콤피르의 미메시스 3단계론의 해석학적 순환(전형상화, 형상화, 재형상화)과 일치한다. 따라서 Paul Ricoeur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이야기정체성인데, 김한식은 “이야기 정체성은 미리 정해져 있거나 영구불변한 정체성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가는 정체성”⁷⁶으로 정리한다.

Donald Polkinghorne은 “자아정체성의 개념은 이질성과 동질성이라는 긴장관계에 있는 두 용어를 포함”⁷⁷하는 것이며, “자아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개인에게 동일성과 독특성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실체 혹은 토대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것”⁷⁸이라고 정의한다. Donald Polkinghorne은 무엇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세 가지 답변이 있어왔다고 한다. 첫째

⁷³ 김한식, “폴 리콤피르의 이야기 해석학,” 238.

⁷⁴ Ibid.

⁷⁵ Ibid.

⁷⁶ Ibid, 239.

⁷⁷ Donald E. Polkinghorne,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서울: 학지사, 2016), 298.

⁷⁸ Ibid.

답변은, 자아정체감은 신체의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내가 나 자신인 것은 나의 실체가 시간상으로 지속된 이 특정한 신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⁷⁹ 신체적 특징의 독특성에서 자아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답변은 현대에 들어서 성형수술과 신체기관의 이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의문점을 가지게 한다. 또한 우리의 신체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지문과 같은 몇 개의 신체적 특징을 제외하고는 일평생 바뀌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⁸⁰ 따라서 신체의 정체성이 자아정체감을 이루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수공하기 쉽지 않은 답변이 된다. 두번째 답변은, 자아정체감은 기억의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이 경험한 여러 기억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다. 즉 “내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 자신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⁸¹ 세 번째 답변은 자아정체감은 영적 자아 혹은 정신적 존재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⁸² “개인의 정체성은 경험 자체에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기억하는 정신적 주체에 관련되어야”⁸³한다는 것이다. 데카르트도 개인의 정체성은 독특한 정신적 실체와 각 사람의 자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Polkinghorne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여러 요인들과 아울러 ‘이야기로서의 자아’ 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개인의 정체성의 초점은 바탕에

⁷⁹ Ibid., 299.

⁸⁰ Ibid.

⁸¹ Ibid., 300.

⁸² Ibid.

⁸³ Ibid.

있는 실체의 동일성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잠재적으로 가능한 것을 실현하는 과정”⁸⁴이라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의 중간에 있으며, 새로운 사건들이 추가되면서 플롯(plot)이 끊임없이 수정되면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미래적인 전망까지 포함하는 “역사적인 통일체로서 자아정체감을 이해해야”⁸⁵한다는 것이다.

Polkinghorne은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삶의 이야기에 연결되며, 행위를 통일된 플롯으로 결합시킨다”⁸⁶고 정리하고 있다.

‘이야기로서의 자아’는 개인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다시 기술하는 것이며, 자아의 여러 측면을 통합하는 것이다. 니체에 따르면 자아는 항상 동일한 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오히려 “자아는 이루어지는 존재, 만들어지는 존재”⁸⁷이다. 자아는 열린 결말이며, 완결된 것이 아니다. 이야기는 그러한 자아를 형성하고 끝없는 일화와 플롯을 통해 구성해 나가는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존재의 형성에 기여한다. 그는 “과거의 사건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현재에 연결시키는 데 사용하는 이야기는 바꿀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조차도 우리가 기꺼이 책임을 지는 사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⁸⁸고 믿는다.

요약하면, 이야기는 자아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야기의 재조직화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사건들조차도 책임지는

⁸⁴ Ibid., 307.

⁸⁵ Ibid., 305.

⁸⁶ Ibid., 308.

⁸⁷ Ibid., 313.

⁸⁸ Ibid., 314.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자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역사적, 책임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삶의 방법으로서의 이야기

인간은 어떻게 삶을 인식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오감에 의한 인식을 넘어서 인간이라는 주체가 어떻게 대상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김영래는 “우리는 오랫동안 학습의 상황에서 인지적 능력에 기초한 논리적 삶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⁸⁹으로 여겨왔다고 하며, 이러한 인식은 “과학과 이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근대적 사고와 연관”⁹⁰된다고 본다. 인지적 능력에 기초하여 사물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귀결만이 중요한 인식의 방법이라 여겨온 것이다. Jerome Bruner의 ‘이야기를 통한 삶’은 ‘이야기를 통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Jerome Bruner의 인식의 두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가 전하는 함의를 살펴보며 이를 통해 이야기를 통한 인식의 방법이 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패러다임적 유형과 이야기 유형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삶을 이어간다. 인간의 모든 인식의 근간은 이러한 경험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경험은 그에 대한 판단을 통해 유의미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틀에서 ‘이야기(narrative)’는 인간의 경험을 유의미하게 하는 필수적이면서 주요한 형식이 된다. 이야기는 정신적인 작용의

⁸⁹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교육,” 297.

⁹⁰ Ibid., 298.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찰할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야기는 그것의 축적물인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역사, 신화, 우화, 소설” 등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야기는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즉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 이야기의 인지적 도식, 그 과정의 결과, 곧 ‘이야기’, ‘설화’, ‘역사’ ”⁹¹등을 가리킨다. 롤랑 바르트는 인간의 삶에서 이야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야기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며, 이야기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인간은 이야기 없이는 존재하지도 결코 존재할 수도 없다.”⁹²고 말한바 있다.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한 주목은 인간이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느냐에 대한 기존의 인간이해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Jerome Bruner는 인간의 지식을 조직하는 구조로 ‘사고의 양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고양식을 ‘패러다임적 사고(paradigmatic thought)’와 ‘이야기적 사고(narrative thought)’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Jerome Bruner에 따르면 패러다임적 사고란 “좋은 이론, 엄격한 분석, 논리적인 증거, 건전한 논증, 추론적인 가정을 이끌어 내는 경험적인 발견”⁹³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패러다임적 사고는 계통화 또는 개념화를 통해 ‘서술과 설명의 형식적-수학적 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앎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논리적-과학적 유형’(the logical-scientific mode)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패러다임적 사고는 증명 가능한 사항을 확증하고 경험적 진리를 위해 시험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 패러다임적 사고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며,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성을

⁹¹ Polkinghorne,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44.

⁹² Ibid., 46.

⁹³ 이훈정, “내러티브의 교육과정적 의미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제10권 제1호*(2004), 155.

유지하지 않으며,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에 반해 이야기적 사고는 “좋은 이야기, 마음을 사로잡는 드라마, 반드시 진리인 것은 아니지만, 믿을 수 있는 역사적인 설명”⁹⁴을 가능하게 한다. 이야기적 사고는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상황과 맥락 속에서 달라질 수 있다. 즉 “내러티브 사고는 사람들의 의도와 변화가 개입된 이야기”⁹⁵인 것이다. 물리적 세계를 대상으로 삼는 패러다임적 사유의 본질은 현상계의 인과적 관계에 주목하면서 논증의 방식으로 현상을 재현하고자 하는 데 있는 반면, 생동하는 인간의 세계와 관련된 이야기적 사유는 그 세계의 주인공인 행위 주체자들의 의도과악에 주력한다.

패러다임적 유형과 이야기 유형에 대해 김영래의 설명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김영래는 두 유형이 가치의 문제와 감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두 유형은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양식에서 뚜렷한 차이”⁹⁶를 보인다. 그에 따르면 “패러다임 유형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진위과악을 위한 실험을 통해 얻어지지만, 이야기 유형은 진리가 객관적인 실체로 획득될 수 없다.”⁹⁷ 즉 “패러다임 유형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서술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이야기 유형은 선악을 나누는 가치를 설정하는 차이를 보인다.”⁹⁸ 둘째, 두 유형은 감각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패러다임 유형은 감각을 주관적이며 비논리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앎의 과정에서

⁹⁴ Ibid., 155.

⁹⁵ Ibid.

⁹⁶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 교육,” 301.

⁹⁷ Ibid.

⁹⁸ Ibid.

배제시킨다.”⁹⁹ 감각을 배제하는 과학적 합리적 이성만이 신뢰할 만한 앎의 도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Jerome Bruner는 이야기적 앎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며, 지금의 세상은 이야기의 규칙과 도구에 따라 구성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는 “초인지적 민감성을 개발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¹⁰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영래는 인간의 경험과 삶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는 “(이야기를 통해) 실증적 현상 뒤에 숨어있는 사실의 심연에 도달할”¹⁰¹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역사성이 객관적 실체를 다룰 수 있다는 실증주의적 역사관에 대한 신뢰는 희석된 지 오래다. 오히려 인간은 이야기와 그 이야기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본질적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셋째, 두 유형은 언설(discourse)을 다룰 때 다른 방법으로 표현된다. 김영래는 “서사적 유형은 이야기의 과정에서 화자의 주관적 참여가 보장되지만, 패러다임적 유형에서 화자는 최대한 객관적이며 관조적 입장을 견지하고 사실의 나열”¹⁰²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

Jerome Bruner는 “서사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말하여진 것 이상을 의미해야 하며, ‘본문 속의 진리’가 문자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개방된 본문이나 이야기로 다루어”¹⁰³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경의 이야기가 성공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 이면의 작중 화자의 의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청중의 역동적인 참여와 나눔이 필요하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⁹⁹ Ibid., 302.

¹⁰⁰ Ibid., 302-3.

¹⁰¹ Ibid.

¹⁰² Ibid.

¹⁰³ Ibid., 204.

Paul Ricoeur의 이야기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이야기의 재형상화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와 형상화된 이야기의 만남을 통한 자아정체성 형성이다. Jerome Bruner가 이야기의 성공이 발화된 것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고, 본문의 실체가 독자들의 다양한 해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을 논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는 삶의 방법에서 그치지 않는다. 독자는 전해진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석하게 되고, 해석된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변모될 수 있게 된다. 이야기가 전해줄 수 있는 이 같은 가능성은 성경의 이야기가 신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능을 밝히는 대목이다.

패러다임적 유형과 이야기 유형은 상보적인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치환되거나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브루너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경험을 재배열하고, 실재를 각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는 두 가지 인지적인 기능 유형, 혹은 두 가지 사고의 유형이 있다. 두 가지 방식은 서로 보완적이지만 불가통약적이다. …… 더욱이 지식에 대한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방식은 그 자체의 작동 원리와 범주를 가진다. 그들은 진리를 입증하는 방법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¹⁰⁴

패러다임적 유형이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반면에, 이야기 유형은 경험적 행위들을 연결할 수 있는 거름못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야기의 특별한 주제는

¹⁰⁴ Jerome Bruner,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11.

‘인간 의도의 변화’, 즉 인간 행동의 변화하는 방향과 목표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야기 틀 안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계획된 행동의 노력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유형이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각기 이질적인 개개의 문화적인 토양 속에서 두 표현양식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적 유형과 이야기유형은 조병호의 통(通)에 대한 설명과 연계된다. 조병호는 통(通)에 대해 설명하면서 “통(通)으로 본다는 것이 대상을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한다면, 통(通)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대상을 꿰뚫어 생각하는 것, 즉 대상을 꿰뚫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⁰⁵고 한다. 그는 세상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서양은 분석적인 방식을 택해왔고, 동양은 전체적 사고를 택해왔다”¹⁰⁶고 분석하고, 통으로 본다는 것은 “분석적이고 전체적인 사고를 유기체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 실체의 속성과 본질에 집중하는 서양의 사고방식 기반 위에, 본질질적인 특징을 상황과 관계 안에서 찾아내는 동양의 사고방식이 조화를 이룬 것”¹⁰⁷으로 설명한다. 앞서 논의한 패러다임적 유형과 이야기적 유형의 인식 방법론이 통(通)방법론을 통해서 수렴, 조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¹⁰⁵ 조병호, *통이다 LET'S 通* (서울: 통독원, 2009), 63.

¹⁰⁶ Ibid., 64.

¹⁰⁷ Ibid.

이야기 유형의 특징

지금까지 패러다임적 유형과 이야기 유형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이야기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야기로서의 내러티브에 대해 Jerome Bruner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내러티브는 허구 혹은 실제 사건의 진술이라 칭해질 수 있으나 어떤 것이라고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인간과 같은 인물(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의도를 만들며 신념을 지니고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존재)과 특정 인물이 특정 사건과 연루되어 있고, 시작과 중간 및 끝이 있는 줄거리가 필요하다. 줄거리는 우선 합법적인 일상성에 기반을 둔 안정된 상태로 시작하지만 인간 대리자로 인해 발생하거나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변화되기 쉬운 상황으로 이루어진 곤경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다. 이를 시정하거나 변형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그 노력은 성공하거나 실패로 돌아간다. 결국 전과 같은 안정된 상태가 복구되거나 새로운(변형된) 상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말(최종 부분)을 통해 지금까지 들려준 그 때 거기서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의 이야기로 끌어들이며 끝맺는다.¹⁰⁸

강현석은 Jerome Bruner의 이 같은 정의를 토대로 이야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진술하면서 이야기 유형이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중요 요소를 정리하고 있다.

첫째, “이야기의 구성요소는 인물(character)과 줄거리(plot)”¹⁰⁹이다. 성경을 예로 들어보자. 성경에는 “대략 2,000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명의 인간”¹¹⁰이 등장한다. 조병호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¹⁰⁸ Amsterdam, A.G. & Bruner, J.S. *Minding the Law*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113-14. 강현석, 조인숙,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방향의 탐색,” *초등교육 연구 제26호*(2013), 190에서 재인용.

¹⁰⁹ Ibid.

¹¹⁰ 조병호, *통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9), 11.

살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¹¹¹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집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등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인 가나안 정탐꾼 10명, 여로보암, 예후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과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란 줄거리를 통해서 5,000명의 인물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조직하는 구조는 입장(plight)”¹¹²이다. 이야기는 단선적이지 않고 중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인물과 줄거리가 결합되어 있는 상층의 구조와 그 구조 내에 있는 인물들의 각자의 입장이 하층구조를 형성하며 이러한 상층구조와 하층구조는 병행하거나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¹¹³는 것이다. 강현석은 “이야기의 구조의 특징은 우리의 삶에서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스크립트(script)를 깨뜨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성경 속 인물 중 삼손은 그러한 예로 거론할 수 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신 사사(Judge)이다. 사사기 13장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실망한 하나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침탈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회개를 이끌어 내신다. 외침으로 침탈된 이스라엘 지파를 규합하여 다시금 국권을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삼손의 역할이었다. 그의 부모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아들 삼손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¹¹¹ Ibid.

¹¹² 강현석,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방향의 탐색,” 191.

¹¹³ Ibid.

태어나기 전부터 알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에 전심전력한다.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 되어 블레셋의 침략을 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할 것 같았던 삼손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그는 동포들을 모아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조직적인 군사 지도자로 기능하지 못했다. 그는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분노를 불러 일으킨 블레셋에 대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감행하는 것으로 그친다. 자신의 복수심을 충족시키는 것일 뿐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조병호는 “그(삼손)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블레셋 여인 들릴라 사이에서 갈등하며 마음을 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며), 이런 삼손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¹¹⁴을 떠올리게 한다고 본다. 이처럼 제사장 나라의 큰 틀을 유지하고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의 상층구조는 개인의 야심과 정욕을 충족하기 위한 삶을 사는 삼손이라는 하층구조와 끊임없이 충돌하게 된다.

셋째, “이야기는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를 변화”¹¹⁵시키는 역할을 감당한다. 이야기는 시간 속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면서 문화를 변화시키는 원동력”¹¹⁶으로 기능한다.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당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의미는 문화, 즉 인간의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의 행보를 통해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 예수님 당시의 남유다는 ‘거룩과 정결’의 패러다임 속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거룩을 독점한

¹¹⁴ 조병호, *통통성경 길라잡이*, 105-6.

¹¹⁵ 강현석,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방향의 탐색,” 191.

¹¹⁶ Ibid.

상황이었다. 레위기에 나타난 거룩의 온전한 뜻을 밝히 드러내지 않고, 율법조항화하여 백성들의 삶을 옥죄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조병호는 레위기 20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룩은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남겨 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¹¹⁷하신 것이라고 갈파한다. 이를 통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마련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말한다. 즉 “거룩은 사랑이고, 그 사랑에는 행함이 따라야 하며,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구체적인 실천”¹¹⁸으로 정리한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의 만남을 가지시는 것을 두고 죄인들과 겸상하는 것을 비판했다. 예수께서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¹¹⁹고 주장하며 이들의 논의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논박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한국교회 초창기 시기에 “백정과 양반이 함께 다니는 교회,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를 구현하는 바탕 이야기가 되어 신분차별이 당연시되던 구한말의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즉 성경 속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대마다 상황마다 변화시키고 충격을 주어 개혁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논의를 정리하자면 이야기는 줄거리라는 플롯(plot)이 인물과 어우러지는 것이며, 이야기의 조직구조인 입장을 통해 상층구조와 하층구조의 끊임없는 병행과

¹¹⁷ 조병호, *통통성경 길라잡이*, 74.

¹¹⁸ Ibid.

¹¹⁹ 마가복음 2:16-17,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층들이 이루어지며, 이야기는 문화를 반영할 뿐 아니라 문화를 변화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

이야기 유형과 기독교교육

이야기의 특성은 기독교 교육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

김영래는 Susan Shaw의 논의를 통해 신앙교육에서 이야기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Shaw에 의하면 “이야기는 전인적 삶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¹²⁰을 감당한다. 전인적 삶이란 지적, 감성적, 의지적 영역을 아우르는 통전적 지식 습득 경험을 지칭한다. Shaw에 따르면 “스토리텔링은 유기적으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내용을 통합시키고 종교교육의 장에서 학습의 통전적 방법을 가져온다. 스토리텔링은 학습자의 전존재를 결부시키는 방법으로 경험적, 직관적 상상적 삶과 합리적, 분석적 삶을 가져온다.”¹²¹고 한다. 이러한 통전적 삶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드로는 밤에 어업이 이루어지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아침 녘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 뿐 아니라 이야기를 읽고 있는 현재의 독자에게도 도전적인 과제를 대하는 베드로에게 자연스레 주목하게 된다. 베드로는 밤에만 해야 하는 어업의 특성과 지난 밤 조업현황이 전무했던 경험, 결정적으로 통상 ‘베드로 물고기’라는 어종은 연안에서만 잡을 수 있다는 현실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¹²⁰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 교육,” 306.

¹²¹ Ibid.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의 말씀의 유효함이 자신의 경험과 객관적 현실을 넘어설 수 없음을 보여주려는 일종의 시위에 다름 아니게 된다.¹²² 결국 그는 만선을 하게 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게 된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으로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게 되며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청자와 독자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경험 그리고 상상이 함께 하여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서 전인적인 앎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둘째, Shaw에 따르면 “이야기는 다양한 교육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¹²³고 한다. 그녀는 “이야기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조력을 격려한다. 즉 이야기는 언어습득에서 비판적 사고 그리고 삶의 유형 선택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적 과제 안에서 역할을 담당한다.”¹²⁴고 설명한다. 앞서 제시한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당시 조업의 양태에 대한 다양한 역사, 정치, 사회적 정보를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배경지식을 형성시켜 준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는 장면은 한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놀랍고도 집요한 사랑에 기인한다. 거라사 광인은 무덤 사이에 머물며 자신의 이름을 “군대” (레기온, legion)이라 소개한다. 레기온은 로마 군단을 지칭하는 헬라어이다. 그가 군단 규모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음은 돼지 떼 이천 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이야기는 당시 데가볼리, 즉

¹²² 케네스 E. 베일리,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223-24.

¹²³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 교육,” 306.

¹²⁴ Ibid., 307.

데카폴리스(decapolis) 지역은 로마 군단의 주둔지임을 이해하고, 당시 데가볼리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10군단의 마스코트가 돼지임을 알고 있는 독자라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개인의 치유라는 측면을 넘어선다. 예수님의 치유이적 이야기가 당시 사회, 정치적 배경하에서 새롭게 이해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게 되는 것이다. 패러다임적 인식 유형과 서사적 인식 유형의 결합을 이런 이야기 속에서 독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Shaw는 “이야기가 자기주도학습을 촉진시킨다”¹²⁵고 주장한다.

김영래는 “자기주도학습은 스스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으로 이 목표의 성취를 위해 매진한다는 것으로 21세기 학습 환경에서 매우 필요한 학습 형태로 간주된다”¹²⁶고 한다. Shaw는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이 이야기를 통해 가능하고 보는 것이다. Shaw는 “상상적이고 모호한 본성을 통해 이야기는 학습자들에게 성장을 위한 자극을 제공하면서 실재를 창조하고, 확증하며, 도전한다. 학습자들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가치 결정과정, 태도, 앎의 유형, 의사 소통기술, 상상력, 비판적 사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통합을 발달시키는데 참여한다.”¹²⁷고 한다. 이야기 자기주도학습의 전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신앙교육이 개인의 반성과 결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기주도학습은 매우 유익한 학습방법이라 할 것이다.

Shaw는 이야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앎에 대한 형태를 감성적 형태와 인지적 형태로 구분한다. 패러다임적 유형과 이야기 유형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호보완적

¹²⁵ Ibid.

¹²⁶ Ibid.

¹²⁷ Ibid.

형태로 기독교교육에서 구성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Shaw에 따르면 이야기는 감성적 앎을 가져온다. 첫째, “이야기들은 종교교육자들에게 감성적 발달과 표현을 촉진시키는 매체를 제공”¹²⁸ 한다고 한다. 성경 속에서 이와 관련된 예를 찾아보자.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 자식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된다. 그러나 여주인 사라의 질책에 의해 광야로 내쫓기게 된다. 광야에서 방황하며 이제 물이 없어 사경을 헤메며 죽어가는 자식을 그늘에 눕혀놓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여종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아울러 비록 주인의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내쫓김을 당해야만 하는 극한적 상황의 한 사람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이 여인과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눈을 밝게 하여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게 하는 복의 약속을 하신다. 꺼져가는 심지도 상한 갈대도 끄거나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 이야기를 접하는 이들은 누구나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이야기는 독자로 하여금 감성적 발달과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표현을 촉발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

둘째, Shaw에 의하면 “신앙공동체의 이야기는 그 구성원들에 의해 종교적 태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¹²⁹고 한다. 성경의 이야기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개인에게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에는 가정과 나라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개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넘어서는 족장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제사장 나라의 거대한 비전을 내포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

¹²⁸ Ibid., 308.

¹²⁹ Ibid., 309.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또한 신앙의 공동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신뢰와 의뢰의 공동체로 엮어 나가는 것이다.

셋째, Shaw는 “이야기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창조하고, 발견하며,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돕는 훌륭한 도구”¹³⁰라고 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의 군상을 통해 참된 가치의 추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한다. 모세는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깊은 열망과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러한 그의 가치는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어 백성을 선동한 고라, 다단, 아비람 가족의 반란에 대한 대처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백성을 명령하여 그들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엮드리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¹³¹라고만 아뢰고 있다. 제사장 나라에 대한 충성이 없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일 것이다. 이는 여호수아에게서도 드러난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의 33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상승장군(常勝將軍)이지만 전쟁 후 땅의 분배에는 자기 지파가 제일 마지막 제비 뽑기 하는 것을 통해 술선수범하는 제사장 나라 신민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도 또한 제사장 나라에 충성하는 백성으로 살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성경 속 이야기는 많은 가치를 내포하며, 이러한 가치는 독자로 하여금 역지사지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시대를 아우르는 가치의 발굴과 발견으로 이끌게 한다.

¹³⁰ Ibid.

¹³¹ 민수기 16:15.

Shaw는 이야기의 인지적 앎을 설명하기 위해 Benjamin S. Bloom의 “인지적 교육목적의 6단계”를 제시한다. 김영래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이야기하기에서 일어나는 지식획득의 단계이다.”¹³² 이야기를 통해서 언어적 능력과 아울러 이야기의 선후관계를 살펴보게 하며, 다양한 정보의 습득을 통해 인지적 향상을 가져오게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은

“2,000여년의 시간과 1500여곳의 공간, 5,000여명의 인간”이 등장한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한 막대한 지식적, 언어적 습득이 가능한 것이다.

둘째 단계는 “이야기하기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단계”¹³³이다. 이야기는 시대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다윗 시대 이스라엘에는 철제검을 소유한 자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밖에 없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밖에 없었던 것이다.¹³⁴ 이를 통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배경에는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블레셋과 청동무기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간의 전투력 차이를 볼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통해 이기게 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셋째 단계는 “이야기하기에서 시도되는 적용의 단계”¹³⁵이다. 이야기의

¹³² Ibid., 310.

¹³³ Ibid., 311.

¹³⁴ 삼상 13:19~22, “그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쟁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쟁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¹³⁵ Ibid., 312.

특징은 “교훈이 명제로 제시되기 보다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줄 수 있는 이러한 역동성을 통해 이야기 주인공을 모방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조병호는 통통성경을 통한 기도를 언급하며 성경 속 인물들의 기도의 방식에 대해 통찰력을 제공한다. 즉 “성경 속 인물들은 ①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 ② 자신의 현실 대면하기, ③ 성경묵상 후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④ 하나님께 응답 받기, 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의 전략을 구사했다”¹³⁶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나는 기록된 성경 속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태를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며, 나실인 서약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응답 받았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대로 시도하는 모방과 도전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알아야 믿게 되는 것이다.

넷째, “이야기하기에서 일어나는 분석의 단계”¹³⁷이다. 분석은 논리타당성을 기본전제로 한다. 독자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 속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서 이야기의 주제와 관계없는 것은 배제해 버린다는 것이다. Shaw는 “스토리텔링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야기의 서사적 요소들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의미를 탐구하도록 도전을 줌으로 분석적 기술을 발달시킨다. 이야기가 단순한 명제의 예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의 분석은 이야기가 제기하는 많은

¹³⁶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 북 3*(서울: 통독원, 2017), 11.

¹³⁷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 교육,” 313.

문제들과 생각들 속의 모호성과 복잡성을 다루는 것을 필요하게 한다.”¹³⁸고 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누가복음 10:25~37))에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율법학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임을 알게 될 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는가?” 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낫설게 바라보게 된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는지를 질문하신다.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푸는 자” 라는 답변만 하게 된다. 이 비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당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대립적 관계와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과 당 시대 지도층과의 대립, 앗수르에 의해 버려진 사마리아인들을 800년만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의도를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단계는 “이야기하기에서 나타나는 종합의 단계”¹³⁹이다. 부분의 종합이 아니라 개별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깊은 의미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남유다의 귀환과 스톱바벨의 인도, 에스더의 왕후 책봉, 에스라의 성전 재건 이후 개혁 이야기,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야기는 지배 국가의 지도계층으로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동족에게 배척 받지 않을 수 있는지 통찰하게 하며, 이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실현 분위기를 읽을 수 있게 된다.¹⁴⁰

여섯째 단계는 “이야기하기에서 나타나는 평가의 단계”이다. 이야기는 선과 악의 가치 평가를 알게 하며,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학습자는 이야기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선과 악의 경계를 알게 되는

¹³⁸ Ibid.

¹³⁹ Ibid., 314.

¹⁴⁰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 북 1* (서울: 통독원, 2017), 70.

것”¹⁴¹이다. 사무엘하 15장에는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예루살렘성을 떠나 피신하는 다윗에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오는 장면이 나온다. 이들은 레위인과 함께 예루살렘성을 빠져 나옴으로써 압살롬이 벌인 쿠데타의 입지를 흔들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의 왕이라면 이들의 행위에 대해 칭찬하고 법궤를 받았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됨을 알고 있었다. 조병호는 이러한 다윗의 행보에 대해서 “급박한 상황에 쫓겨 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변치 않는 믿음을 간직한 다윗”¹⁴²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한다.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선과 악의 구분의 출처가 하나님이어야 함을 배우게 된다.

이야기와 통통성경, 그리고 교리

자아정체성 형성과 이야기

Jerome Bruner는 자기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슨 까닭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¹⁴³라고 하였다. 그는 자아정체성 향상에 기여하는 이야기 만들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거론한다.

¹⁴¹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 교육,” 314.

¹⁴²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9), 208.

¹⁴³ Jerome Bruner, *이야기 만들기*, 강현석, 김경수 역 (서울: 교육과학사, 2010), 99.

첫째, 그에 따르면 “자아구성의 이야기는 어떤 균형을 잡는 것과 같다.”¹⁴⁴ 이는 인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즉 “인간이 자신만의 의지, 어떤 선택의 자유, 일정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개인의 이야기는 개인 스스로 독단적인 세계에 머물지 못한다. Jerome Bruner는 “자아를 타인의 세계에, 친구들이나 가족, 제도, 과거 그리고 준거집단들에 연결시켜야” 제대로 된 자아구성의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자아구성의 이야기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며, 오랜 시간의 축적을 거친 결과물의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성경 속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2000년의 시간과 1500공간과 5000명의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경험의 축적물이다. 이것 자체로 자아는 자신의 자아구성이 자신의 이야기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 인물들의 다양한 군상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라는 큰 이야기 틀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구성해왔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다른 스스로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구성을 삶 속의 실천 속에서, 관여를 통해서 구성하는 계기를 획득하게 된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의 필요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구축 및 재구축할 수 있도록 견인한다. 존재의 구성은 이러한 실천의 다양한 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자아의 존재구성을 위한 관여의 다양한 형태를 발견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성경 속 인물들은 홀로 스스로 자신을 구축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삶의 다양한 존재여건 속에서 자신을 구성하며 그러한 자기구성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의 고백 속에서 더 단단히 여며짐을 볼 수 있다. 이는 성경 속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¹⁴⁴ Ibid., 117.

실증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야기는 자아의 구성에 기여한다. 성경은 자신의 구성의 요건인 자율성과 관여의 수많은 이야기를 제시하며, 독자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의 경험의 지평을 확장하게 되며, 그러한 확장을 통해 자신을 구축 및 재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Jerome Bruner는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구축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간다.” 고 한다.¹⁴⁵ 신앙은 자신의 자아를 창조하는 것은 스스로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됨을 역설하고 있다.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은 다양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며 그러한 자아의 변화와 재구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인간은 이야기라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성해간다. 또한 그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의 존재됨을 드러낸다. 하나님도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됨을 드러내셨고 이러한 성육신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일련의 생애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이해와 관련한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의 삶의 이야기에 개입하시는 절대자의 이야기와 날줄과 씨줄로 엮어져 새로운 경험과 자아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피조물’ 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형성하고 재-형성하는 자기를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로부터 획득하게 된다. Jerome Bruner는 “문화 자체는 하나의 변증법이며, 자아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안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기 위해 말하는 이야기는 그 변증법을

¹⁴⁵ Ibid., 125.

반영한다.”¹⁴⁶ 고 문화와 자아정체성의 상관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문화의 변증법을 접하게 된다. 즉 우리의 삶과 성경의 인물들의 삶,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 속에서 변증법적 변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Jerome Bruner는 “이야기는 인간이 무엇이며 세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보통의 신념을 취급하는, 하나의 심오한 민중의 일상예술”¹⁴⁷ 이라고 한다. 그것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 또는 위험하다고 믿어지는 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이야기 창작은 인간적 조건의 경이로움과 기묘함,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한 우리의 불완전한 이해에 대처하기 위한 매체이다. 그것은 예기치 않은 것을 좀 덜 놀랍고, 덜 이상한 것으로 만든다. 즉, 이야기는 예기치 않은 것을 길들이고, 그것에 일상성의 외피를 제공하는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기치 않은 사실에 대해 적응하도록 한다. 즉 성경의 이야기를 접하는 신앙인은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를 덜 놀랍고, 덜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것은 기적이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무감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접한 신앙인은 이제 새로운 현상, 예기치 못한 상황 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알게 되면서 예기치 못한 삶의 이야기의 전개에도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성경 속 이야기를 통해서 예기치 않은 것을 길들이고, 일상성의 외피를 제공하게 된다. 즉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로 변형되어 자신을 재구축하여,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가게 한다.

¹⁴⁶ Ibid., 127.

¹⁴⁷ Ibid., 130.

이야기를 통한 성경교육

기독교교육은 성경을 신자와 비신자에게 가르치고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삶 속에서 실천을 통해 믿음을 완성해 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적절한 방법에 대한 논의는 기독교의 역사만큼이나 장구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궁구하게 하는 기독교교육의 시도는 현 시대에도 여전히 발전적으로 진행해야 할 역점사항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을 현시대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김영래는 성경의 학습방법을 크게 두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하나는 성경을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의 대상으로 보는 방법이다.¹⁴⁸ 성경을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방법은 근대주의의 영향에서 비롯되어, 분석적·비평적 입장을 통해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성경을 역사적·비평적 시각에서만 분석해서 보는 입장은 성경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여 성경의 내용이 나의 삶과의 연계성을 찾기 위한 연계성을 갖는 ‘삶의 변화’를 견인하는 방법으로 나가기 어려웠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경험의 방법으로 보기 위한 시도가 필요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이야기로 읽어내고, 개인의 경험과 체험의 영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이야기로 성경을 대하는 입장’은 성경 교수법의 새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성경은 본래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야기는 구약성경의 1/3 그리고 신약성경의 1/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부분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James Barr의

¹⁴⁸ 김영래, “성경과 기독교교육,” 312.

지적처럼 “비서사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야기적 요소를 내포한 서사적 성격이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더욱 적절할 수 있다.”¹⁴⁹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김영래는 “이야기는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존재론적 요청이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이야기 이상의 방법은 없다.”¹⁵⁰고 한다. 즉 성경의 이야기는 우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세상의 실재를 포괄하고 종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존재하게 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타락한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보내신(요 3:16) 이야기이다. Newbegin은 설교와 이야기의 중요성을 연계하며, “설교는 소식을 알리는 것이고,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사회에서 설교는 참된 이야기에 확고히 탈변증적으로 기초해야 한다.”고 한다.¹⁵¹

김영래는 이를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는 것은 성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것¹⁵²”이며, “성경의 저자나 또는 독자가 이야기의 제1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심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롬 10:17). 설교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시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믿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이야기를 통해 성경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¹⁴⁹ James Barr, *The Concept of Biblical Theology: An Old Testament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1999), 356, 김영래, “성경과 기독교교육,” 315에서 재인용.

¹⁵⁰ Ibid., 313.

¹⁵¹ Lesslie Newbegin, *A Word in Season* (Grand Rapids: Eerdmans, 1994), 204-5, 김영래, “성경과 기독교교육,” 314에서 재인용.

¹⁵² 김영래, “성경과 기독교교육,” 317.

자신의 이야기에 매몰된 작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이야기로 옮겨가도록 추동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에 의해서 자신의 이야기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다. 자아정체성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이야기로 가르치는 지향점이다.

제 III 장

이야기로 배우는 성경과 교리

이야기로 배우는 『통통성경』

『통(通)성경』 이해

조병호는 “통(通)성경은 성경 66권 전체를 파편화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소리 내서 읽는 것이다.” 라고 통통성경을 정의한다.¹⁵³ 즉 통(通)성경은 성경 전체가 예수 십자가 원 스토리(One Story)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시간 · 공간 · 인간을 통(通)으로

조병호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대략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 명의 인간”¹⁵⁴이 서로 얽혀 ‘예수 십자가’ 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본다. 먼저 성경의 시간은 ‘태초’ 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종말’ 에 이르기 까지를 다룬다. 태초부터 시작하여 이르는 시간의 내용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시간의 종말 속에 위치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 성경에는 안식일, 안식년,

¹⁵³ 조병호, *통통성경 길라잡이*, 11.

¹⁵⁴ Ibid.

희년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절기와 명절의 시간이 들어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기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은 이제 이집트에서 살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속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취하셨다. 고대 근동에 7일을 한 주기로 하여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나라는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시간의 운영을 스스로의 시간 관념에서 근거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이 쉬시니 우리도 쉰다는 시간 관념을 소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안식일은 안식년과 희년으로 표현된다. 또한 성경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1,000년의 시간, 다윗 왕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의 시간이 들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인간의 시간 개념이기도 하지만 성경 속 공간감각이 연계된 것이기도 하다.

성경은 시간만큼 공간을 소중히 여긴다.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¹⁵⁵고 하실 때 집중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공간에 대한 집중은 개인의 역사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열방을 향한 거대한 꿈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보여줄 땅으로 제시하신’ 하나님의 공간을 이해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족장들의 역사에는 공간에 대한 강한 애착과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하나님의 공간에 집중한 사람은 족장에

¹⁵⁵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치지 않는다. 요셉과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 등은 하나님의 공간과 그 약속하심에 집중한 사람들이었다. 반면 하나님의 공간에 집중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편취(騙取)한 불순종의 역사도 성경에는 뚜렷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자신들의 삶을 이룰 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가나안 정탐꾼 10명을 비롯한 출애굽 1세대, 여로보암과 예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도망했던 사람들을 들 수 있다. 성경은 시공간의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군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과 불순종한 자들로 극명히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성경 속에는 시간, 공간, 인간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시간과 공간, 인간은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通)성경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안식일, 안식년, 희년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은 성경 속의 특별한 시간을 나타내는 절기이면서 절기가 시행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는 장소와 맞물려 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는 인간이 거하기 마련이다. 이 세 가지를 통으로 볼 수 있어야 성경의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읽힐 수 있다. 조병호는 “성경에 나타난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5,000여명의 인간을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인간 때로, 파편처럼 별개로 보지 않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지 통통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게 성경을 통통으로 보는 것이 통통성경”¹⁵⁶이라고 정리한다. 개별적인 사항으로 다루지 않고(파편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간, 공간, 인간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시는지 함께 통(通)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¹⁵⁶ 조병호, *통통성경 길라잡이*, 11.

개인 · 가정 · 나라를 통(通)으로

성경에는 개인의 이야기가 개별적인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다. 개인의 이야기는 가정과 나라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된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어 갈대상자에 태워 나일강에 띄어 보내게 된다. 갈대상자에 모세를 실은 사람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아버지 아므람은 갈대상자를 만들고,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상자에 뉘였다. 또한 누이 미리암은 망을 보았다. 애굽 군대의 감찰에 걸리지 않기 위한 대비책이었다. 백일이 안 된 아기를 갈대상자에 실어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이 가정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나 실은 다른 맥락이 자리잡고 있다. 당시 애굽에 430년 동안 거주한 히브리민족은 장정만 60만의 거대 인구를 이루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집트의 바로 정권이 제국주의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자국 내 민심동요를 억제하고 원정간 내부 분열과 폭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이처럼 산아제한을 통해서 히브리민족 탄압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모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가정의 문제이면서 이 가정이 처한 나라의 문제가 같이 접목되어 모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통(通)으로 보지 못하면 모세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야기에도 개인 · 가정 · 나라가 함께 담겨져 있다. 예수의 부모는 나사렛 출신으로 고향 베들레헴은 나사렛과 떨어진 지역이다. 만삭의 아내를 나귀에 태워 베들레헴으로 향한 이유는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를 통한 세수확대 정책에 기인한다. 로마의 평화(Pax Romana)는 서슬 퍼런 폭압 속에서 피식민지 백성 수탈이라는 토대 위에서 건설된 허울 좋은 이름에 불과하다. 만삭의

아녀자를 나귀에 태워 위험천만한 여행의 도정에 오르게 강제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폭압성과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조병호는 예수님의 탄생이야기에는 “로마 제국과 유대 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와 함께한다”¹⁵⁷고 한다. 즉 “성경 속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인·가정·나라 이야기로 함께 통통으로 보아야”¹⁵⁸하며 이것이 통통성경이다.

제사장 나라·5대제국·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성경의 큰 ‘틀’ (frame)은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조병호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나라인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5대 제국’인 ‘앗수르·바벨론·페르시아·헬라·로마제국’이 들어가 있는 것”¹⁵⁹으로 설명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세우신 제사장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가득하다”¹⁶⁰는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이집트의 폭압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나라이다. 제사장 나라의 법은 십계명의 서두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 20:2)에서 비롯된다. 즉 제사장 나라는 제국주의의 억압의 폐해를 온몸으로 겪은 이스라엘

¹⁵⁷ Ibid., 12.

¹⁵⁸ Ibid.

¹⁵⁹ 조병호, *선지자와 5대 제국* (서울: 통독원, 2018), 6.

¹⁶⁰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8), 37.

백성들로 하여금 제국주의로 나가지 않고 민족 사이에 평화를 일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조병호는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세우고자 하신 제사장 나라는 온 세상 사람들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 프로젝트였다”¹⁶¹ 고 한다.

제사장 나라는 민족 사이의 힘과 무력의 위계 속에 위치한 나라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당대에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제사장 나라의 실현 장소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 잘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제사장 나라를 성경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¹⁶²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히브리 장자들의 생명을 지켜 주어서 그 기반 위에 제사장 개념이 출발하기 때문”¹⁶³이다. 제사장 나라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와 백성의 장로 70명의 지도 아래 일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받아 각기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린 양의 희생제물을 통한 히브리 가정의 장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각 가정의 장자들의 인원을 점검한 결과 유월절 밤에 생명을 건진 장자들은 22,273명이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를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라 하여,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한 나라’라고

¹⁶¹ Ibid., 34.

¹⁶² Ibid., 47.

¹⁶³ Ibid.

하는 것이다.

둘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¹⁶⁴이다. 히브리 백성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게 되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술적 효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한 것이다. 히브리 백성이 애굽의 백성들보다 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도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수 밖에 없었으나, 다만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린 어린양의 희생과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히브리인들의 순종을 보시고 그들과 그들의 장자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것이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이고 은혜였다. 이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543법’으로 정해주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 “다섯 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이며, 네 가지 형식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이며, 세 가지 방법은 장소, 제사장, 예물”¹⁶⁵이다.

셋째, “제사장 나라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¹⁶⁶이다.

조병호는 하나님의 ‘거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추수 때에 밭 모퉁이 일부를 남겨두고, 포도를 수확하면서 포도를 나무에 조금 남겨두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일 뿐, 결코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과 나눔이 있는 삶을 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¹⁶⁷

¹⁶⁴ Ibid.

¹⁶⁵ 조병호, *성경, 통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1: 모세오경1* (서울: 통독원, 2019), 356.

¹⁶⁶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8), 47.

¹⁶⁷ Ibid., 74.

조병호는 “제사장 나라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서로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이고, 그렇게 품위를 지키며 사는 ‘시민’ (citizen)들이 사는 나라”¹⁶⁸로 정리한다.

넷째, “제사장 나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¹⁶⁹이다. 율법을 지키면, 5명이 100명과 맞서 싸워 이기고, 100명이 1만명과 맞서 싸워도 이기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는 스스로를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나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영토의 확장을 위한 물질주의로 치닫는 제국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 나라의 국방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보장을 통해 민족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다윗은 130만명의 예비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국가 파워를 제국건설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실천에 사용했다. 그의 국가 통치의 기반은 모세 율법이었고 폭넓은 인재 등용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아들 솔로몬에게도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이어가기를 당부하였다.¹⁷⁰ 솔로몬은 통치 전반기에는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가 존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빛나는 시기였다. 그러나 통치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가 낮아지고 정략결혼을 통해 경제력과 국방력으로 주위 나라를 좌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조병호는 솔로몬을 통해 “이방 공주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왕실 재정 폐해는 백성들의 불만을 고조시켰으며, 유

¹⁶⁸ Ibid.

¹⁶⁹ Ibid., 48.

¹⁷⁰ 열왕기상 2:1-3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 지파 중심의 권력 사유화로 인해 남북이 분단되는 비극을 초래하게”¹⁷¹ 만든 장본인으로 규정한다.

다섯째,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¹⁷²이다. 제사장은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을 거룩한 곳이라 하셨다. 따라서 법궤를 모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제사장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준행하지 않았고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할 때가 많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선지자(先知者)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대언케 하셨다. 조병호는 선지자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제사장 나라 ·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망각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고, 이 일을 감당한 자들”¹⁷³로 정리한다. 즉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한 민족 두 국가로 나뉘는 때부터 이스라엘 사회에 등장하여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쓴 소리’를 전한 사람들”¹⁷⁴이다. “주전 8세기에서부터 주전 6세기에 이르는 약 200여 년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 나라의

¹⁷¹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 북 2*(서울: 통독원, 2019), 154.

¹⁷²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48.

¹⁷³ 조병호, *선지자와 5대 제국*, 9.

¹⁷⁴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169.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율법)을 지키라는 것”¹⁷⁵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보내셨고, 앗수르 제국에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셨고, 남유다에는 이사야, 미가로 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본연의 자리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셨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방민족의 우상을 숭배하며 각자 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5대 제국을 제사장 나라의 경영 도구로 활용하셨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앗수르 제국을 상대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예언자(預言者)들이었다. 이들과 제국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지 못하면 제국의 경영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성경 속 명절 중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수전절(修展節)은 헬라 제국과 마카비 혁명의 상관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하며, 로마 제국의 사형도구인 십자가를 예수님과 연계할 때에 제국과 성경의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처럼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5대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시면 선지자들을 파송하시고, 예수님께서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완성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신 것이다.

구약성경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다. 이 두 나라를 서로 상반되거나 상충되는 다른 나라가

¹⁷⁵ Ibid., 171.

아니다. 조병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다시금 새롭게 세우신 나라가 제사장 나라를 함축하고 담고 있는 나라”¹⁷⁶라고 정의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했음을 알 수 있다. 조병호는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제사장 나라의 중심인 ‘성전의 제사장들’ 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예수님의 제자들’ 이 함께 공존했던 시대”¹⁷⁷였다고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사장 나라를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끄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¹⁷⁸이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히브리 장자들의 목숨을 죽음의 재앙에서 건졌듯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어린양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즉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애굽에 거류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쓰임 받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제사를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죄를 한

¹⁷⁶ Ibid., 212.

¹⁷⁷ Ibid., 213.

¹⁷⁸ Ibid., 220.

꺼번에 다 담당하신 인류구원의 대속사역”¹⁷⁹이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¹⁸⁰이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사역은 다섯 가지의 일에 크게 집중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굶주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데 열정적으로 일하셨다. 결국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십자가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의 말씀은 십자가의 고통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용서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몸부림이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바쁜 일과 중에도 늘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셨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사역 중에도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한 겹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진정이 드러나는 대목이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¹⁸¹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첫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셨다. 본인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지는 길을 열어 주셨다.

¹⁷⁹ Ibid., 226.

¹⁸⁰ Ibid., 220.

¹⁸¹ Ibid., 221.

타락한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 지내는 형식주의에 치우치고 말았다. 당시의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야 했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오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임을 몸소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기 ”¹⁸² 때문이다.

넷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¹⁸³이다. 로마 제국의 사형도구인 십자가는 공포를 통해 대중을 압박하는 전형적인 공포정치와 제국주의의 산물이다. 그들은 아피아 가도 양편으로 끝까지 저항한 노예 6,000명을 잔인한 처형 도구인 십자가를 이용하여 못박아 죽였다. 이러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주님께서 이 “로마 제국의 사형 도구를 구원과 은총의 상징으로 만드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 상징”¹⁸⁴으로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며, 제사장 나라의 종식을 가져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종결선언이며, 승리자의 선언이었다. 제사장 나라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는 말씀으로

¹⁸² Ibid., 245.

¹⁸³ Ibid., 221.

¹⁸⁴ Ibid., 247.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시면서 종결되고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그릇 속에 담기게 된 것이다. 조병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을 바꾸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진 후’ 부터”¹⁸⁵이다. 이후로 제사장을 통해서 3가지 방법, 5대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실현된 나라”¹⁸⁶이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¹⁸⁷이다. 제사장 나라가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였다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를 이끄는 나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성전이 교회로, 장자가 제자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성전이 교회로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고 말씀하시는 순간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사장 나라는 종료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인 시작을 하게 된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수렴되듯, 성전은 교회 안으로 수렴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이를 지킨 제사장의 임무는 종료되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서

¹⁸⁵ Ibid., 254.

¹⁸⁶ Ibid.

¹⁸⁷ Ibid., 221.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¹⁸⁸이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단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일컫는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위해 사용하신 5대 제국인 앗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그 사이에 들어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예언자의 활동 속에서 5대 제국을 통해 제사장 나라 실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한 완성으로 이해하고 보는 것이 통통성경이다.

이야기와 통(通)성경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공부할 것인가? 이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즉 성경 학습방법론과 연계되어 있다. 성경의 학습방법을 인식론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성경을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성경을 경험의 대상으로 보는 방법이다.¹⁸⁹ 근대주의 이후로 기독교는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이해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역사-비평적 성서해석방법으로 성경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의 폭이 넓혀질수록 경험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영역은 점점 그 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경을 이야기로 재발견하려는 노력은 성경이 이해가 아니라 경험으로 만나고 전하는 노력의 과정이다. 통통성경은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이야기로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통통성경은 성경을 파편화하지

¹⁸⁸ Ibid., 259.

¹⁸⁹ 김영래, “성경과 기독교교육-교수학습에서의 “이야기”의 재발견,” 312.

않고 예수 십자가 원 스토리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로서의 통통성경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이야기와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이야기와 성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책이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다.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아무리 많은 공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밝혀주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홀로 알려질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려지기 때문에 이야기와 성경의 상관관계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야기는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존재론적 요청이다.¹⁹⁰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이야기 이상의 방법은 찾기 어렵다. 성경은 세상을 품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실재를 포괄하고 종합한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다. Charles V. Gerkin은 “이야기 안에 실천신학적 사고가 기초한다는 생각은, 물론 성경은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등지를 틀고 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를 제공한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세상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뛰어난 이야기이다.” 라고 했다.¹⁹¹

성경을 이야기로 여길 때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성경이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비평학적 성경해석법은 성경을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원 스토리가 아닌 다양한 형식의 문서가 모여진

¹⁹⁰ Ibid., 313.

¹⁹¹ Ibid., 314.

편집으로 여겨졌다. 물론 성경 중에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장르가 존재한다. Newbegin은 “성경이 본질적으로 이야기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기도, 시, 법, 윤리적 교훈 등을 포함하고 있다.¹⁹²” 고 했다. 성경이 모두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비사서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사서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내적으로는 이야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려는 시도는 성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경의 저자나 독자가 이야기의 원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맥락과 입장을 이해하고 살피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성경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바라볼 때에만 비로소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을 이야기로 배우는 통(通)성경

조병호는 “통(通)성경은 성경을 시간·공간·인간을 통(通)으로,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7개 트랙(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4복음서, 사도행전 40년, 공동서신 9권)과 7개 스텝(그 순간, 영성, 나라, 마음, 줄기, 기도, 전도)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¹⁹³ 그는 성경을 이야기로 배우기 위해 통(通)성경을 다음의 구조로

¹⁹² Ibid., 315.

¹⁹³ 조병호, *통(通)성경 길라잡이*, 15.

제안하고 있다.¹⁹⁴

Pre-Step1 - 그 순간 (‘다 이루었다’ &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야기)

Pre-Step2 - 성경과 영성 (성경을 통통한 영성 이야기)

Step 1 -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7개 질문 중심의 나라 이야기)

Step 2 - 하나님 마음 (66권 경전을 통통한 하나님의 심정 이야기)

Step 3 - 성경줄기 (40개의 성경 줄기)

Step 4 - 성경을 통통한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이야기)

Step 5 -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전도 이야기)

Step 1 -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7개 질문 중심의 나라 이야기)

조병호는 먼저 “통통성경으로 성경을 보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분위기가 나타난다”¹⁹⁵고 하며, 7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나라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즉 “모세 5경은 제사장 나라 set-up 분위기, 왕정 500년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가 대립과 협력하는 분위기, 페르시아 7권은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 실현 분위기, 중간사 400년은 구약성경의 세계화와 유대 분파의 형성 분위기, 4복음서는 하나님 나라 set-up 분위기, 사도행전 30년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대제사장 세력들과 사도들의 대립 분위기, 공동서신 9권은 로마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실현 분위기”¹⁹⁶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통성경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7개 스텝(그 순간, 영성, 나라, 마음, 줄기, 기도, 전도)을 이야기하는 것이 통통성경의 기본골격이 된다.

각 스텝마다 성도들에게 이야기로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연관된 시간, 공간, 인간의 이야기를 날줄과 씨줄로 잘 엮고 있는 것이 통통성경의 특징이다.

¹⁹⁴ Ibid., 14.

¹⁹⁵ Ibid., 13.

¹⁹⁶ Ibid.

본고에서는 “Pre-Step1,2에 해당하는 ” 그 순간, 성경과 영성 “의 부분이 통통성경의 전체 열개와 성경과 영성에 대한 조병호의 이해를 잘 드러내는 부분이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 보고 다른 스텝은 핵심만 요약하도록 하겠다.

Pre-Step1 - 그 순간 (‘다 이루었다’ &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요 19:30)” 고 말씀하셨을 때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휘장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이며,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이 이제 더 이상 사면권을 얻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성소 앞에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을 택하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방법과 절차들을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조병호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두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양자와 양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¹⁹⁷고 정리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총의 관점에서 보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 드려야 했던 열방의 모든 민족의 구분이 사라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조병호는 ‘그 순간’ 이야말로 성경 해석의 핵심적인 열쇠이고 키워드로 여긴다. 그는 ‘그 순간’

¹⁹⁷ 조병호, *그 순간* (서울: 통독원, 2016), 8.

성전 휘장의 찢어짐은 “움직이는 성막 500년과 움직이지 않는 성전 1,000년의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이라는 큰 그릇에 담긴 것”¹⁹⁸으로 여긴다.

조병호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 역사적 사건은 움직이는 성막 500년과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1000년을 이해해야만 “그 순간”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움직이는 성전 500년을 살펴보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다. 아브라함을 통한 열방의 꿈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졌고, 요셉의 때에 이르러 아버지 야곱의 430년간의 민족형성의 꿈을 통해 마침내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루어 모세의 영도 아래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다.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의 수립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통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원하셨고,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복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원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것”¹⁹⁹이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만드신 이유는 지성소와 성소의 분리를 위함이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함이였다. 그리하여 “<움직이는 성막 500년>동안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¹⁹⁸ Ibid.

¹⁹⁹ Ibid., 22.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²⁰⁰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지정된 예물을 준비하여, 아론의 자손이 맡게 되는 제사장의 도움 아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 드려야 함을 말씀하셨다. 구약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러한 제사장 나라의 큰 우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5살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사장 나라는 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이며(출12:21-22), ②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이며(레6:7), ③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이며(레 19:9-10), ④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이며(레 19:33-34), ⑤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출 25:22)라는 것”²⁰¹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움직이지 않는 성전 1500년은 모세시대에 광야에서 만들어진 회막을 하나님의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다윗의 “도발적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 움직이지 않는 성전은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²⁰²를 통해 “모든 열방을 향한 성전”의 기능을 드러내게 된다. 솔로몬의 성전은 휘장을 사이에 두고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성전의 설계도에는 이방인의 뜰이 추가되어 있다.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곳이 만들어진 것이다. 조병호는 “예루살렘 성전의 하이라이트는 놀랍게도 다름 아닌 모든 민족을 위한

²⁰⁰ Ibid., 28.

²⁰¹ Ibid., 33.

²⁰² 왕상 8:41-43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곳인 ‘이방인의 딸’ ”²⁰³이라고 주장한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인 성전의 기능은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인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사면권을 받아 오시면서 종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사면 받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전의 지역성을 탈피하고 모든 열방이 죄사함을 받는 획기적 전환점이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이며(요 1:29), ②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이며(마 6:9), ③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이며(마 16:26), ④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이며(요 19:30), ⑤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행 8:14-15)”²⁰⁴이다. 조병호는 “오늘날 교회는 성전과 같은 의미의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이며, 바로 그리스도인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²⁰⁵이라고 한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 라고 말한 것이다.

Pre-Step2 - 성경과 영성 (성경을 통통한 영성 이야기)

조병호는 성경에 대해 5가지로 그 성격을 규명한다. 첫째, “성경은 ‘얇은 책’ ”²⁰⁶이다. 성경은 부분적, 편향적으로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²⁰³ Ibid., 43-44.

²⁰⁴ Ibid., 66.

²⁰⁵ Ibid., 71.

²⁰⁶ 조병호, *성경과 영성* (서울: 통독원, 2016), 12.

담긴 얇은 책으로 읽어야 한다. 성경은 “부분이 아닌 전체”²⁰⁷로 읽어야 한다. 둘째,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 ”²⁰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기록한 책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음성으로 듣고, 문자로 읽어야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다. 즉 성경은 “문자와 음성을 통(通)으로 읽어야 한다”²⁰⁹고 정리한다. 셋째, “성경은 ‘1년 10번 들을 책’ ”²¹⁰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다. 성경은 반복해서 들을 때에 서양의 분석과 동양의 직관이 만나게 되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 ”²¹¹이다. 성경은 시대를 향하시고 시대를 보듬어 안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조병호는 “통시적, 공시적 성경읽기를 통(通)으로, 서양의 분석적, 동양의 직관적 해석을 통(通)으로 살피서 성경을 정경적이며 동시에 심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²¹²고 주장한다. 다섯째, “성경은 ‘개인·가정·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 ”²¹³이다. 성경에는 개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가정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이를 통(通)으로 읽어야 한다.

조병호는 성경을 통해 형성되는 영성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기독교 영성은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²⁰⁷ Ibid., 12.

²⁰⁸ Ibid., 13.

²⁰⁹ Ibid., 14.

²¹⁰ Ibid., 15.

²¹¹ Ibid., 16.

²¹² Ibid.

²¹³ Ibid., 17.

수 있다.”²¹⁴는 것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은 미담과 예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신 유일한 책인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 둘째,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일은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것”²¹⁵이다. 기록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만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조형해낸 예수는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시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케 하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다. 셋째,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삶을 예배로 사는 것”²¹⁶이 기독교 영성이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굴종이 아닌 자발적인 따름의 형태를 지녔다.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다. 예배는 기쁨 속에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창조세계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넷째, 기독교 영성은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체험”²¹⁷하는 것이다. 조병호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기적을 인간이 체험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시작해

²¹⁴ Ibid., 20.

²¹⁵ Ibid., 33.

²¹⁶ Ibid., 44.

²¹⁷ Ibid., 58.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고 말한다.²¹⁸ 아브라함은 롯을 구한 앗수르 4개 도시국가와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는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누군가의 피눈물과 목숨 값일 전쟁을 통한 부의 축적을 거부하였다. 조병호는 “아브라함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²¹⁹고 결심하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큰 은혜는 건강하게 일해서 얻은 소득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구분해서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기적의 치유를 값있게 사용하는 것이어야”²²⁰한다고 한다. 다섯째, 성경적 영성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²²¹는 것이다. 조병호는 “영광은 인간들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나타내실 수 있는 것”²²²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²²³임을 강조한다.

Step 2 - 하나님 마음 (66권 경전을 통통한 하나님의 심정 이야기)

조병호는 “꿈도, 눈물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 됨도 다 마음에서

²¹⁸ Ibid., 59.

²¹⁹ Ibid., 68.

²²⁰ Ibid., 79.

²²¹ Ibid., 80.

²²² Ibid.

²²³ Ibid., 82.

시작”²²⁴ 된다고 본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곳이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고 늘 말씀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1:31)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한탄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 노아의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는 상황에까지 치닫게 된다. 그러나 조병호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것”²²⁵이며, 그러한 아픈 마음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린 것이 “노아의 홍수”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지 알 수”²²⁶ 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20개로 정리한 것이 Step 2이다.

Step 3 - 성경줄기 (40개의 성경 줄기)

조병호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줄기의 가지들’임을 예로 들며, “성경의 이야기 줄기를 통해 성경을 알아가야 한다”²²⁷고 주장한다. 성경에는 줄기를 놓친 사람들과 줄기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다시 입애굽을 결정한 가나안 정탐꾼 10명과 입가나안을 주장한 여호수아와 갈렙, 단과 벤엘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여로보암과 예루살렘 성전 봉헌 계획으로 하나님의

²²⁴ 조병호, *마음 훈련* (서울: 통독원, 2016), 7.

²²⁵ Ibid., 10.

²²⁶ Ibid.

²²⁷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 북 2*, 11.

마음에 합당한 다윗, 바벨론 포로 2년을 주장한 하나냐와 바벨론 포로 70년을 주장한 예레미야,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결정한 사두개파들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한 사도들²²⁸이 그 예이다. 특히 구약 39권의 줄기를 놓친 사두개파는 “모세 5경만 믿고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권리만 누리고 성전제사를 주도했던 그들이었지만, 모세 5경 이후 선지자를 믿지 않는 이율배반적 논리 속에 성경 줄기의 중심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²²⁹하는 우를 범하고 만다. 성경의 줄기에 대한 이해는 그만큼 중요하며 자칫 잘못하면 오해와 잘못된 결정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조병호는 성경에는 “용서와 긍휼의 줄기”²³⁰가 있으며 이러한 줄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²³¹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Step 4 - 성경을 통통한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이야기)

조병호는 기독교인의 기도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백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길이며, 인간이 하나님과 통통하는 것이 기도”²³² 라고 정의한다. 또한 묵상은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다시 꺼내 곱씹으며 깊은 영적인 생활로 이끄는 것”²³³이라고 정의한다. 이를 위해 조병호는 묵상의

²²⁸ Ibid., 14.

²²⁹ Ibid., 16.

²³⁰ 용서와 긍휼의 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아담과 하와를 향한 긍휼 ②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 ③ 아브라함의 번제 ④ 유월절 어린 양 ⑤ 레위기의 5가지 제사 ⑥ 다윗의 우슬초 회개 ⑦ 호세아-하나님의 긍휼 ⑧ 이사야-그리스도의 대속 ⑨ 예레미야-새 언약 예고 ⑩ 세례 요한-하나님의 어린 양 ⑪ 예수님-“다 이루었다” ⑫ 바울의 선언-오직 십자가.

²³¹ Ibid., 18.

²³²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 북 3* (서울 : 통독원, 2019), 9.

²³³ 조병호, *성경을 통한 기도* (서울: 통독원, 2016), 19.

바른 방법은 “먼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알고”²³⁴ 나서야 매일의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조병호는 이를 위해 12명의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를 거론하며, 이들의 기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먼저, ‘기록된 성경을 공부한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의 현실을 대면한다. 인생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민한다. 셋째, 성경을 묵상한 후 현실에 대해서 간구한다. 넷째, 응답을 받는다. 다섯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²³⁵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인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묵상할 수 있다”²³⁶고 본다.

Step 5 -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전도 이야기)

성경을 통한 전도는 유대인의 역사와 그들의 성과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유대인들의 패밀리 스쿨이 가진 장점을 소개한다. 또한 역사 속 다양한 인물들의 통찰력과 진리를 모세의 초월적 지도력과 다윗이 보여준 권력의 공공성, 5대 제국을 통한 경영 키워드를 소개한다. 또한 모세와 함께 시작한 패밀리 스쿨을 통해 자녀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음을 전하는 것이 새로운 전도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²³⁴ Ibid., 22.

²³⁵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 북 3*, 11.

²³⁶ 조병호, *성경을 통한 기도*, 180.

이야기로 배우는 교리: 『천로역정』

『천로역정』 개관

『천로역정』의 배경이 되는 청교도 운동은 1559-1700년 영국에서 일어난 교회개혁운동이었다. 당시 교회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이었으며, 예배는 우상적이고 미신적으로 타락하였다. 교회의 이러한 정황 속에서 교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즉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청교도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²³⁷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1628-1688)은 엘스토우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자였다. 그는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는 아니었다. 16세에 의회 군대에 입대하여 3년동안 복무하였고 군복무를 마친 후 1649년에 결혼하였다. 번연은 아내 메리가 가져온 아서 텐트의 『평범한 사람이 하늘에 이르는 길』과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훈련』을 읽고 큰 영향을 받았다. 이후 번연은 존 기포드 목사를 만나 1653년 기포드가 목회하던 세인트존스 교회에 등록하게 된다. 1655년 번연은 집사가 되어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1660년 찰스 2세의 왕정 복구와 함께, 당시 영국의 국교였던 영국 성공회를 제외한 기독교인들은 배척 받게 되었고 설교가 금지되게 되었다. 번연은 비국교도로서 설교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12년간 감옥에 투옥되게 된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과 존 폭스의 『순교자열전』을 읽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작품들을 쓰게 되었다. 1666년에는 자신의 저서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s)²³⁸를 출간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²³⁷ 김홍만, *해설 천로역정*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7.

²³⁸ 존 번연,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고성대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18).

후 1672년 베드포드의 비국교도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다. 그러나 1676년 다시 투옥되었는데, 이때 『천로역정』의 1부를 썼다.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된 지 일 년 만에 존 오웬의 도움으로 풀려나 1682년 그의 두 번째 저작인 『거룩한 전쟁』(The Holy War)을 내놓았다. 존 번연은 1688년 추운 날씨에 여행하다가 열병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²³⁹ 『천로역정』은 1678년 초판이 인쇄된 후 인쇄된 첫 해에 3판이 나왔고, 존 번연이 사망하기까지 13판이 출판되었다. 또한 초판 인쇄 후 10년의 기간 동안 최소 10만권이 팔린 17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 ‘17세기 산문체의 소설로서는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된 것이다.²⁴⁰ 『천로역정』은 조지 헛필드와 웨슬리의 주도 하에 일어난 영적 대각성의 시기 18세기에도 영국의 하층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천로역정』은 기독교 선교의 역사에서 선교지 언어로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번역된 기독교 문학작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884년 복음이 조선에 들어올 때에, 『천로역정』은 ‘턴로력덩’이라는 제목으로 1894년에 출판되었다. 게일 선교사가 번역하여 김준건 화가가 그린 삽화는 한국적인 배경과 복장을 배경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천로역정』은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 『천로역정』은 길선주 목사의 회심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성봉 목사는 그의 부흥회를 『천로역정』을 주제로 하여 진행한 바 있다. 『천로역정』은 전 세계 200여개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김홍만은 『천로역정』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²⁴¹

²³⁹ 김홍만, *해설 천로역정*, 8-9.

²⁴⁰ 김홍만, *52주 스터디 천로역정*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4.

²⁴¹ Ibid., 5.

첫째, 『천로역정』은 성경과 복음의 교리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둘째, 『천로역정』은 전도를 목적으로 구원과 은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셋째, 『천로역정』은 등장인물의 영적 특징들을 자신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다. 넷째, 『천로역정』은 개인의 구원과 영적 체험을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천로역정』은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를 통해 제시한 탁월한 교리서이며,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성경강해서이다. 이러한 『천로역정』의 특징은 이단과 사이비가 각기 성경적이라 하여 자신들의 논지를 제시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때에 성경적인 교리를 성도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천로역정』의 특징

베리 호너는 성경적, 교리적 『천로역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둘로 정리한다.²⁴²

첫째, 『천로역정』은 성경에서 진리의 핵심을 뽑아내고 있다.

『천로역정』은 성경의 이야기를 우화의 형식을 빌어 성도들이 더 깊게 성경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성경에 이야기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스펠전은 이러한 ‘성경적 『천로역정』’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번연의 『천로역정』을 어디든지 읽어보라. 그러면 당신은 마치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번연은 우리의 흠정역 성경을 연구했다. 그는

²⁴² 베리 호너, *베리호너 목사의 『천로역정』 명강의*, 신호섭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26.

자신의 전 인격이 완전히 잠기기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 그의 작품들이 매력적인 시심으로 그것도 대단히 달콤한 산문시로 가득 차 있지만 『천로역정』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왜 번연이 움직이는 성경과 같은 사람’인지 느끼고 인정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당신은 그의 피가 성경의 피이며, 성경의 정수가 그에게서 흘러나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번연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서는 결코 글을 쓸 수 없었던 것이다.²⁴³

존 번연이 『천로역정』 내에서 무분별하게 성경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는 매우 조직적으로 성경을 사용했다. 『천로역정』은 성경의 복음을 여러 국면 속에서 종합적으로 잘 강조하고 제시하고 있다. 베리 호너는 “『천로역정』에는 하나님, 사람, 죄, 예수 그리스도, 은혜, 구속, 성화, 마지막 심판, 영화 교리에 대한 묘사가 여러 과정 속에서 잘 정리되어 제시되면서 성경적 복음의 교리적 체계와의 연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²⁴⁴고 평가한다. 그런 의미에서 『천로역정』의 철저한 복음 중심성은 교리가 희미해져 가는 오늘날에 중요한 책이 되며, 교리가 전할 수 있는 경직적인 면모를 이야기를 통해 전하면서 그 역동성을 살리고 있는 것이다.

존 번연은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의 철학과 논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그리고 모든 이교적인 철학자를 나열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조금도 올바르게 설교하지 않는 자들아!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그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빠진 자신들을 발견하고 회중을 기만한 자신들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수천 수만의 영혼의 정죄를 그대들에게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바로 그대들의 손에서 찾으실

²⁴³ Ibid., 26.

²⁴⁴ Ibid., 28.

것이다(겔33:6).²⁴⁵

둘째, 『천로역정』은 교리적으로 매력적인 책이다.

『천로역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교리적 주제를 반복하며 성경적 정수를 작품 속에 엮어 나간다. “첫째, 순례자의 칭의와 성화의 기초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대속적 의의 복음. 둘째, 변화를 주는 회심으로 인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결과적으로 영화를 동반하는 천성에 들어가기까지의 점진적 성화. 셋째, 순례자를 위한 지상에서의 유일한 피난처요 공급처인 신실한 목회자의 목양을 받고 있는 교회의 교제. 넷째, 천성에 들어갔을 때, 악과 이 세상의 시련으로부터의 궁극적인 행방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누릴 미래의 영광에 대한 기대.”²⁴⁶

『천로역정』은 순례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대속하시는 은혜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회심에서부터 영화의 결론에 이르는 천성에 입성하기까지 점차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천성에 들어가게 될 때에, 악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시련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신자의 미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며, 순례자의 순례를 위해서 지상에서 순례자를 돕는 유일한 공급원인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를 감동적인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²⁴⁵ Ibid., 105.

²⁴⁶ Ibid., 25.

『천로역정』과 이야기

『천로역정』은 우화의 형식을 빌어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전한 것이다. ‘우화’의 사전적 정의는 “의미나 취지가 상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야기”²⁴⁷이다. 『천로역정』 내에는 “대화와 시상과 운문, 성격 묘사, 상징, 익살스러운 해학, 판타지, 드라마, 모험담, 음모와 논쟁, 영적 로맨스 그리고 신비 등이 포함”²⁴⁸되어 있다. 우화를 통해 기독교 진리를 전하고자 기획했던 존 번연의 의도는 그가 채택한 문학장르가 우화라는 점을 들어 오랫동안 비평가들의 호된 비판에 직면해 왔었다. 번연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일일이 논구 할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세 가지 점을 들어서 자신의 비유체에 대한 변호를 시도하고 있다.

첫째, 나는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이 거부당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즉 나는 어휘나 사건, 또는 독자들을 함부로 취급한 것이 아니며 등장인물이나 비유법을 사용하는 데에 경솔하지 않았다. 둘째, 훌륭한 작가들도 즐겨 대화법을 사용한 바 있다. 셋째, 성경에도 이러한 비유의 형식을 사용하여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연상하도록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²⁴⁹

또한 존 번연은 『천로역정』이 “매우 무뚝뚝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감동시킬 수 있는 대화와 비유의 수법으로 적혀있다”는 것을 밝히며 『천로역정』이 이야기체로 쓰여졌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비유를 통해서 성경적 진리의 실재를 선포하고자 했다. 오늘과 같이 수많은 미디어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범람하고 있는 메시지의 혼란 속에서 존

²⁴⁷ Ibid., 46.

²⁴⁸ Ibid.

²⁴⁹ 존 번연, *천로역정*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9), 36.

번연이 『천로역정』이라는 작품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했던 원
 취지는 현재 기독교 문학계에서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내용이다. 존 번연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성경적 실재에 직면하기 원했다. 이를 위해 번연은
 우화를 통해서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했다. 베리 호너는 “우화적인 요소를
 통해 진리와 참된 삶, 죄와 하나님, 죄책과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감당한다.”²⁵⁰고 정리한다.

『천로역정』이 주는 매력과 힘은 ‘판타지’라고 하는 미디어의 형식 속에
 기독교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우화’로 이해되던 『천로역정』의
 문학형식은 ‘판타지 소설’로 분류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J.R. 톨킨의
 <반지의 제왕>, C. 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등의 판타지소설이 영화로 제작되면서 판타지 열풍을 불러왔다. 판타지는
 독자들에게 현실에서 벗어나서 신세계로 안내함으로써 지금의 현실을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게 하는 전향적 사고의 힘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해리 포터 시리즈의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과는 거리가 멀며, 기독교인이기도 했던 톨킨과 루이스의
 판타지 작품들은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단편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존 번연의 『천로역정』은 이와 달리 공상과 환상의 세계에 열광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깨우는 역할을 감당한다. 번연의 유일한 목적은 “핵심적인 실재 속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는 것”²⁵¹이다. 또한 환상의 날개를 타고
 실재에 이르도록 청중을 초청한다. 그의 우화에는 환상이 판타지가 아니라 죄와

²⁵⁰ 호너, 베리호너 목사의 『천로역정』 명강의, 50.

²⁵¹ Ibid., 52.

죄책, 그리고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실체를 명백하게 제시한다. 환상소설은 현실을 넘어서는 초자연적 세계로 청중의 관심을 돌린다. 복잡한 현실계를 떠나 상상계로의 잠시 동안의 여행을 통해 현실이탈의 간접적 경험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러나 『천로역정』은 비유적 형식에 성경에서 밝히 드러내 보이는 변치 않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천로역정』은 형식 면에서는 판타지 문학의 원조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판타지 소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로역정』은 성경적 진리, 특히 구원론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건전한 구원론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들이 『천로역정』의 인물과 사건의 전개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천로역정』은 ‘회심, 칭의, 성화, 영화’의 진리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야기로 배우는 교리

『천로역정』은 교리를 이야기 형식으로 전하는 데 탁월한 면을 지니고 있다. 천로역정의 순례여행은 기독교인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는 성화의 과정임을 잘 드러낸다. 『천로역정』은 기독교인의 회심에 이르는 과정 뿐만 아니라 회심 이후의 성화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성도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유혹을 이해하고 대처하게 한다.

교리를 이야기로 배운다고 한다면, 『천로역정』에서 전개하는 이야기의 기본 맥락인 교리적인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다. 즉 구원과 관련된 교리가 어떻게 『천로역정』을 통해서 이야기로 표현되고 있는지 연관성을 살펴볼 때 이야기로

배우는 『천로역정』의 강조점과 장점이 드러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참고하고자 한다.²⁵²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영국을 대표하는 151명의 신학자-목회자들이 1643년 7월 1일부터 149년 2월 22일까지 5년 6개월에 걸쳐 만든 『하나님을 향한 공적 예배를 위한 지침』(1644), 『장로교 교회 정치의 형태』(164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 『대교리문답』(1647), 『소교리문답』(1647)의 다섯 개의 문서들 가운데 하나이다.²⁵³

본격적인 구원론과 『천로역정』과의 연관을 짓기 전에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서정”(The Order of Salvation, ordo salutis)에 대한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자.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 한 극단은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의 분명한 순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존 머리의 입장이다. 존 머리는 그의 책 『구속』에서 “구속을 적용하는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순서가 있다고 파는 데는 타당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런 순서는 물론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를 따라 정하신 것이다.”²⁵⁴ 존 머리는 성경적인 구원의 순서를 “부르심, 거듭남, 믿음과 회개,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²⁵⁵로 이해한다. 중도적인 입장으로는 루이스 벌코프를 들 수 있다. 그는 “성경이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순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런 순서에 대한

²⁵² 이를 위해 로버트 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의 번역본을 참고. 이외에 G.I. 윌리엄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나용화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9),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13) 참고.

²⁵³ 백금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5.

²⁵⁴ 존 머레이, *존 머레이의 구속*, 장호준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1), 124.

²⁵⁵ Ibid., 133.

충분한 근거는 제공한다.” 고 주장한다.²⁵⁶ 존 머리의 입장의 반대편에는 G.C. 베르카우어의 입장이 있다. 베르카우어는 구원의 고정된 순서를 성경에서 도출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믿음을 단순히 “구원의 길 위에 있는 어떤 뚜렷한 지점” 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단언한다. “믿음은 차라리 그리스도의 삶 전체에 스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²⁵⁷는 것이다. 후크마는 논의를 정리하면서 “연속적인 절차나 단계를 가진 구원의 순서에 대해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양한 측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야” 함을 역설한다.²⁵⁸ 요컨대 “구원의 방식이 지닌 다양한 국면들은 한 국면이 시작된 뒤에는 각각 그 이전 것을 대체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단계가 아니라 연이어 계속되는 구원과정의 다양한 동시적 측면으로 간주해야 한다”²⁵⁹는 것이다. 후크마는 구원의 과정을 ‘거듭남-회심-칭의-성화-견인’의 일련의 연속적인 경험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구원 과정은 동시에 시작되고 지속되는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한 통일된 경험으로 이해해야 한다”²⁶⁰고 주장한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구원의 교리가 『천로역정』에서 어떻게 이야기로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효과적인 부르심(유효한 소명)” 과 『천로역정』

하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오직 그들만을 자신이 적당한

²⁵⁶ 앤서니 후크마, *개혁주의 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25.

²⁵⁷ Ibid.

²⁵⁸ Ibid., 29.

²⁵⁹ Ibid.

²⁶⁰ Ibid.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본래 처한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기를 기뻐하셨다. 또한 그들의 생각을 영적, 구원적으로 밝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효과적으로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운 마음이 되어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항>²⁶¹

이 유효소명은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인간에게서 미리 예견된 것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그 점에서 인간은 성령에 의해 새롭게 소생되어 그 소명에 응답하고, 그것을 통해 제시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²⁶²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2항>

문 31: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답 31: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²⁶³

존 번연은 『천로역정』의 시작을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손에는 책 한 권을,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어찌 할꼬?” 하며 한탄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한 죄인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소생되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다. 『천로역정』의 한 남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자신은 의로운 행위가 전혀 없음을

²⁶¹ 로버트 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242.

²⁶² Ibid.

²⁶³ 백금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34.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불의에 치우쳐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를 존 번연은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로 표현한다.

‘옷’은 ‘행위’를 뜻하는 알레고리이며, ‘남루한 옷’은 그가 죄인이며 어떤 덕스럽고도 의로운 행위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²⁶⁴ 성령께서는 이 남자가 영적으로 겸손하게 되고 죄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를 깊게 책망하신다. 책망의 도구는 그가 들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성경을 상징한다. 로버트 쇼는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은 외적인 수단이다. 성령은 사람들을 은혜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는 일을 감당한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말씀의 외적인 부르심에 성령의 권능이 뒤따랐기 때문이다.”²⁶⁵ 이 남자는 “내가 어찌 할꼬?”라며 부르짖는다. 이처럼 죄인이 죄의 질책과 책망으로 울부짖는 것은 심령이 부드러워진 상태를 의미한다.²⁶⁶ 이 남자는 자신의 괴로움을 가족들에게 말하지만, 가족은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남자를 이해하지 못한다. 물론 이들,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네 아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남자의 뒤를 따라 떠나는 것으로 『천로역정』 2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남자, 크리스천은²⁶⁷ 전도자(Evangelist)의 도움을 받아 좁은 문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멸망의 도시(City of Destruction)에서 그를 잡으러 나온 고집쟁이(Obstinate)와

²⁶⁴ 김홍만, *해설 천로역정*, 16.

²⁶⁵ 로버트 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245.

²⁶⁶ 김홍만, *해설 천로역정*, 19.

²⁶⁷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는 처음에는 ‘한 남자’로 나온다. 그의 이름이 처음부터 제시되고 있지 못한 것은 그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님을 알레고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 남자는 이후 고집쟁이와의 대화 속에서 이름이 바뀌게 된다. 김홍만은 이 남자의 이름이 바뀌는 이유를 “(고집쟁이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신앙고백에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변덕쟁이(Pliable)²⁶⁸의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고집쟁이는 크리스천에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시험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다시 옛날의 죄 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함으로써 시험을 극복한다. 변덕쟁이는 순례의 길을 출발하지만 중도에 시험을 만나 포기하는 ‘일시적 믿음’의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는 순례의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육신적이고 향유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그는 크리스천이 말하고 있는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성되지 않은 자였다. 왜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다. 변연은 그에게 등 뒤에 죄 짐이 없는 것으로 각성되지 않은 자임을 표현하고 있다. 김홍만은 이에 대해 “그(변덕쟁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죄의 질책이 없으며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²⁶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크리스천은 변덕쟁이와 함께 여행하다가 절망의 늪(Slough of Despond)에 빠지고 만다. 변덕쟁이는 늪에 빠지는 고생을 하면서 크리스천을 떠난다. 크리스천이 늪에 빠진 것은 변덕쟁이와 이야기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다. 절망의 수렁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의심과 회의에 빠지다가 정도가 심해져서 절망에 빠진 경우를 표현한 것이다. 김홍만은 “이러한 시험은 믿음의 길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에게 자주 나타난다.”²⁷⁰고 한다. 크리스천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멸망의 도시 방향이 아니라 좁은 문 쪽으로 기어오르려고 노력한다. 이는 천성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드러낸 것이다.

²⁶⁸ 유성덕은 그의 번역서, *천로역정* 에서 변덕쟁이를 온순으로 번역하였으나 중간에 변심하는 인물의 경향을 염두에 둘 때, 변덕쟁이가 더 적합한 번역으로 보인다. 본고는 김홍만의 명명(命名)을 따랐다.

²⁶⁹ 김홍만, *해설 천로역정*, 44.

²⁷⁰ *Ibid.*, 48.

이 또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드러낸다.

절망의 늪을 벗어난 크리스천에게 세상 지혜자(Wordly Wiseman)가 나타나 죄 짐을 쉽게 벗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쉽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율법주의자(Legality)가 살고 있는 도덕의 마을(Village of Morality)로 가도록 안내한다. 그러나 김진필에 따르면 이러한 방향은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²⁷¹한다. 도덕 마을로 가라는 시험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유혹이었다. 크리스천은 죄 짐을 벗기 위해 좁은 문(Wicket-Gate)으로 가는 것보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힘들여 율법주의자가 살고 있는 언덕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 언덕이 굉장히 높고 가파를 뿐만 아니라 산의 중턱 여기 저기에 커다란 바위와 깊은 골짜기들이 위험스럽게 깔려 있어서 어찌해야 좋을지 언덕 앞에서 망설이게 된다.²⁷² 크리스천이 “가파른 언덕”으로 표현되는 율법의 엄격성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 주던 전도자(Evangelist)가 다시 나타나 그를 질책하면서 다시 좁은 문으로 가도록 안내한다. 전도자는 훈계와 위로를 통해서 크리스천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목회자를 상징한다. 전도자의 책망 속에 크리스천은 자신의 오류를 솔직하게 고백한다. 김홍만은 이를 “크리스천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한다.²⁷³

²⁷¹ 김진필, “아빌라 데레사의 궁성이론으로 본 천로역정의 크리스찬 여정 분석,”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27.

²⁷² 존 번연, *천로역정*, 유성덕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4), 54.

²⁷³ 김홍만, *해설 천로역정*, 69.

“칭의”, “양자 됨” 과 『천로역정』

하나님은 유효하게 부르신 이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여기신다. 칭의는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겨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그 외의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종과 구속을 그들에게 전가시키시어 그들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의 의를 의지하게 하신다. 이 믿음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칭의 1항>²⁷⁴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위해 양자 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들은 양자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기록된다.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공호와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으나 버림을 당하지는 않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들을 기업을 받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양자 됨 1항>²⁷⁵

문 33: 칭의는 무엇입니까?

답 33: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 주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이며,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문 34: 양자 됨은 무엇입니까?

답 34: 양자 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는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특권을 받습니다.²⁷⁶

크리스천은 드디어 좁은 문에 도달하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호의(Good

²⁷⁴ 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254.

²⁷⁵ *Ibid.*, 278.

²⁷⁶ 백금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36.

Will)라고 하는 문지기를 만난다. 호의는 크리스천에게 “그리스도와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을 가르쳐 준다. 중간에 해석자(Interpreter)의 집에서 먼지가 가득한 방을 끌고 물을 가져다 뿌린 처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존 번연은 “먼지는 인간의 원죄를 의미하며 또 모든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내면의 부패를 의미한다. 처음 이 방을 끌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Law)이다. 그리고 다음에 물을 뿌려 준 아가씨는 복음(Gospel)이다.”²⁷⁷ 고 해설한다. 이 거실이 주는 교훈은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²⁷⁸ 는 것이다. 또한 벽난로의 불을 끄려고 물을 끼얹는 뒤편에 계속 은밀히 기름을 붓고 있는 모습을 통해, 구원의 은혜인 벽난로의 불을 마귀가 물을 끼얹어 끄려고 해도, “인간의 마음 속에 이미 넣어준 은총을 보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은총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는”²⁷⁹ 그리스도의 보존의 교리를 깨닫게 한다.

크리스천은 십자가(Cross)에 다다른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깨 위에 있는 짐이 벗겨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세 명의 천사를 만나게 된다.

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을 때 광채를 발하는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 중의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막 2:5)라고 말해주었고, 두 번째 사람은 크리스찬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 입혀 주었으며,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찬의 이마에 표를 달아 주면서 봉인된 두루마리 한 개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크리스천에게 길을 가면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고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제시하라고 말해 주고는 함께 떠나

²⁷⁷ 번연, *천로역정*, 66.

²⁷⁸ 김진필, “아빌라 테레사의 궁성이론으로 본 천로역정의 크리스찬 여정 분석,” 29.

²⁷⁹ 번연, *천로역정*, 69.

가 버렸다.²⁸⁰

김홍만은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은혜의 수단으로 마련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용서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²⁸¹ 첫 번째 천사가 준 것은 죄 사함의 선언이다. 이는 로마서 8장 1절²⁸²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크리스천은 이 말씀과 같이 용서함 받은 것을 확신하게 된다. 두 번째 천사가 더러운 행실과 죄를 의미하는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준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스가랴 3장 4절²⁸³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의인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세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식 한 것은 이는 크리스천이 이제 양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성령의 인치심 인 것이다.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다. 이 표식은 그가 쓰는 말씨도, 삶의 방법도 세상의 것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한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혼이 갱신된 것이다. 두루마리는 언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상자가 되었음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다. 크리스천이 역경과 고난 중에도 두루마리를 읽음으로써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즉 “두루마리는 우리가 천성을 향해 계속 가도록 격려하며, 근신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인 것이다.”²⁸⁴

²⁸⁰ Ibid., 76.

²⁸¹ 김홍만, *52주 스터디 천로역정*, 109.

²⁸²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²⁸³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²⁸⁴ 김홍만, *해설 천로역정*, 129.

“성화”와 『천로역정』

유효소명을 받아 거듭남으로써 그 내면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과 그들 안에 거하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실제로, 또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거기에서 비롯하는 여러 가지 정욕이 차츰 약화되거나 억제되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활기와 능력을 얻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 1항>

성화는 전인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 모든 부분에 부패함의 잔재가 남아 있어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된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 2항>

이 싸움에서 잠시 동안은 잔존하는 부패함이 크게 우세할 수 있지만 성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힘을 통해 거듭난 부분이 승리를 거두기에 이른다. 그 결과,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 3항>

문 35: 성화는 무엇입니까?

답 35: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됩니다.²⁸⁵

크리스천은 고난의 언덕(Hill of Difficulty)을 내려와 겸손의 골짜기(Valley of Humiliation)에서 아볼루온(Apollon)을 만나게 된다. 그는 크리스천이 떠나온 멸망의 도시를 조종하던 자였다. 아볼루온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순례의 길을 포기하도록 위협하고 두렵게 만든다. 크리스천은 아볼루온에

²⁸⁵ 백금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37.

맞서 싸워 이긴다. 크리스천은 믿음의 방패로 공격을 막고 말씀의 검으로 아볼루온의 심장을 일격하여 물리친다. 이처럼 크리스천이 무수한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힘은 자신이 죄 사함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다.²⁸⁶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거듭난 신자는 그 내면이 바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능력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기록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아볼루온으로 대변되는 마귀는 신자를 죄의 권세로 누르려 하고 정욕으로 유혹하려고 하지만, 중생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약화시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더 힘과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다.

검손의 골짜기를 지나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Valley of the Shadow)가 나타난다. 이 골짜기는 매우 외로운 장소이며, 크리스천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곳이기도 하다.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모든 기도’ (엡 6:18)라고 하는 무기에 의지하여 인내로 통과하게 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영적으로 매우 곤고한 상태를 의미한다.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마치 주께서 버리신 것 같으며, 주께서 저주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순례의 길 가운데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곳이기도 하다. 크리스천은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이 앞서 가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 23:4)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존 번연은 크리스천이 이 소리를 듣고 다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²⁸⁶ 정재창, “『천로역정』에 나타난 구원의 과정,” 107.

첫째, 그 소리로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를 걷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고, 둘째,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거늘 자기 자신과 함께하실 것이 틀림없으며 단지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셋째,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나아가노라면 조만간 동료들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다.²⁸⁷

크리스천은 멀리 앞서 가던 사람, 신의(Faithful)를 만나게 된다. 그는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떠났다는 소문과 자신이 살던 멸망의 도시에 대한 경고를 듣고 순례길을 나섰다. 신의와의 대화를 통해 그도 청년의 정욕과 관련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같은 순례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경험을 하기도 하며, 앞서 간 자가 뒤에 처지고, 뒤에 간 자가 앞서갈 수 있음을 신의를 통해서 알게 된다.

크리스천과 신의는 허영의 시장(Vanity Fair)에 도착하게 된다. 이 시장은 1년 내내 열리며, 허영의 시장이란 이름은 그곳에서 허영이 더 경박하게 유지되며, 팔리는 모든 것이 허영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허영의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다음과 같다.

집, 토지, 명당자리, 무역물자들, 직위, 명예, 승급, 귀족 칭호들, 국가들, 왕국, 옥정, 향락 등등이 거래되고 또한 모든 종류의 쾌락을 위하여 매춘부들, 포주들,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금,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 등등 온갖 것들이 다 있었다. 게다가 이 시장에는 언제나 요술사들, 사기꾼들, 도박꾼들, 바보들, 악한들, 장난꾼들 등 온갖 종류의 쾌락과 악에 젖은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있었다. 또한 도둑질, 살인, 간통, 거짓 맹세, 피 묻은 것들 등 무시무시한 것들을 언제든지 무료로 구경할 수 있었다.²⁸⁸

허영의 시장이 세워진 이유는 도시의 주인인 바알세불이 순례의 길을 가는

²⁸⁷ 번연, *천로역정*, 108.

²⁸⁸ *Ibid.*, 138.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였다. 김홍만은 허영의 시장에서 팔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서 합법적인 것과, 헛된 것에 마음을 두어 영혼을 과멸로 몰아가는 것들, 불법적이면서도 죄 된 것들”²⁸⁹로 구분한다. 김홍만은 이를 “성도들을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빠지게 하여, 결국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그만두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²⁹⁰고 해석한다.

크리스천과 신의가 이곳에 들어서자 한바탕 야단법석이 벌어졌다. 우선 이 순례자들이 입은 옷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옷들이 아니었다. 말씨도 이상했다. 순례자들은 모국어인 가나안어를 썼기 때문이다. 크리스천과 신의는 시장의 물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자아냈다. 이 둘은 재판 회부되는데 기소 내용은 시장의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시를 소란과 혼란으로 몰아넣으며, 사람들에게 위험한 내용의 원리(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는 것이다. 결국 신의는 배심원들의 토의를 거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크리스천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다. 크리스천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마음에 아직도 살아있는 세상에 대한 정욕들을 파괴하기 위함임을 보여준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 과 『천로역정』

문 36: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 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36: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 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²⁸⁹ 김홍만, *해설 천로역정*, 238-39.

²⁹⁰ Ibid.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 기쁨,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며 보호되는 것입니다.²⁹¹

크리스천은 신의를 잃고 난 뒤에 소망(Hopeful)이라는 동역자를 만나 계속 여행을 떠나게 된다. 소망은 허영의 도시에서 신의의 순교와 크리스천의 믿음과 의연함을 보고 감동을 받아 그들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이다. 마법의 땅에서 들려준 소망의 회심 간증을 베리 호너는 천로역정에 나타난 ‘복음의 모범적 표현’으로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소망은 죄의식 없이 세속에 빠져 살던 인물로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죄를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는 종교적 의무를 다함으로 스스로 교정하고자 하였지만 죄의 자각과 죄의식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 더욱 가중된다. 그는 믿음에게 자문을 구하고 믿음은 소망에게 그에게는 완전한 의가 필요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므로 칭의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망은 결국 의와 구원을 위한 유일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행사하고 크리스천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²⁹²

소망의 증언은 이후 만나게 될 무지와 대조를 이룬다. 무지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만났을 때에 좁은 문(회개)이 아니라 구부러진 길을 통해서 넘어온 자로서 회개가 없이 자신의 의와 마음 속에서 발생하는 선한 생각을 의지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하는 자이다. 무지는 결국 죽음의 강을 건너 천성문에서 거절당하고 만다. 십자가 체험을 한 후 받는 두루마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안락(Ease)이라는 평원을 지나 물욕(Lucre)이라는 조그만 언덕에서 데마(Demas)의 은광(silver mine)을 만나게 된다. 데마는 자신의 은광을

²⁹¹ 백금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38.

²⁹² 호너, *천로역정 명강의*, 130-31.

사랑하면서 유혹하였지만 크리스천은 그의 정체를 알아 차리고 유혹을 물리치게 된다.

생명수 강(River of Water of Life)에서 잠시 쉬던 이들은 다시 여행을 떠날 때 고달픈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 편안히 갈 수 있는 샛길(By path)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길은 의심의 성(Doubting Castle)에 살고 있는 절망 거인(Giant Despair)에게 잡히는 길이 되고 만다. 절망 거인의 폭행 속에서 자살까지 생각하기에 이르렀으나, 크리스천이 자신의 품 안에서 약속(promise)이라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 열쇠를 이용하여 간신히 의심의 성을 빠져 나오게 된다.

정재창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영혼에게 뒤따르는 위험으로, “자신을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헛된 자만과 이러한 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보다는 자기 뜻대로 고집하다가 빠지는 깊은 절망”을 예로 들고 있다.²⁹³ 김홍만은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의 이름이 뜻하는 바를 “영적으로 의심과 절망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정리한다.²⁹⁴ 이 세상에 살면서 받게 되는 칭의, 양자 됨, 성화의 유익은 크리스천이 의심의 성에서 절망 거인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발견하게 된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 회심한 자, 칭의된 자, 양자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 확신을 상실했던 사람도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의 회복은 기도 밖에 없음을 절망거인에게 잡힌 크리스천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다.

²⁹³ 정재창, “『천로역정』에 나타난 구원의 과정,” 110.

²⁹⁴ 김홍만, 52주 스터디 천로역정, 314.

“신자들이 죽을 때 받는 복” 과 『천로역정』

문 37: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37: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 속에서 쉬게 됩니다.²⁹⁵

먼 여정의 마지막으로 순례자들은 죽음의 강에 이르게 되었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 크리스천과 소망의 모습은 성도의 죽음을 묘사하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큰 어둠과 공포로 앞을 전혀 보지 못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크리스천을 소망은 옆에서 도우면서 결국 무사히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었다. 이들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의 옷을 벗어 버리고 천성에 오르게 되었다.

그때 내가 꿈에서 보니, 빛나는 자들이 그들에게 대문에서 사람을 부르라고 일렀다. 그들이 사람을 부르자 대문 위에서 에녹, 모세, 엘리야 같은 이들이 머리를 내밀었는데,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이 순례자들은 이곳 임금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멸망의 성을 떠나 여기까지 온 자들이니라.” 그리고 나서 순례자들은 길을 처음 떠날 때 받았던 증명서를 사람들에게 주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 왕에게 갖다 드리자, 왕이 그것을 읽고 나서 말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했다.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왕은 대문을 열어 주라고 명한 후 말했다.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 지어다” (사 26:2) 이제 내가 꿈에 보니, 그 두 사람이 성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리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몸은 변화되었고, 의복은 황금같이 빛났다. 또 사람들이 수금과 면류관을 가져와 그들에게 주었다. 수금은 찬양하는 데 쓰이는 것이었고 면류관은 영예의 상징이었다.²⁹⁶

²⁹⁵ 백금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38.

²⁹⁶ 존 번연, *천로역정*, 226.

천성문에서 순례자들은 증명서를 제출한다. 이 증명서로 인봉한 두루마리는 크리스천이 십자가에서 죄짐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에 세 번째 천사가 준 두루마리로 천성에 들어가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반면 무지라는 자는 십자가 체험을 한 적이 없어서 두루마리를 받지 못하여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무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이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구원받겠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소망(Vanity Hope)에 불과했다. 무지는 회개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증명서가 없었던 것이다. 김홍만은 무지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원죄를 부정하였으며, 성령의 유효한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였다. 그는 오직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받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즉, 철저히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였고,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회심의 체험 없이 교회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²⁹⁷

배리 호너는 무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크리스천과 무지의 논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죄인에게 전가된 것으로서의 칭의가 인간과 독립적으로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객관적이고도 완전한 사역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협력하게 만드는 주입된 의를 기초로 인간의 마음에 발생하는 주관적인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가?”²⁹⁸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주관적 행위와 함께 협력하여 의를 이루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성도의 구원점검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무지는 자신의 선택이 그리스도의 의와 결합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흔히 착하게 살면 된다는 류의 생각을 품은 자였다.

²⁹⁷ 김홍만, *52주 스터디 천로역정*, 433.

²⁹⁸ 호너, *천로역정 명강의*, 131.

크리스천과 무지의 대조적인 결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우리 밖에서 발생한 놀라운 은혜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 속에서 근근이 버텨온 그 어떤 선한 행위를 내세울 것인가? 배리 호너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무지는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대하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 속에 발생하고 있는 것과 자신의 선한 생각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무지는 은혜와 협력하게 하는 어떤 사역이 자신의 삶 속에 발생했음을 믿으며,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인 칭의를 얻게 되는 선한 행위를 생산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완성하신 속죄사역, 즉 죄인 밖에서 그의 마음과 관계없이 완성된 사역을 붙들게 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러나 무지는 자신의 신비적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으며, 결국 천성 문에 도착했을 때, 그 문의 통과를 위해 그리스도의 의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나는 나의 주 나의 왕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지요.” (눅 13:26)라고 대답한다.²⁹⁹

인생 여정을 끝내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찬양이다. 이 찬양은 신자의 삶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듯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하시는 은총이 없이는 한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²⁹⁹ 호너, *천로역정 명강의*, 131-32.

제 IV 장

이야기로 배우는 군인교회 양육체계

군인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특징

군인교회는 파라처치(para-church)도 아니고, 로컬처치(local-church)도 아닌 양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중심적인 목적지향성을 가지고 모인 곳이 군교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군선교라는 목적의식은 병사신우보다는 간부신자에게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군인교회는 선교적 교회이다. 짧은 순환주기와 부대이동과 보직변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목민처럼 전후방 각지를 다녀야 하는 군인교회 신자들의 특성상 선교중심적 사고를 가지지 않고서는 군교회에 출석하여 헌신하기란 쉽지 않다. 군선교, 특히 병사신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세례 받은 기독교신자로 이 사회 가운데서 청년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는 것은 군선교의 핵심적인 과제이며 목표이다. 20여년동안 진행되어 온 비전2020을 비롯한 군선교의 역사는 양적 세례신자 확충과 아울러 대대급교회에서 지속적인 양육이 되어 사회로 배출한다는 큰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군선교는 병사신우에 대해 간부신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며 돌보는 사역의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군교회 간부들은 군인가족이라는 제한성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교회 성도들은 군인가족의 특성상 잦은 전출과 전입으로 인해 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 양육기회를 갖지 못한다. 군교회 성도들은 한 부대에서 지휘관이 아니고 참모로 근무하면 2년이상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통상 1년이 지나 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간부들의 경우도 그렇지만 병사신우도 마찬가지다. 병사는 최근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18개월에 근접해가고 있다. 또한 주말외박 허용과 휴가 등으로 인해 군교회를 연속적으로 출석하기란 신우들도 벅찬 상황이다. 군교회 신자들의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자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군종목사는 한 곳에서 2년이상 근무할 수 없다. 군인사법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즉 목회자의 근무기간도 2년이 넘지 않고, 병사는 18개월, 간부는 12-24개월 미만이라는 짧은 신앙주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힘들게 한다.

군인교회 양육체계에 대한 평가

군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경공부는 그 종류만 해도 25가지가 넘는다.³⁰⁰ 그만큼 군교회 성도들의 양육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방증이기도 하다. 군인교회 성도의 양육을 위한 일관된 군교회 양육체계 시도는 오랫동안 이어져왔지만 아직 하나의 공동체계로 협력해서 이어가는 체계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TEE공동체학습³⁰¹의 경우 저변이 확대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³⁰⁰ 육군군종목사단 수련회 자료집.

³⁰¹ TEE는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의 머릿 글자를 딴 약어이며, 신학연장교육 또는 연장신학교육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TEE는 중미의 과테말라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미국의 랄프 윈터(R. Winter)가 기존 신학교육의 틀이 현지 교회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동료 선교사인 로스 킨슬러(R.Kinsler), 제임스 에메리(J.Emery)와 같이 고안해서 1963년 처음 시행하기 시작한 새로운 교회 리더 훈련방법이다. 시작될 당시의 TEE는 현지에서의 교회 리더와 목회자 훈련을 위한 것이었고, 학생들을 신학교에 모아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교육을 한다(Study

군인교회가 이 양육체계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유기적인 양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양육체계의 기간과 교재가 가지고 있는 주제의 제한성, 다양한 주제의 모임을 개설하고 지도할 수 있는 소그룹 인도자의 제한성 등은 모든 군인교회 양육체계가 가지고 있는 공통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내용 구성과 아울러 짧은 주기를 가지고 있는 양육체계가 필요하다. 반복할 수 있으면서도 새롭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과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는 교재이면 훨씬 더 군인교회 양육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소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인 세미나와 학습 이후에 혼자서 공부하거나 되새길 수 있는 양육체계가 군교회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군교회 목회자의 경우에도 성도들의 잦은 이동을 염두에 두면서, 단기간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변주해서 새롭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견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2년동안의 목회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다. 세부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서 전체를 조망할 수 없는 양육체계 보다는 성경과 교리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양육체계가 필요하다.

군교회 특성에 최적화된 양육체계: 통통성경학교와 『천로역정』 세미나

성경과 교리는 성도라면 누구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천착해야 할 주제다. 물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지만, 시대가 이단의 무차별적인 공격적 포교를 앞두고 교리의 강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교리에 대한 교육과 관심은 중요하다. 또한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체계로서의 교리와 아울러 신앙생활의 체계성을

가져오고 전도와 포교, 변증에 있어서도 성경과 교리가 상관하는 양육체계는 시의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내용의 담보까지 가져온다.

통통성경학교와 『천로역정』 세미나는 공히 10주, 30시간을 넘지 않는 양육주기로 교인을 양육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 통통성경학교는 10주간 다양한 주제와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프레임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성경이해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천로역정』 세미나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꼈던 수많은 갈등과 유혹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어렵게만 느껴지는 교리를 이야기식으로 전해 들으면서 그림언어로 교리를 정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군교회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집중세미나를 진행한 후 이후 지속적인 반복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통통성경학교와 『천로역정』 세미나는 1-2년 단위의 군교회 양육체계로, 목회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도입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가 개설하여 시행한 사례를 중심으로 통통성경학교와 『천로역정』 세미나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이야기로 성경을 배우는 『통통성경학교』

통통성경학교는 지금까지 4회기 시행하였다. 육사교회 1회기, 연무대군인교회 2회기, 육군본부교회 2회기를 시행하였으며, 육사교회의 경우는 10회기를 매주 다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고, 연무대군인교회와 육군본부교회는 필자가 강의하였다.

육군사관학교 육사교회와 『통통성경학교』

육사교회 목회의 특성

육사교회는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위치해있다.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정예장교 양성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육사생도는 4년 동안 각자 전공을 택하여 전공과목과 군사학과목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육사교회는 육사생도를 정예장교로 육성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인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육사에는 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준중장교를 파송하고 있는 네 개 종교, 즉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가 준중실을 구성하여 생도신앙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원불교 준중장교 (“교무”)가 군에 3명 밖에 없는데, 그 중 한 명을 육사에 보직한다는 것은 그만큼 육사생도의 종교활동 지원이 중요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담임목사의 입장에서 아직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생도들에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15년 동안 병사형제들과 간부들만 대상으로 군목회를 하다가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은 필자에게 큰 도전이었다. 필자가 다닌 대학교가 마침 기독교 배경의 대학교여서 신앙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군분투하는 교목실의 여러 모습을 익히 보아왔고, 생도를 대상으로 육사의 준중목사가 기독교대학교의 원목실장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 좀 더 다른 면으로 사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도들의 생활이 일반대학교의 대학생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생도는 매주 주일과 수요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 특히 수요일예배는 ‘수요종교교육’이라 칭하여 종교가 없는 생도들도 각자 원하는 종교를 택하여

참석하도록 독려한다.³⁰² 목사생도는 수요일 오후를 체육활동을 실시한다. 오후 동안 학년별 교육과정에 따라 강인한 체력단련을 실시한 후 샤워하고 식사 후 종교행사³⁰³에 참석하려면 시간과 싸울 수밖에 없다. 촉박한 일정 속에 식사까지 마치고 교회에 도착하면 낮의 체육활동의 피로가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만나 교회는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친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기존의 예배 틀과 청중이해로는 어려운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

목사생도는 장교로 임관하여 군의 지도력으로 성장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이들의 품성과 리더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질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다. 참호에서는 무신론자는 없다고 하지 않는가?³⁰⁴ 생사를 구분 짓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군인의 신분은 사생관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시대가 갈수록 무종교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지만 군인에게 신앙의 역할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부대원 전체의 사기와도 직접 연관이 된다.

지금은 수요종교교육에 대해서 자율에 맡겨 많은 생도들이 참석하는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필자가 근무할 당시 육사는 수요종교교육을 생도들에게 종교교육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독려하였다.

³⁰² 필자가 근무할 때(2015-2016년도)는 의무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후 자율시행으로 바뀌었다.

³⁰³ 군에서는 상이한 종교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고, “종교활동”이라 하며, 종교예식의 경우 “종교행사”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³⁰⁴ There is no atheist in the foxhole.

<그림1> 6.25전쟁기념 한미전몰장병 추모기도회



<그림2> 삼일절 기념예배 중 만세 삼창하는 생도들



생도들은 수요일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중 하나를 택해서 종교교육을 받게 된다. 이런 종교를 택하는 방식은 1학년 생도가 입학식 전에 가입교(加入校) 기간 중 종교를 정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부임 당시에 육사는 가입교 신입생(‘신입생도’, ‘기훈생도’라 칭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화랑기초군사훈련을 준비중이었다. 군중부에서도 화랑기초군사훈련 4주간 동안 신입생도를 대상으로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기존 종교가 있는 생도는 해당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종교가 없는 생도는 매주 자신이 가고 싶은 종교를 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매주 기훈생도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활동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간식은 초코파이와 요쿠르트로 종교간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오직 ‘말씀’(천주교는 ‘강론’, 불교는 ‘설법’, 원불교는 ‘설교’)으로만 승부할 수 밖에 없었다. 밤늦게 불 꺼진 교회당에서 생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리허설을 하는 시간이 매주 이어졌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성경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이 때만큼 진지하고 치열하게 고민한 적이 없었다.

<그림3> 생도들과 함께 드리는 성찬예배



<그림4>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생도들과 함께 드리는 주일예배



치열한 기초군사훈련 뒤 입학한 1학년 생도들은 2,3,4학년 선배생도들과 함께 수요종교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매주 수요일 체육활동(전투체육)을 열심히 하고 난 뒤여서 샤워 후 식사하고 교회에 오면 피곤에 지친 생도들이 많았다. 기독교신앙을 육사에서 처음 접하는 생도들이 반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생도 만큼 목사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생도담당 교사들은 목사에게 ‘핵심만 간명하게’ 설교하기 원했다. 목사인 나에게 끊임없이 떠오르는 문구는 ‘재미있고, 쉽게, 핵심만 짧게’ 였다. 생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15분을 넘지 않아야 했다.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생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핵심만 짧게’ 는 어려운 과제였다. 일반성도들도 20분 설교를 힘들어 하는데, 생도들의 상황은 정말 녹록치 않았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위의 지인을 만나고, 새신자들에게 신통하다는 책자를 사서 보았지만, 뭔가 시원하게 관통하는 것이 없었다. 통통성경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타는 목마름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림5> 육사 전생도 대상 기독교 특강



육사교회 『통통성경학교』

육군사관학교 육사교회의 통통성경학교는 서울삼광교회(서울 강북구 솔샘로 소재)에서 시작한 통통성경학교에 육사교회 성도 몇몇이 참석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필자는 10주 중 한 주를 맡은 강사로 참여하였다. 서울삼광교회

『통통성경학교』에 참석한 육사교회 성도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지자 육사교회에서 통통성경학교를 개강할 수 있게 되었다.

통통성경 렉처러 과정을 수료한 후 몇 번의 강사지원을 한 후 시작한 육사교회의 『통통성경학교』는 성경통독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통통성경학교 2기로 시작하였다. 필자는 육사교회 『통통성경학교』 센터장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한 통통성경학교는 일반성도 60명, 육사생도 10여명의 참여 가운데 진행되었다. 현역군인의 신분으로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주중에 강의를 개설하는 것보다 토요일 오전에 강의를 열어 현역군인 남자 성도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토요일 오전 집에서 쉬고 싶지만 교회를 찾은 현역성도들의 열의는 참으로 놀랍고도 감사한 것이었다. 『통통성경학교』를 매주 진행하면서 교회 사무실에서는 출석을 체크하였고, 여전도회에서는 정성껏 간식을 준비하였다. 필자는 매시간 쉴 때마다 숙제검사를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숙제를 비롯한 각종 과제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그림6> 통통성경학교 개강



<그림7> 휴식 시간을 이용한 숙제검사 시간



강사는 당시 『통통성경학교』 2기의 강사진을 중심으로 매주 다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다. 매주 다른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통통성경학교』 센터장의 위치에서는 때론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다.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용의 전달에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10주 동안 매주 3시간씩 강의를 듣고 관련 숙제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업임에는 틀림없다. 성도들에게 매주 숙제검사를 병행해서 독려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토요일 아침 9시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현역군인 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인데 성도들에게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다. 부족하지만 필자 본인이 전체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토요일 아침시간에 성도들이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나온 모습은 많은 감동을 자아냈다. 사무실 스텝들이 잘 준비하여 강의가 끝나면 강의 관련 주제로 함께 담소하는 모습을 통해 『통통성경학교』가 줄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을 보게 되었다.

한 주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고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교회를 찾은 현역 간부들의 모습은 끊임없는 신앙생활과 성경공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되새기는 좋은 시간이었다.

<그림8> 통통성경학교 스태프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간식



<그림9> 담소하는 강사님과 성도님들



통통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필자에게는 큰 기도제목이 있었다. 육사생도들이 통통성경학교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장차 대한민국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생도들은 평소 일반학 수업과 아울러 군사학 수업을 병행한다. 필자가 육사의 교육체계를 대할 때마다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 있다. 육군사관학교는 “육군의 5대 가치인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에 기반하여 신체적 역량, 사회적 품성, 가치관·윤리의식, 지적 역량, 군사적 역량을 키워 위국헌신의 국가간성으로 양성하는”³⁰⁵ 것을 지향한다. 그런데 이러한 역량에 “영적 건강(Spiritual Fitness)”이 빠져 있는 것이다. 군인은 전쟁수행 과정에서 수 없는 한계상황과 복잡다단한 결정 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쉽게 노출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의지해야 할 힘이 자신 밖에 없는 자는 그 자신의 한계치만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없다. 신앙의 힘은 개인의 역량을 뛰어넘는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이 절대자의 존재에게 의지하는 의탁이며, 이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영적 역량”은 그런 의미에서 한 개인의 상황 극복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 지우는 책임감의 무게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 동력이 된다고 본다. 미 육군의 경우 “영적 리더십 센터(Army Center for Spiritual Leadership)”³⁰⁶를 두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책임 주무는 군중장교가 맡고 있다. 기독교국가여서 군중제도와 관련 영적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전쟁에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현장 속에서 점검해 온 미군의 실용성을 생각할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적인 건강”(Spiritual Fitness)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³⁰⁵ <https://kma.ac.kr:461/kma/2076/subview.do> (2020년 2월 28일 접속).

³⁰⁶ cf. <https://phc.amedd.army.mil/topics/healthyliving/bh/Pages/SpiritualHealth.aspx>.

것은 우리 군도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고 발전시켜야 할 영역이라고 본다.

통통성경학교는 그런 면에서 생도들에게 ‘영적 건강’의 중요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군인으로서 성경 속 5대 제국의 다양한 전쟁의 역사를 배워 가며, 세상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배운다는 것은 의미 깊다. 성경에는 전쟁의 승리가 한 개인의 탁월함을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많은 사례들이 예증하고 있다. 앗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전멸시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서 보여준 수많은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한 전쟁의 용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성경의 저자 중에 장군이 있다는 말을 하면 생도들이 놀라곤 하는데, 여호수아도 장군이었고, 다윗도 장군이었다고 하면 성경을 달리 보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성경 속 전쟁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인류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5대 제국 경영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주장하는 인생이어야 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20대에 배운다면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얼마나 각별할 것인가? 조병호는 “통(通)은 대상의 속성을 하나부터 열까지 꿰뚫어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관계와 계약, 공시와 통시, 이성과 감성, 지식과 실천, 부분과 전체 등의 서로 다른 영역을 동시에 바라봄으로써 조화와 균형, 공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³⁰⁷하게 한다고 한다. 통통성경학교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야기를 통한 내적 이야기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역사인식을 가져오게 한다. 성경과 역사를 이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 얼마나 소중한

³⁰⁷ 조병호, *통이다, LET'S 通*, 85.

축복일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생도의 통통성경학교 참여는 기도의 소중한 결실이었다.

토요일은 생도들에게는 기다려온 시간이다. 주중 외출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토요일 외출은 반드시 챙겨야만 하는 시간인 것이다. 옛날 선배들은 토요일이면 아무런 약속이 없지만, 반드시 외출 나가서 걸어 청량리 시계탑까지 돌아왔다는 우스개 아닌 진심 어린 이야기를 육사교회 장로님들이 들려 주시곤 했다. 생도들에게 토요일 외출이 어떤 의미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토요일 아침 9시에 생도가 외출하지 않고 교회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고 결단이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 시간 여러 점검으로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참석한 생도들이 고맙고 기특했다.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5세부터 20세까지 이야기로 배운다는 취지를 생각할 때 생도들의 열의는 육사교회 통통성경학교를 빛나게 해주었다. 생도들의 영적인 건강이 증진되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림10> 토요일 아침, 외출을 마다하고 통통성경학교를 수강하는 육사생도들



육사교회 통통성경학교는 성경에 대해 배우고 싶은 개인적인 열망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우러진 복된 시간이었다. 함께 참석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게 했는지 입을 모아 간증하였다. 또한 이해하기 힘든 성경을 역사 순으로 기간 중 읽어 내려가면서 성경이 이해되고 이야기로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전도의 열의를 가지게 된 것도 큰 결실이었다. 육사교회의 통통성경학교는 필자에게 성경으로 충분히 재미있고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성도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림11> 『통통성경학교』 졸업식



<그림 12> 『통통성경학교』 졸업식 기념촬영



연무대군인교회와 『통통성경학교』

연무대군인교회의 특성

연무대군인교회는 육군훈련소의 훈련병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기독교신자로 군복무를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중요교육기관이다. 육군훈련소는 매주 1,500명~2,000명의 훈련병들이 입소하여 5주간 훈련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연무대군인교회에 매주 3부로 드리는 주일 낮 예배에는 약 7천명의 훈련병이 참석하며, 매년 20~24회에 걸쳐 진행되는 진중세례식을 통해 국군 세례자의 40~45%에 해당하는 약 7만 명이 진중세례를 받는다. “군선교의 요람”이라는 말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13> 훈련병 진중세례식



<그림14> 훈련병 진중침례식



부임 당시 연무대군인교회는 당면 과제와 오랜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당면과제는 교인 관리였다. 이른바 보직교체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훈련소 지휘관인 훈련소장은 교체되기 2주 전이었다. 많은 기독간부들도 일반간부와 같이 보직교체주기에 따라 떠날 준비를 하였고, 매주 환송이 이어졌다. 반면 새롭게 전입하는 기독간부는 많지 않았다. 군인교회는 이런 부침을 거듭한다. 믿는 일꾼이 교회에 많이 모일 때가 있다. 이들의 1-2년 정도의 보직이 끝나면 전출 가고 남은 이들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담임목사도 2년의 시간이 지나면 떠나야 한다. 육군훈련소는 부사관 가정의 비율이 전국 어느 군인교회 보다 높은 편이다. 훈련병을 교육시키는 훈련부사관이 많기 때문이다. 부대에서, 군인교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급이 준, 부사관 계급이고, 준, 부사관가정이다. 늘 열심히 하고 말없이 헌신하는 가정들을 돌봐야 하는 당면과제였다.

<그림 15> 전교인 말씀사랑 퀴즈대회



<그림 16> 전교인 말씀사랑 퀴즈대회 간식 나눔



훈련병예배도 처음 부임한 첫 해에는 큰 당면 과제였다. 5주간 어떻게 예배설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울러 훈련병예배 전체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례식의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며, 인원편성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세례식 때마다 2-3회에 한 번 꼴로 포장하는 세례식 선물 8,000개는 어떻게 해야 교인들을 독려해서 포장에 동참하게 할 것인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가오는 커다란 숙제가 다가왔다. 그러나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담임목사는 영예로운 자리이다. 필자는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했다는 것만으로 큰 영광이다. 또한 함께

예배를 섬기며 훈련병을 인솔하는 분대장들을 겨울이면 붕어빵을 굽고, 여름이면 아이스크림을 조달하는 분대장팀, 훈련병예배를 통제하는 훈련병예배통제부, 훈련병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 세례식 안내와 통제를 담당하는 훈련병예배 입장통제부 등. 처소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기에 가장 보람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림 17> 훈련병 주일예배



<그림18> 훈련병 주일예배 찬양의 시간



연무대군인교회의 오랜 과제는 교회공사였다.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은 한국교회 군종목사 파송 60주년(1951-2011)과 군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70주년(1948-2018)을 기념하여 시작하였다. 부임 당시는 착공예배를 드린 지 1년 4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은 대지 약 15,000평 위에, 건물 약 2,300평 규모에, 5,000명 한 번에 예배 드리는 반원형 스타디움 건물이다. 필자가 부임하던 해 12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음향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그림19> 부임 당시 연무대군인교회 신축성전 외관(2016년 12월)



<그림20> 부임 당시 연무대군인교회 신축성전 내부(2016년 12월)



성전건축현금 모금도 중요 과제였다. 총 231억이 필요하다고 미리 말해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억이 못미치게 시작한 공사를 261억 3천만원의 건축현금으로, 231억 성전을 짓게 하시고도 30억을 남게 하셨다. 2년 동안 성전공사의 완공을 위해서 수많은 협조회의를 했다. 하나님께서는 시의 적절하게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를 보내주셨다. 군중목사로 사역하며 건축이나 리모델링하며 빛진 군인교회의 후임으로 가서 빛 갠 경험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었지만 건축은 문외한인 필자에게 “음향-영상-조명(AVL³⁰⁸)”이라는 중요컨셉을 잡게 해주었다. 모든 교회 건축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면서도 가장 힘든 마지막 장면에서 오직 기도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맛보게 하셨다.

실제 공사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필자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다.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는 맛난 음식도 좋지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다들 알기에, 말씀으로 먹여야 했다.

『통통성경학교』는 말씀을 사모하는 연무대군인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³⁰⁸ Audio-Video-Lighting의 약어.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의 외형은 타원형으로 설계가 되어 건축음향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극복해야만 했다. 천장의 구조도 추후 유지보수 관리가 편리한 풀그리드(FULL-GRID)방식으로 변경해야 했고, 빔프로젝터 방식의 스크린제시에서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였다. LED사이즈도 27.8mX8m의 초대형으로 변경하였다.

<그림21>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 외관(2018년 12월)



<그림 22>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봉헌감사예배(2018년 12월)



연무대군인교회의 『통통성경학교』

연무대군인교회에서는 2회기로 진행하였다. 1회기는 군인 여성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2회기는 주일 오후시간에 남자 성도를 대상으로 통통성경학교를 진행하였다. 군인교회 여성도는 성경에 대한 기초기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수월한 면이 있었다. 통통성경학교 기본교재를 중심으로 10주간 진행하였다. 교회에서 성경공부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통독성경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배려하였다.

군인교회 양육의 대상 중에서 여신도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심도 깊게 진행되고 체계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었지만, 남자 성도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남자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주중 성경공부 또한 제한적인 요인이 많았다. 육군 훈련소는 훈련병 훈육 관계로 아침 출근이 이른 편이다. 이른 출근을 하는 남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아침시간을 활용한 성경공부는 엄두내기 어려웠다. 새벽기도만 나와도 감사했다. 주말이나 주일에 성경공부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주중에 쌓인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에는 대부분 쉬려고 하기 때문이다. 상황은 제한적이지만 남자 성도들도 통통성경학교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연무대 통통성경학교 남자 성도 반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직이나 휴가로 인해서 시간을 내기 어렵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오후에 남성도만을 대상으로 통통성경학교를 진행하였다. 남자성도 25명과 병사신우 5여명을 포함하여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남자 간부성도들의 경우 성경의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많은 흥미를 보였다. 통통성경학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군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5대제국 관련 내용이 역동적이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5대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백성 간 수많은 정치·외교·군사적 난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의 활동은 남자 간부성도들에게 많은 흥미를 가져다 준 대목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의 형편은 나라가 한 민족 두 국가(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지 200년이 지난 시점에 앗수르가 드러내놓고 본격적으로 제국주의를 표방”³⁰⁹ 하던 시기를 다루고 있다. 이사야는 제국주의의 호전적 수사가 난무하던 시기에 왕을 보필하여 제사장 나라를 역설하고, 거룩을 외친 선지자였다. 앗수르라는 제국주의의 위협 속에서 제국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친 애굽 정책으로 국가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면모는 작금의 시대와 오버랩 되기도 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을 남유다의 솔로몬 왕 이후의 패역을 남과 북의 선의의 신앙경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려는 큰 계획임을 이해하는 것은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현역 군인에게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군사적인 시사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³⁰⁹ 조병호, *선지자와 5대 제국* (서울: 통독원, 2018), 22.

<그림23> 연무대군인교회 『통통성경학교』 홍보포스터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TBS)
연무대 통통성경학교 소개



첫째, 성경을 시간·공간·인간을 통통으로, 제사장 나라·5대제국·하나님 나라를 통통으로, 7개 트랙과 7개 스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을 파편화하지 않고 66권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모든 부모가 5세부터 20세 전 자기 자녀에게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는 이야기로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을 말합니다.

통통성경은

1.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성경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성경 전체를 7개 질문과 답으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4. 성경 전체를 20개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성경 전체를 40개의 줄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6. 12개의 기도샘플을 통해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7. 7개의 이야기 샘플을 통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수강기간

- 2017.7.8.~2017.12.16. (매주 토요일 09:00~11:00)
- 교재비 : 8만원 (5만원 개인부담, 3만원 연무대교회 보조)
- 신청/접수 : 박희수 목사(010-7741-0605), ymdchurch@daum.net



통통성경학교 통통박사 조병호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대학원
영국 버밍엄대학교 대학원
저서 : 「성경과 5대 제국」, 「성경통독」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성경과 고대전쟁」,
「성경과 고대정치」, 「신구약 중간사」,
편찬 : 「일년일독 통독성경」, 「역사순 통성경」

연무대 통통성경학교 강사



김택조 군종목사(센터장)
연무대군인교회 담임목사
통통성경학교 렉처러
통통성경학교 태릉센터장 역임



박희수 군종목사(센터지기)
입소대교회 담임목사
통통성경학교 렉처러

육군본부교회와 『통통성경학교』

육군본부교회의 특성

육군본부교회는 6.25전쟁 중 육군본부가 대구에 주둔해 있을 때에 장교식당에서 창립했다(1951.5.6.). 그 해 8월에 “육군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천막교회를 설립했다. 휴전 후 용산 현재 국방부 위치에 육군중앙교회를 헌당(1955.5.17.)하였다. 육군중앙교회는 1989년도에 육군본부가 충남 계룡으로 이전함에 따라 용산 소재 교회는 “국군중앙교회”로 개칭하였고, 현재 육군본부가 위치해 있는 계룡에 자리한 교회는 육군본부교회로 이름하게 되었다.

<그림24> 6.25전쟁 중 설립된 육군본부교회 전신, 육군중앙교회(천막)



본부교회는 1989년에 본부 영내에 교회를 지어 입당했고(1989.7.2.), 공군과 해군본부가 내려오면서 영내교회가 성장하게 되자, 영외에 교회를 지어서 영내교회는 병사신우예배를 드리고, 영외교회는 간부신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림25> 영내 본부교회와 영의 본부교회 봉헌감사예배



영의 본부교회는 육군·해군·공군교회가 한 건물을 같이 쓰는 교회로 자리 잡으면서 교인수가 증가하였다. 2018년도에는 본부교회 제2예배당(에벤에셀관)을 헌당하고, 2019년도에는 본부교회 지하 리모델링을 통해 예배실을 마련하게 되면서 오전 연합예배, 오후 각군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정식 명칭으로는 “육·해·공군 본부교회”로 불리는 본부교회는 한 지붕 세 교회가 같이 지내면서 각군 군종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 삼군 담임목사의 팀 목회를 통해 군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각군의 특성에 맞는 목회를 지원하도록 하여, 성도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말씀과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

<그림26> 3군본부교회 전경과 주일연합예배



이제 육군본부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다. 육군본부교회는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목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육군본부는 일반 야전부대와 달리 병사 대비 간부비율이 높은 곳이다. 병사신우들에 대한 돌봄과 아울러 신자간부들을 양육하여 재과송해야 하는 중요한 곳이다. 군에서 근무하는 간부에게 진급은 군생활 끝까지 쫓겨야 할 십자가라 할 수 있다.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 진급한다는 대의와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의 책임이 어우러지는 것이 진급이다. 한때 육군본부교회에서는 진급·진학·진로를 위해서 매년 특별한 기도회(삼진기도회)를 갖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의가 있어왔다. 승리주의적, 성공지향적 가치가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과 비선(非選)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인가? 라는 비판의 자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진기도회에 대한 비판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또한 본부교회는 본부라고 하는 정책부서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가? 라는 목회철학적 고민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필자는 육군본부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위와 같은 본질적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파송하는 교회” (딤후 4:5-6)라는 표어를 내걸고, “예배의 감격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양육 받은 군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라는 목회중점을 세워 “예배와 양육과 파송”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를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SNS” (Service-Nurturing-Sending)로 약칭하여 강조하였다.

<그림27> 연초 공동의회 시 발표한 목회계획 PPT



육군본부교회의 목회를 담당하는 담임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현안과 당면과제를 넘어서 영원에서 비롯된 본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에서 근무하는 성도들에게 군선교는 본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시대를 위한 사명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사명과 소명 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인위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 언젠가는 군문(軍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책으로 무엇을 했는지 지속적으로 질문해 가며, 본질적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목양 지도해야 할 중책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에게 이러한 본질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28> 군선교의 사명을 되새기는 육군 MCF 컨퍼런스



육군본부교회의 현역간부신자는 진급과 비선(非選)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편이다. 간부신자들의 눈을 띄워 성경과 기도를 통해 본인의 현실을 재해석하여 자기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통통성경학교는 군의 중요정책 결정을 감당해야 하는 신자들에게 5대 제국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통통성경학교를 열기 전에 매주 금요일마다 조병호의 『통통성경길라잡이』를 기독교인회(MCF,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를 대상으로 30분씩 강의했다. 아침 바쁜 시간인데도 현역과 예비역 신자 100여명이 함께 말씀을 궁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주 1장씩 나가는 구성으로 핵심만 요약하여 제시하였는데도 1년이 지나서야 구약을 마칠 수 있었다.

<그림29> 금요 기독교인회(MCF) 성경공부 홍보 포스터



<그림30> 금요 기독교인회(MCF) 성경공부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도 기도가 연계되어야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 통통성경학교에도 6번째 스텝이 기도이듯,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는 양날의 칼로 버려져야 한다. 육군본부교회는 중보기도회가 있어 매일 릴레이기도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훈련이 없었다. 야전으로 파송 받아 그곳에서 홀로 외로이 군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부르짖는 기도의 훈련은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야전에서 2-3명의 성도들과 추운 교회당을 기도로 시작한 새벽기도회를 떠올리며, 간절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격려와 힘이 되는지 경험하기 위한 기도회가 필요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산(山)기도회”라고 명명하고 산에서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성도들이 밤에 산은 부담된다고 하여, 광야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평지에서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교회 바로 옆 언덕에서 기도하였는데 8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3시간여를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열망이 이렇게 클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말씀과 기도의 단순한 목회가 군교회에서 필요함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후 교회에서 지은 야외음악당을 한 분이 깨끗하게 정리하여 더 집중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림31> 제1차 광야기도회 홍보포스터



<그림32> 광야합심기도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육군본부교회의 『통통성경학교』

육군본부교회 담임목사는 임기가 2년이다. 2년 동안 다양한 목회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끌어야 한다. 목요일 오전시간은 담임목사가 중그룹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배려 받는다. 신자들의 여건과 상황 속에서 주중 수요일 오전 9시 20분-12시 30분에 여성도를 대상으로 수요일 통통성경학교를 개강하였다. 남자성도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는 토요일 오전 6시-9시까지 토요일 통통성경학교를 진행하였다. 주중 통통성경학교는 주보에 광고 후 한달 동안 게시판에 포스터로 성경학교 광고를 하였고, 사무실에 신청하도록 하였다.

애초 참석인원에 대해서 주중 과정은 100여명 정도, 토요일 과정은 50여명 정도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막상 접수를 받아본 결과 주중은 200여명을 상회하였고, 주말은 100여명이 넘는 수강생이 접수하게 되었다. 육군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열의가 크다는 것을 사뭇 확인한 놀라운 순간이었다. 군교회 성도들은 민간교회 성도들과 달리 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다수가 강의를 듣는 환경에 익숙하고 배우는 열의가 아주 강한 편이다. 이는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열심일 뿐 아니라 군선교를 위해서 신우들과 말씀을 나누려는 열의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또한 예비역 신자의 경우 “손주에게 5세부터 가르칩시다.” 라며 광고한 것이 주효했다.

<그림33> 육군본부교회 통통성경학교 홍보 포스터 1

"성경으로 개인·가정·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육군본부교회 **Family School** 을 위한

통통성경 학교












- 접수 2019. 7. 21(주일)~8. 4(주일) / 육군 사무실 접수
- 교육기간 수요일반 : 8. 14(수) 09:30~12:30(3시간) 총 10회
토요일반 : 8. 10(토) 06:00~09:00(3시간) 총 10회
- 회비/장소 10만원(교재비 및 간식비 포함) / 4에배실

수업이 진행되면서 복습과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중도탈락자들이 있었지만 주중 통통성경학교는 150여명, 토요 통통성경학교는 70여명 정도로 수준이 유지되어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 교회 전체에 성경관련 프로그램인 어 성경 관련 성경내용이 많이 전해진 상황이었기에 통통성경학교에 대한 기대가 큰 편이었다.

<그림34> 육군본부교회 통통성경학교 홍보 포스터 2

“성경으로 개인·가정·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육군본부교회 Family School 을 위한 통통성경 학교

첫째, 성경을 시간·공간·인간을 통통으로, 제사장 나라·5대제국·하나님 나라를 통통으로, 7개 트랙과 7개 스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을 파편화하지 않고 66권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모든 부모가 5세부터 20세 전 자기 자녀에게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는 이야기로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을 말합니다.



□ 수강기간

- 접 수: 2019. 7. 14(주일)~28(주일) / 육군 사무실 접수
- 교육기간: 2019. 8. 1(목) 10:00 부터 총 10회 / 3예배실
※ 교회 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 비: 5만원 (교재비 포함)

통통성경은

1.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성경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성경 전체를 7개 질문과 답으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4. 성경 전체를 20개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성경 전체를 40개의 줄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6. 12개의 기도샘플을 통해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7. 7개의 이야기 샘플을 통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림35> 육군본부교회 통통성경학교 교재 소개 포스터



주중 통통성경학교와 주말 통통성경학교 모두 자원봉사 스텝진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스텝진은 출석표 점검과 간식준비를 담당하였다. 2명의 부목사와 함께 동역하여 주중과 주말 1명씩 방송과 PPT제시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통통성경학교 시작시간은 주중 수요일은 아침 9시 30분에 진행하였는데, 아침 9시 30분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난 뒤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었다. 강의 내용은 통통성경학교 기본교재와 아울러 CBS바이블칼리지 특강 및 관련 심화교재를 중심으로 PPT를 작성하여 강의와 병행하였다. CBS바이블칼리지가 10회 분량임에 반해 통통성경학교는 10주 30시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CBS바이블칼리지의 모든 분량을 담을 수 없었고, 핵심내용만을 강의하려 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제시하기에도 벅찬 면이 있었다. 성도들에게 많은 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과욕이 된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필자가 강의하는 PPT를 따로 정리하는 밴드를 만들 정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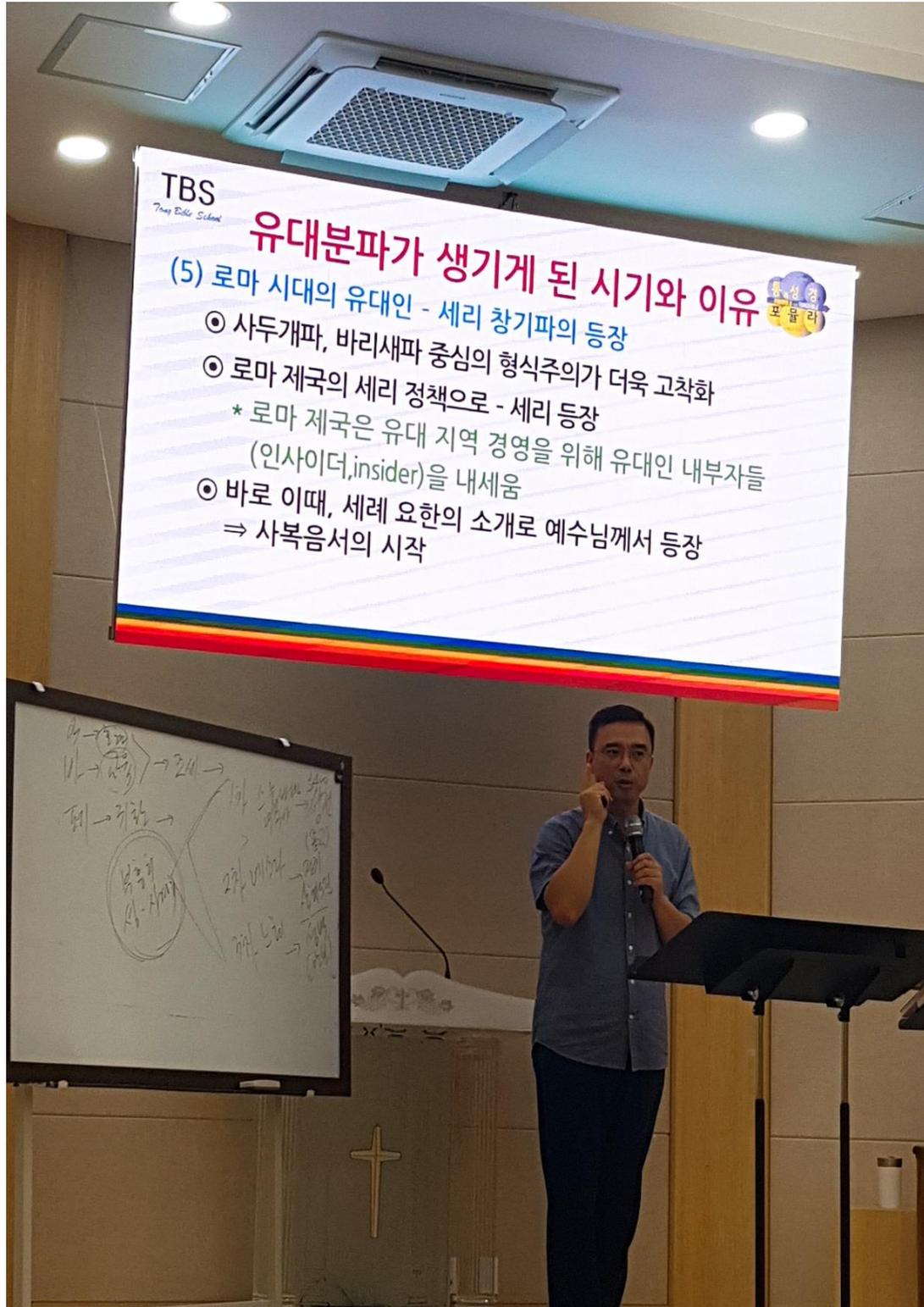
수강생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강의 내용은 통통성경학교 기본교재와 아울러 CBS바이블칼리지 특강 및 관련 심화교재를 중심으로 PPT를 작성하여 강의와 병행하였다. CBS바이블칼리지가 100회 분량임에 반해 통통성경학교는 10주 30시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CBS바이블칼리지의 모든 분량을 담을 수 없었고, 핵심내용만을 강의하려 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제시하기에도 벅찬 면이 있었다. 성도들에게 많은 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과욕이 된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필자가 강의하는 PPT를 따로 정리하는 밴드를 만들 정도로 수강생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그림36> 육군본부교회 목요 『통통성경학교』



열의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유튜브 강의로 진행하는 [조병호의 통숲보기]를 시청한 후 핵심 대지 5개를 받아 적도록 권면하였다. 통숲보기가 1년 기한이 종료되지 않아서 완전히 숙제를 마무리 할 수 없었으나 일년일독 통독성경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보다 성경의 골격을 이해하고 통으로 접근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통숲보기에 열정을 기울였고 많이 참여하였다.

<그림37> 육군본부교회 토요 『통통성경학교』



통통성경학교 후속 프로그램 - 통통성경 일독학교

통통성경학교를 수료한 후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며, 성경을 읽어야 한다. 통통성경은 동양의 직관, 독서백편의자현의 원리를 성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함께 성경을 들으면서 읽어가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성경의 원리가 잘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군인교회의 특성상 단기간 집중 세미나를 통한 전체 이해와 아울러 반복할 수 있는 과제를 통해 신앙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통통성경학교와 『천로역정』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성경과 관련된 집중세미나는 통통성경학교를 통해서, 교리를 이야기로 배우는 것은 『천로역정』 세미나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매일의 삶에서 성경을 읽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물론 시중에 나와있는 경건의 시간 관련 서적이 좋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성경을 매일의 경건과 묵상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무엇보다 성경과 친숙함을 더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 매년마다 진행하는 <신년맞이 성경일독학교>를 역사순 통독 성경을 중심으로 읽도록 진행하였다. 교재의 순서대로 구글 플레이에 1년 10독 성경 읽기 앱이 제시되어 있고, 산술적으로 하루 1시간이면 1년에 10독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도들은 매일 이렇게 시간을 자발적으로 내기 힘들어한다. 특히 주말에 가족이 있고 돌보아야 할 여러 문제가 산적한데 한 시간씩 시간을 내기란 어렵다. 혼자서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간헐적인 도전 속에서 서서히 지쳐간다. <신년 일독학교>는 그런 면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역사순으로 읽는 계기를 마련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림38> 신년맞이 통통성경 일독학교 일정표

2020 통 성경 일독학교 일정표

통(週)	6일(월)	7일(화)	8일(수)	9일(목)	10일(금)
09:00~	시작기도: 해군담임목사	시작기도: 육군담임목사	시작기도: 공군담임목사	시작기도: 해군담임목사	시작기도: 육군담임목사
10:20	1과 원역사(창 1-11) 2과 족장사(창12-36)	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삿 1-21) 11과 교육의 성공사례(룻 1-4)	17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열왕기하 15-20, 이사야, 미가) 18과 남유다의 쇠락(왕하 21-23)	22과 성전재건 (학,속,에스더) 23과 성벽재건 (느헤미야) 24과 고백과 침묵(말라기)	31과 열리는 계사시대(행 1-12) 32과 바울의 1차전도여행(13-15:35) 33과 2차전도여행(행 15:36-18:22, 살전,살후)
10:20~10:30	휴식시간			25,6과 친구약 중간사(휴식)	
10:30~	3과 입애급과 민족의 발아 (창 37-50)	12과 미스바세대탄생 (삼상 1-7)	19과 잠간의 징계 (왕하 24-25, 에레미야, 예가)	27과 예수님 탄생 (마태복음)	34과 바울의 3차전도여행 (행 18:23-19장, 고린도전후서) 35과 바울의 예루살렘여행 (행 20-26, 롬)
12:00~12:40	점심시간				
12:40~	5과 세계선교의 꿈 - 계사장나라(출 19-40)	13과 왕정의 시작 (삼상 16-31, 삼하 1, 관련된 시편)	19과 잠간의 징계 (오바다, 역대상 하)	28과 공생애 3년 (마가복음)	36과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행 27-28, 엡, 빌)
14:00	6과 기록한 시민의 교과서 (레1-27)	14과 하나님의 종 다윗 (삼하 2-10, 관련된 시편)			37과 기록론과 기적의 편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14:00~14:10	휴식시간				
14:10~	7과 만나세대의 성장(민1-36)	14과 하나님의 종 다윗 (삼하 11-24, 왕상 1-2, 관련된 시편)	20과 포로민 설득 (에스겔 1-48)	29과 마지막 일주일 (누가복음)	38과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편지 (딤후, 디도, 딤후)
15:30	8과 만나학교 졸업설교 (신1-11)	15과 솔로몬과 시가서 (열왕기상3:11, 잠,아,전,욘,시)			39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히, 약,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15:30~15:40	휴식시간				
15:40~	8과 만나학교 졸업설교 (신12-34, 시편 90편)	16과 남북분열왕조 (열왕기상 12-22, 열왕기하 1-14, 아모스, 호세아, 요나)	21과 제국변동의 밑그림 (다니엘) 22과 성전재건 (에스라)	30과 십자가 승리 (요한복음)	40과 요한계시록
17:00	9과 약속의 땅입성 (수 1-24)				
	폐회기도: 공군담임목사	폐회기도: 해군담임목사	폐회기도: 육군담임목사	폐회기도: 공군담임목사	폐회기도: 해군담임목사
성경일독 유의사항	1. 통독 전 일정 중 휴식 시간은 오전 한번, 오후 두번입니다. 2. 물 and 음료는 기급적 개인 텀블러를 이용해주세요기 바랍니다. 3. 성경읽기 속도, 범위 및 분량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성경통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일년일독 통독성경, 1년10독 성경읽기 앱(1.4배속), 통통성경길라잡이이다. 시작하기 전 그날 읽을 분량에 대해서 10분 정도 통통성경 길라잡이 및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한다. 이후 조병호의 녹음으로 된 1년10독 성경읽기 앱을 들으면서 성경을 듣고 읽어나간

다. 끝나고 나면 마침 기도로 마무리한다. 성경을 읽는 시간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함이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기 위한 영적 습관 형성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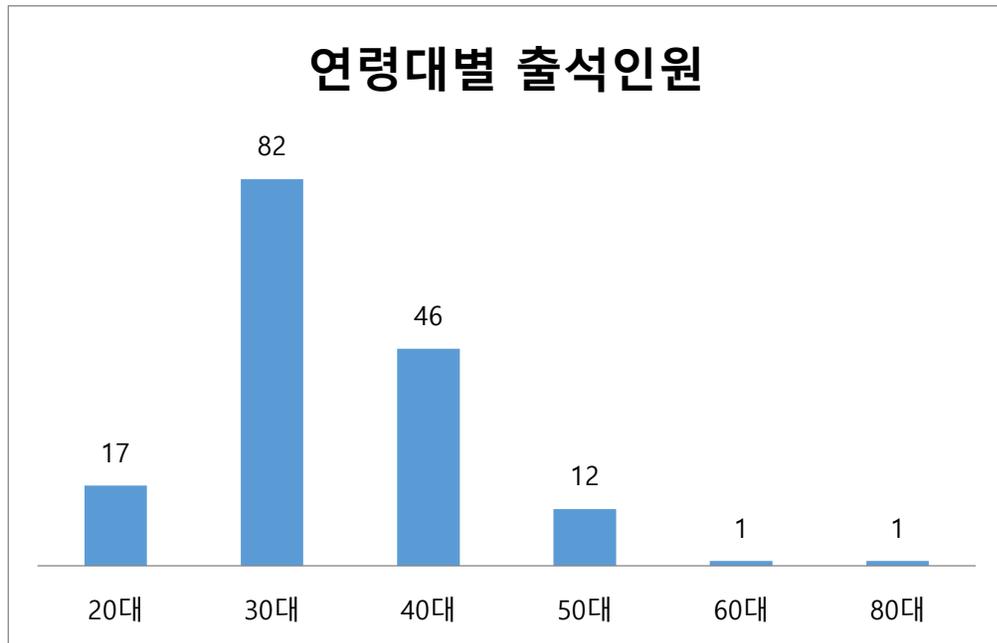
<그림39> 신년맞이 통통성경 일독학교에 참석한 성도들



육군본부교회 통통성경학교 설문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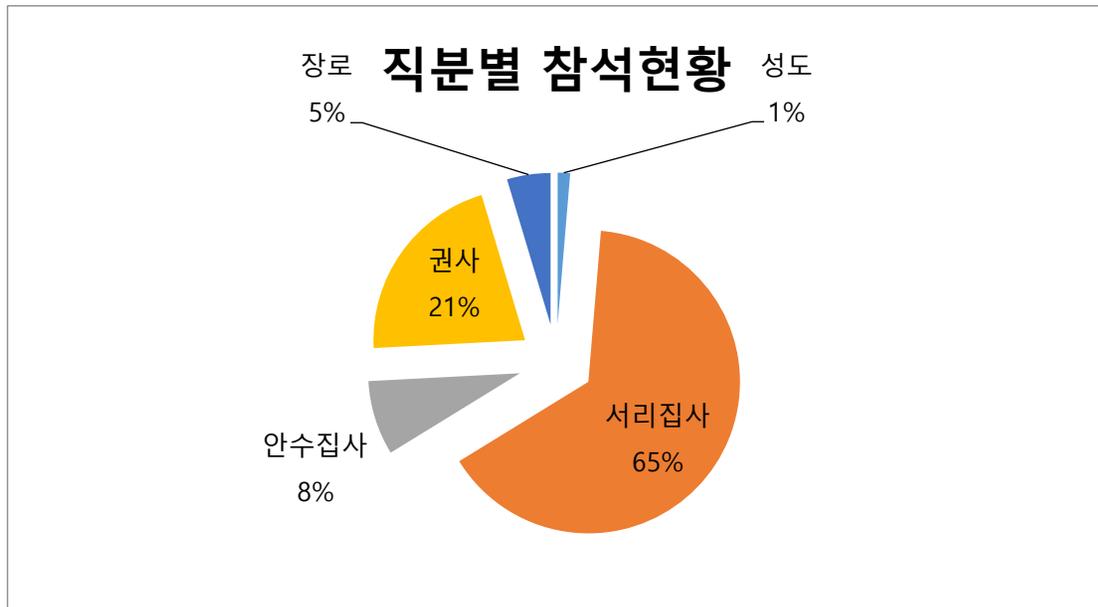
통통성경학교는 수요반 117명과 토요일반 47명이 설문지 작성에 참석하였다. 이중 여성은 131명이고 남성은 27명이었다. 군인교회 특성상 주중 성경공부반에 여성도 참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다. 연령별 출석인원 수치는 다음과 같다. 민간교회에 비해 청장년층 비율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표1> 육군본부교회 통통성경학교 연령대별 출석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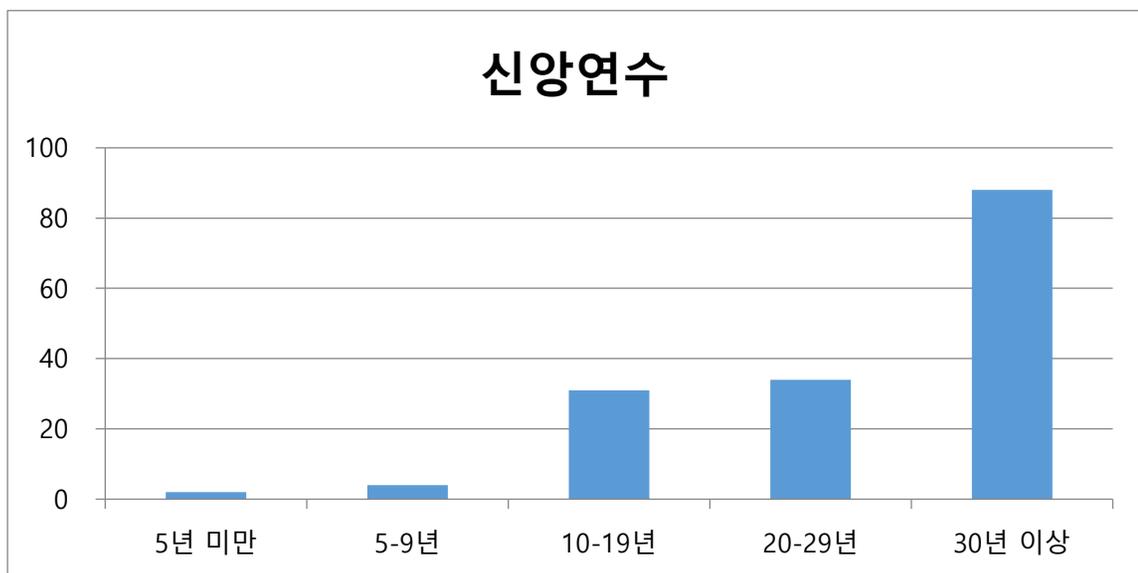
직분별로는 서리집사의 비율이 높았으며 향존직은 권사의 비율이 높았다. 군인교회에 향존직 비율이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권사의 참석비율이 높은 점은 그만큼 열정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하겠다.

<표2> 육군본부교회 통통성경학교 직분별 참석현황



신앙연수에 따르면 20-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았다. 신앙이력이 오래될수록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군교회에서 짧은 보직순환주기로 인해서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받지 못한 성도들의 안타까운 형편을 잘 읽을 수 있는 통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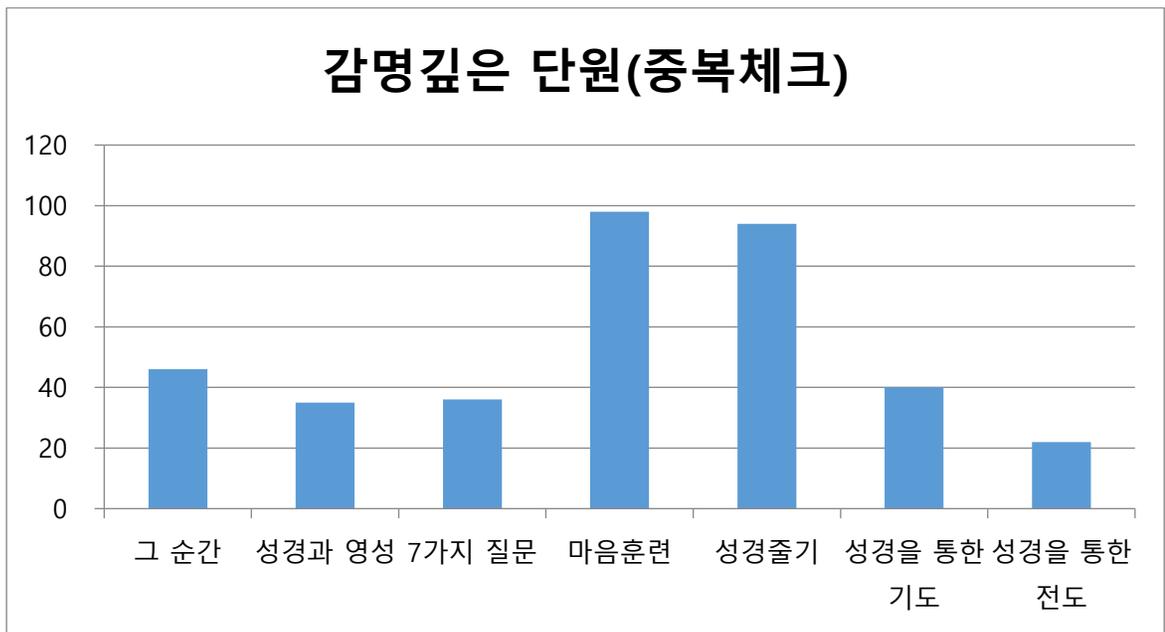
<표3> 육군본부교회 통통성경학교 참석자 신앙연수



성경을 읽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성경지식의 부족(73명)과 성경 읽을 시간을 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91명)고 답하였고, 혼자서 꾸준히 읽는 것이 제한된다는 답변(21명)도 많았다. 이런 응답은 개인의 경건생활의 일환으로 성경통독이 자리잡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며, 성경의 지식부족이 성경 읽을 시간을 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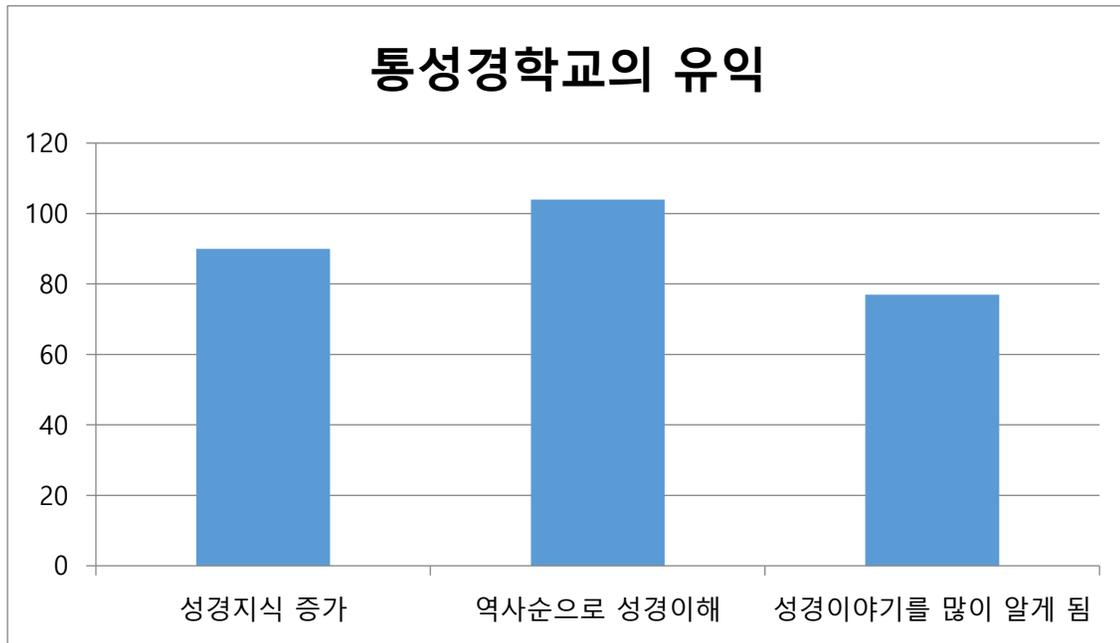
통통성경학교 단원 중 가장 감명 깊게 와 닿은 과목으로는 마음훈련과 성경줄기가 주를 차지하였다. 하나님의 마음과 줄기가 연계되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응답률이다.

<표4> 통통성경학교 중 감명 깊었던 단원



통통성경학교를 통해 얻게 된 유익으로는 성경지식의 증가와 역사순 성경이해, 성경이야기를 많이 알게 된 점을 꼽았다. 성경에 대해 체계적으로 전체를 짧은 기간에 배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역사 순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시간이 다양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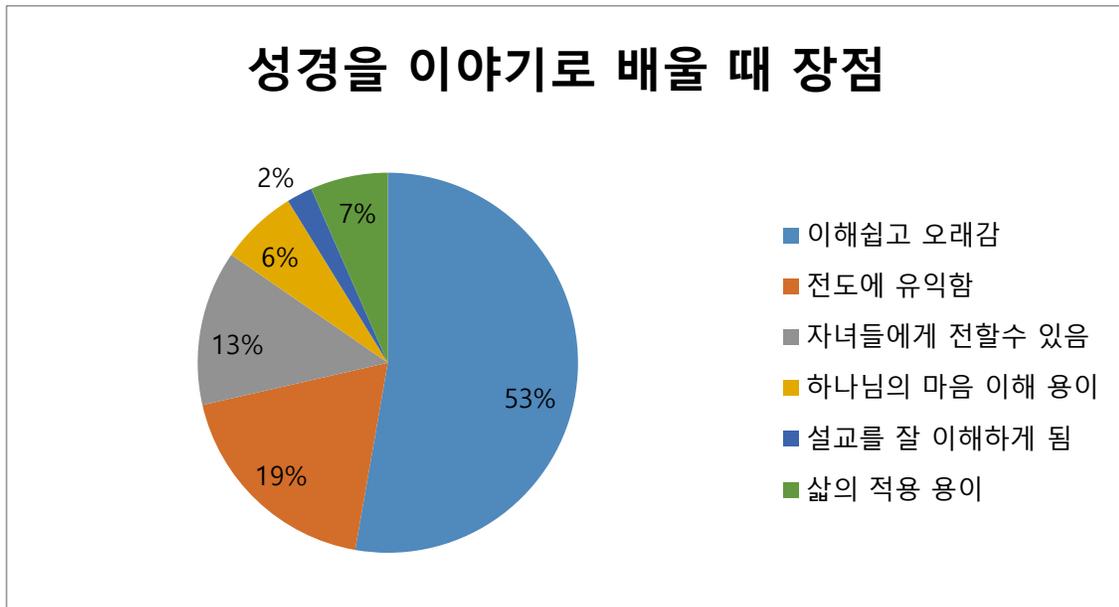
<표5> 통통성경학교의 유익



통통성경학교 수료 후 성경통독을 결심하고 있는 성도가 15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가 통통성경학교를 통해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통성경학교가 성경통독의 열망을 불러 일으켰고 성경을 역사 순으로 읽게 되면 성경이 쉽고 재미있게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을 이야기로 알게 되었을 때의 장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전도에 유익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로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스토리텔링을 통해 성경을 이해함으로써 전체 흐름을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용이하고 삶에 적용하기 쉽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6> 성경을 이야기로 배울 때의 장점



통통성경학교가 교회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성도들은 생각했을까? 무엇보다 복음 전도에 유용하다는 응답이 많았다(25명). 자녀교육에 유익하다(12명)와 성경에 대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으며 성경말씀이 이해된다는 응답도 많았다(57명).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고 예배와 기도에서 더 집중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복음을 나누고 전할 때 유용하다는 평가는 통통성경학교가 교인들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시간은 하루 2시간 정도 지속했으면 좋겠고(21명), 주 2회로 20주로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21명)는 응답이 많았다. 실제로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 성도들이 단시간에 이해하기에는 벅찬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통성경학교의 추후 과제로 좀더 세분화되고 단계적인 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이야기로 교리를 배우는 『천로역정』 세미나

『천로역정』 세미나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강해식으로 10주 3시간에 걸쳐서 진행한다. 『천로역정』 세미나의 처음은 육사교회의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였다. 사순절의 기간은 40일이라는 기간만큼이나 특별새벽기도회로 진행하기에는 목회적 부담이 큰 시간이었다. 그래서 통상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로 드리고 주제도 가상칠언 묵상 정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40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주제와 아울러 빠지면 안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는 흡입력 있는 이야기가 있는 교재나 내용이면 적격이었다.

존 번연의 『천로역정』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점검해 볼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 좋은 점검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군교회 성도들에게 본인 신앙생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가져오게 하였다.

육사교회와 『천로역정 세미나』

『천로역정』 세미나를 처음 시작한 곳은 육사교회였다. 육사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특별새벽기도회를 시작하는 전례가 있는 교회였다. 사순절(四旬節)이라고 하지만 40일을 쉽 없이 계속 특별새벽기도회로 진행하기에는 제한이 많아 통상 20일 정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성도들과 함께 40여일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흡입력 있는 주제 선정이 중요했다.

존 번연의 『천로역정』은 그런 면에서 탁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더구나 육사교회 성도들이 다른 군교회와 달리 오랜 시간 동안 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 생활한 분들이 많아서 웬만한 성경 주제는 다룬 경험들이 다수였다. 게다가

새벽기도회에 대한 열심도 무난한 편이었다. 새벽기도회를 40일간 지속할 수 있으면서, 흡입력 있는 주제로는 이야기로 배우는 『천로역정』이 제격이었다.

<그림 40> 육사교회 천로역정 특별새벽기도회



『천로역정』의 이야기와 알레고리 해석이 함께 병행되어 함께 강의하니 큰 반향과 호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점검해 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천로역정』의 순레이야기는 자기 성찰의 중요한 시간을 제공해주었다. 성도들도 빠지지 않고 내일은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지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잘 참석해 주었다.

「2015년도 천로역정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시작하고 보니, 출근시간과 맞물렸다. 군인교회 간부들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새벽 5시 30분에

시작하여도, 6시 10-20분사이에는 마쳐야 했다. 이후에는 다같이 「통성기도」 하는 시간을 가져 배운 내용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적 각성의 시간” 을 마련하였다. 성도님들 중에는 평생 한번도 새벽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었는데, 개인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촉박한 일정 속에 좀 더 내용을 다루기 위해 최선을 기울였다.

매시간의 시작은 특별한 찬양을 하였다. 인생을 순례길로 이해하며 천성을 향해가는 크리스천이 바로 자신임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찬양을 시작과 끝 시간에 함께 불렀다. “순례의 길” 이라는 『천로역정』의 주제에 부합하는 찬양이었다.

<그림41> 천로역정 주제가, [예수 인도하셨네]

1022. 예수 인도하셨네

— John W. Peterson —

내 인생 여정 끝내 어 강 건 너 언덕이를 때
 이 가 시 밭길 인생 을 허 덕 이 면서 갈 때 에
 내 밭 은 밭길 음 마 다 주 예 수 보살 피시 사
 하 늘 문 향해 말하 리 예 수 인도하셨 네
 시 험 과 환 난 많으 나 예 수 인도하셨 네
 승 리 의 개가 부르 며 주 를 찬송하리 라
 매 일 밭길 음 마 다 예 수 인도하시 네 나의
 무거운 짐 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 수 인도하셨 네

<그림42> 육사교회 천로역정 자료집 표지

40일 특별새벽기도회
(2015. 2. 23 ~ 4. 3)

천로역정

(天路歷程)



육군사관학교
육사교회

교재는 유성덕 번역의 『천로역정』과 김홍만의 『52주 스터디 천로역정』, 『해설 천로역정』을 참고하였다. 유인물을 만들어 배부하고 교재에 나오는 알레고리를 설명하고 전체 교리와 연관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강해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천로역정』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적인 요소와 아울러 알레고리적인 여러 상징들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 가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많은 흥미를 느꼈고, 이는 자연스럽게 성도로서의 자기 개인점검으로 나가는 효과까지 거두게 되었다. 『천로역정 특별새벽기도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과제를 주었다. 다름 아닌 「출석표」였다. 앞은 『천로역정』 관련 자료화면을 그림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었고, 뒤편에는 40일 기간을 편집하여 첫날부터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매일 다른 종류의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하여 성취감을 드높였다. 40일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이들에게는 소중한 신앙의 보물이자,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기념품이 되었다.

<그림43> 육사교회 『천로역정 특별새벽기도회 출석부』



천로역정 40일

(15.2.23~4.3)

특별 새벽기도회

구역 :
이름 :



육군사관학교
육사교회

1 2.23	2 2.24	3 2.25	4 2.26	5 2.27	6 2.28	7 3.1	8 3.2	9 3.3	10 3.4
11 3.5	12 3.6	13 3.7	14 3.8	15 3.9	16 3.10	17 3.11	18 3.12	19 3.13	20 3.14
21 3.15	22 3.16	23 3.17	24 3.18	25 3.19	26 3.20	27 3.21	28 3.22	29 3.23	30 3.24
31 3.25	32 3.26	33 3.27	34 3.28	35 3.29	36 3.30	37 3.31	38 4.1	39 4.2	40 4.3

육사교회에서 진행한 『천로역정 특별새벽기도회』는 『천로역정』의 진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반기 교인교육과 연계하여 후반기 사역을 추동하는 견인차가 되었다. 앞으로 서술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가평 소재 「필그림 하우스」의 천로역정 코스가 개관되지 않은 시기여서 현장답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성도들 중에는 한 번도 평생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남편이 40일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분을 몇 분 만날 수 있었다. 남자 성도님들은 이야기가 재미 있어서 빼먹을 수 없었다고 하며 평생 남을 “특별새벽기도회”라며 감격하기도 했다.

연무대군인교회와 『천로역정 세미나』

연무대군인교회 『천로역정』 세미나는 육사교회의 사례와 동일하게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 시행되었다. 다만 달라진 내용은 『천로역정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 열심히 참석한 이들에 한해 가평 소재 「필그림 하우스」로 1박 2일 “순례여행”을 떠난 것이다. “가평 필그림 하우스”의 천로역정 순례길은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중심으로 회심에서 천국까지의 인생 여정을 조형물과 건축물로 형상화하여 조성된 길이다. 『천로역정』을 처음 접한 이들에게도 감동과 은혜가 있겠지만, 『천로역정』에 대한 상세한 이해 없이도 안내인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면 곳곳에서 영적인 감동과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조성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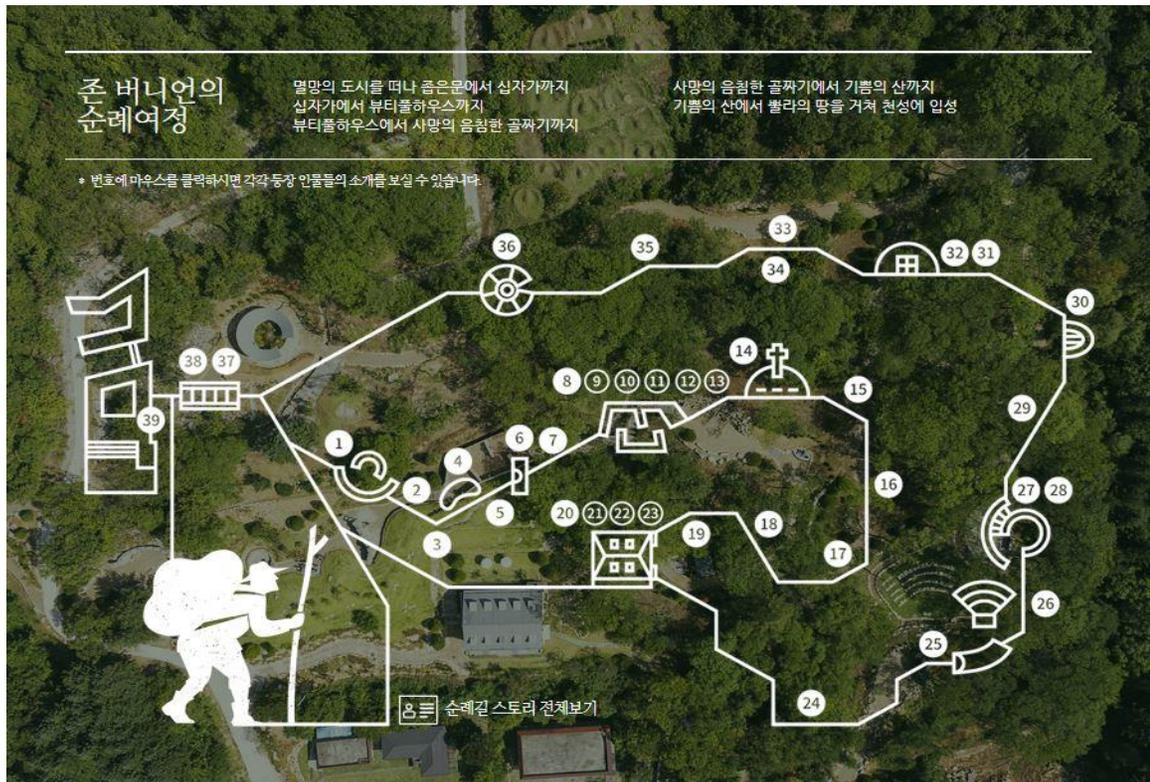
“연무대군인교회 필그림하우스 순례여행”은 “연무대군인교회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되었다. “연무대군인교회” 성도들은 매년 18-24회에 이르는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꼴로 매주 토요일마다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400여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이한다. 아침에 모여서 수천 개에 이르는 훈련병 세례식 선물포장을 해야 하며, 오후에는 2000~4000여명에 이르는 훈련병 세례식을 진행해야 한다. 성도들의 변함없는 헌신이 아니고서는 진중세례식이 은혜롭게 진행되기 힘들다. “필그림 하우스 순례여행”은 이처럼 귀한 헌신자들을 격려하는 목적과 아울러, 개개인의 신앙여정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림44> 필그림하우스 순례여행에 함께 한 연무대군인교회 성도들



“가평 필그림 하우스”는 연무대에서 차량으로 4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먼 거리다. 아침부터 출발하여 두 대의 12인승 차량으로 이동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필그림 하우스”는 기존 기도원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순례자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곳으로, 식당에서의 대화도 침묵으로 진행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자제시키는 분위기였다. 처음에는 이러한 수도원의 방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런 분위기 탓인지 좀더 차분한 가운데 “필그림 하우스”에서의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도착한 후 점심을 마치고 간단히 휴식을 취한 뒤에 오후에 계획된 순례일정을 진행했다. 순례여행 인도자에 의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들은 뒤 각 코스를 따라서 진행했다. 순례길의 코스와 각 코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그림45> 가평 필그림 하우스, 천로역정 지도



순례여행길을 조성해 놓은 “필그림 하우스”의 놀라운 재현력으로 인해 『천로역정』을 공부한 성도들은 공부한 내용을 다시금 되새길 뿐 아니라, 조형물을 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1시간 반 이상을 진행하는 일정을 마치고 저녁식사 후 세미나실을 빌려서 조용히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시간에는 “『천로역정』을 공부하고, ” 순례길 “을 답사하면서 내 인생 여정 중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은 있었는지?” 라는 질문과 “지금 나는 『천로역정』의 여정 중에 어디쯤 위치해 있을지” 를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천로역정』에 나타난 교리와 이를 우화적으로 저술한 “이야기로 배우는 교리”의 테마가 이제는 내 자신의 삶과 어떤 연관을 가질 수 있는지 돌아보자는 취지였다. 한 분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놀랍게도 공통된 내용 중에

하나가 “나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는 것이었다.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천과 같은 순례의 길의 어느 부분을 경험하였고, 크리스천의 경험이 나에게도 일어났다는 간증 속에서 『천로역정』이 가지고 있는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성도들은 오랜 시간 같이 사역해 왔지만 서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었다. 깊은 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순례길”을 떠나 영적인 여정 속에 분투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자신에게서 발견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역경과 고난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새벽 2시까지 이르는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삶의 이야기와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는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교리를 넘어서서, “나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자기 개방을 통해 “함께 안아주고 보듬는 공동체”로 더 깊게 다져지는 복된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군인교회는 신앙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곳이다. 한 교회를 오래 섬기는 분도 있지만 자주 이동해야 하는 이들이 단 시간 내에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종의 “친해지는 공동체놀이”를 통해서 도달하기 어려운 깊은 수준의 나눔을 『천로역정 세미나』와 “현장답사”를 통한 나눔을 통해 실현할 수 있었다고 자평해 본다. 『천로역정 세미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신앙점검과 아울러 본인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성경적으로 조명하고 묵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육군본부교회와 『천로역정 세미나』

육군본부교회에서 진행한 『천로역정』 세미나는 기존 “육사교회”와

“연무대군인교회”가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을 이용하여 진행한 것과 달리 주중 세미나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육군본부교회는 매주 목요일 오전 시간을 담임목사 주관의 “중그룹 세미나”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몇 년 전 담임목회자에 의해서 『천로역정』 관련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따라가며 진행하는 것이어서, 우화에 담긴 알레고리의 의미를 강해하듯 설명하는 일종의 “『천로역정』 강해세미나”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육군 성도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지 않고, “육·해·공군 본부교회” 연합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형식적인 면도 달리 했다. 기존의 『천로역정』은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시간을 통해 진행하였는데, 이제는 매주 목요일에 모여서 10주간 3시간씩 강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이 아침 시간이어서 시간에 얽매이기 쉬웠는데, 주중 세미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달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져올 수 있었다.

『천로역정 세미나』는 한달 전부터 홍보 포스터를 게시판에 부착하고, 주보에 광고를 실어서 성도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애초 50여명 정도를 목표로 시작하였는데, 150여명의 성도들이 신청하여 세미나실을 옮겨서 진행하였다. 『천로역정 세미나』 자료집은 그간 김홍만의 『52주 스터디 천로역정』에 더하여 Barry Horner의 “*A Comprehensive Outlined Commentary on The Pilgrim's Progress*”³¹⁰, Ken Plus의 “*A Guide to John Bunyan's The Pilgrim's Progress*”³¹¹를 참고하였다. 또한 Garrett Taylor³¹²의 “*PILGRIMS PROGRESS*

³¹⁰ <http://www.bunyanministries.org> (2020년 2월 28일 접속).

³¹¹ http://kenpulsmusic.com/Pilgrims_Progress.html (2020년 2월 28일 접속).

³¹² Garrett Taylor는 픽사(Pixar)소속으로 애니메이션 “*Cars 2*”, “*The Good Dinosaur*”, “*the Incredibles 2*”의 애니메이터이다. “garretttaylor.com”에서 더 많은 작품들을 접할 수 있다.

MAP' 이라는 다운로드 패킷을 구입하여 자료집에 포함시켜서 내용을 좀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림46> 육군본부교회 『천로역정 세미나』 홍보 포스터

天路歷程

신앙점검과 영적 부흥을 위한

천로역정
세미나

Pilgrim's Progress

☐ 일정/장소 : '19. 3. 7~5. 9
※ 매주 목요일 10:00~12:00 / 4예배실

☐ 교재 : 존번연 "천로역정" (크리스천다이제스트)

☐ 강사 : 담임목사 김택조

하나님의 소원이 넘치는 선교의 교회 육군 본부교회

<그림47> 육군본부교회 『천로역정 세미나』 자료집 표지



수료식 시간에는 음식을 나누면서 『천로역정 세미나』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성도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교리를 배울 수 있다는 점과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을 나누었다.

<그림48> 육군본부교회 『천로역정 세미나』 수료식



『천로역정 세미나』 종료 이후에 신청을 받아 “가평 필그림 하우스” 방문시간을 가졌다. 버스 2대를 나눠 타고 출발하여 3시간 정도의 거리를 오갔는데, 『천로역정 세미나』 뿐만 아니라 “필그림 하우스”를 방문하는 답사에도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보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충남 계룡에서 경기도 가평까지의 거리는 3시간이 소요되는 먼 거리였다. 오가는 시간만 6시간 가까이 되어, 실제 머무는 시간은 그리 길지 못했다. 자녀를 둔 수강생들은 일찍

복귀해야 했기 때문에 차량을 2대로 편성하여 자녀맞이에 문제없도록 배려했다. 다녀온 성도들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머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했는데 다음에는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진행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하루 동안 필그림 하우스를 경험하는 것도 제한이 있지만, 무엇보다 천로역정 코스를 탐방하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간증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이야기를 통해 교리를 배우는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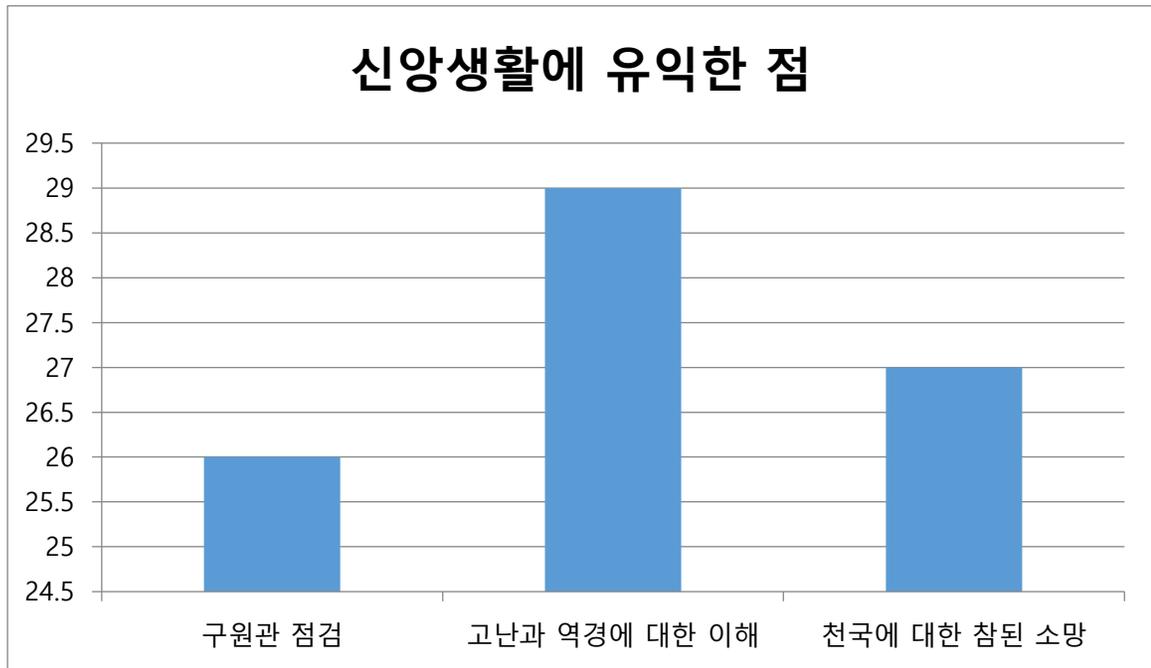
<그림49> 육군본부교회 『천로역정 현장탐방』 십자가 체험의 세 천사와 함께



천로역정 세미나 설문평가

천로역정 세미나 설문평가에는 41명이 응답하였다. 주중 성경공부여서 대다수가 여신도였고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가 제일 많았고 60대 성도들도 참석했다.

<표7> 천로역정 세미나를 통한 신앙생활의 유익



신앙생활의 유익이 되는 점은 무엇이였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구원관 점검과 고난과 역경에 대한 신앙적 이해를 가져오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중복체크가 가능하다고 하였더니 골고루 체크하였다.

본인이 크리스천처럼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어느 단계를 거쳐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그 중 허영의 시장을 지나고 있다는 답변과 소망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답변이 각각 2명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각자의 삶의 단계를 염두해 두고 답변하고 있었다. 답변을 보면, 무신론자가 있는 마법의 땅, 크리스천의 초기 모습과 닮았다, 작은 믿음이 나와 닮았다,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 것 같다, 의심의 성과 절망거인을 만난 것 같다,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단계이다, 좁은 문을 지나고 있다, 허영의 시장을 지나 소망을 만났다, 기쁨의 산에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믿음을 만났다 등이다. 이러한 답변으로 미뤄보건대, 천로역정 세미나가 각

자의 신앙의 단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함과 아울러 이야기로 그려지는 광경 속에서 쉽게 자신의 단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음도 파악하게 되었다.

필그림 하우스 현장 체험에 대해서는 책 전체의 내용을 실제로 보아서 좋았고, 현장 체험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각인이 되는 좋은 계기였다는 등, 몸으로 견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강의로 들은 내용을 다시금 복습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성도들 중에는 다시 오고 싶다는 분도 많았고, 숙박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천로역정 세미나에 대한 총평으로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고, 성경말씀을 토대로 신앙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천국의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순례자로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천로역정 세미나가 구원 이후의 삶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화의 과정 중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세상의 유혹과 영적 시련 속에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며, 딱딱한 교리보다 이야기로 교리를 이해하여, 바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제 V 장

결 론

요약 및 평가

본 논문은 군인교회 양육체계 개발을 위해 <이야기로 배우는 성경과 교리>를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론에서는 군인교회 성도들과 군목회자의 짧은 보직순환주기를 고려한 군교회 양육체계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2년 사이에 성경과 교리를 쉽고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통통성경학교와 천로역정>을 제안했다.

2장에서는 이야기로 배우는 통통성경과 천로역정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기술하였다. 통통성경과 천로역정이 이야기로 성경과 교리를 제안하는 것에 대해 주목하면서, 이야기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 Paul Ricoeur와 Jerome Bruner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Paul Ricoeur는 시간과 이야기의 상관성에 주목한 학자이다. 그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기술된 시간에 대한 어거스틴의 해법에 주목한다. 어거스틴은 시간은 객관적 실체로 파악하기 제한되며, 오히려 시간은 인간의 정신체험임을 강조한다. 인간은 정신의 긴장과 이완을 통해 시간을 파악하며, 말하고 있는 현재의 긴장을 통해서 시간이 존재하며, 그런 행위를 하는 인간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피력한다. Paul Ricoeur는 어거스틴의 논의와 아울러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타난 줄거리 구성 이론을

제시하며, 양자를 통한 시간과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제안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경험을 즐거리 구성을 통해 이야기로 구조화하며 이러한 구조화를 통해 시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 Paul Ricoeur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뫼토스-카타르시스’의 3단계 재현활동을 ‘미메시스I-미메시스II-미메시스III’ (전형상화-형상화-재형성화)라는 논리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경험은 즐거리를 구성의 단계를 거쳐 독자에 의한 재형상화를 통해 새로운 자기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Paul Ricoeur의 작업은 시간과 이야기의 상관관계를 통해 인간의 자아정체성 형성이 가능함을 제시하며, 이는 통통성경과 천로역정이 성경을 이야기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야기는 자아정체성 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삶의 방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감당한다. Jerome Bruner는 삶의 방법을 ‘패러다임적 유형과 이야기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논리적-객관적 사고 유형으로도 불리는 패러다임적 유형은 근대적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삶의 방법에서 제한성을 드러낸 바 있다. Jerome Bruner는 이야기는 삶의 방법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들로 하여금 전해진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자신의 이야기가 재해석되는 경험을 가지는데 기여한다고 한다. 해석된 이야기를 통한 새로운 자아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인간 존재론적 측면(Paul Ricoeur)과 아울러 삶의 방법(Jerome Bruner)으로서도 자아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매체임을 두 학자의 이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장에서는 통통성경과 천로역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로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통통성경은 성경이 ‘예수 십자가’라는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라는 전제 하에, 성경을 예수 십자가 이야기로 정리한다.

즉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에 담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를 지속하신 하나님은 5대 제국과 선지자를 통해서 제국의 경영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대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며 제자들과 교회의 박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개해 나가는 큰 이야기가 담긴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로 전하자는 것이 통통성경이라는 점을 밝혔다. 천로역정은 딱딱한 교리적 내용을 장차 무너지는 세상을 뒤로 하고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천로역정은 특히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성화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성화의 과정에서 부닥치는 여러 문제들을 다양한 이야기와 캐릭터를 통해서 제시하여 교리를 이야기로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4장은 이야기로 배우는 통통성경과 천로역정의 실천 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육군본부교회, 연무대군인교회와 육군본부교회에서 진행한 통통성경학교와 천로역정 세미나의 성과 및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세 교회에서 진행한 통통성경학교와 천로역정 세미나는 군교회 성도와 목회자들의 순환주기를 고려한 양육체계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결론과 제언

2016년 예장통합교단 101회기 총회에서는 예장통합총회 산하 청년회전국연합

회(이하 장청)에서 작성한 ‘2016년 청년 보고서’³¹³가 배포되었다. 장청은 조사이전에 청년회 조직과 인원 에 대한 전수조사가 없었음을 발견하고, 전국 66개 노회 산하 교회에 청년부가 있는 교회와 주일 출석하는 청년부의 수를 조사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장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예장통합총회 산하 교회 중 청년부가 조직된 교회는 2156개 교회로 전체 교회의 24.5%이며, 청년부 재적인원 106,393명 중주일 출석인원은 61,183명으로 전체 교인의 2.19%를 차지한다. 미전도 종족 비율을 2~5%정도로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청년은 또 하나의 ‘미전도 종족’ 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전도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지표이면서, 가속화되어 가는 탈종교화의 단면을 잘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군선교는 새롭게 조명된다. 군대는 대한민국의 청년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통과의례’ 와 같은 곳이다. 군 양성기관에서 만난 청년들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신앙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군대교회를 찾는다. 중고등학교시절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교회와 소원해진 청년들이 군대 양성기관(사단 신병훈련소와 육군훈련소 등)에서 신앙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군선교는 대한민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대안이다. 청년이라는 이 시대의 ‘미전도 종족’ 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를 할 수 있는 곳이 군대이다.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가? 간부신자를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없는가? 군인교회의 연대급, 사·여단급, 군단급의 제대별 목회활동 프로그램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유기적이며, 체계적인 양육프로그램은 무엇인가? 필자는 <이야기로 가르치는 성경과 교리 교육>, 즉 통통성경학교와 천로역정 강해는 군선교의 양육체계로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위

³¹³ <http://m.pckworld.com/article.php?aid=7211244317&page=1> (2020년 3월 10일 접속).

의 질문에 대해 하나씩 답변 하는 형식으로 제언을 맺고자 한다.

첫째, <이야기로 가르치는 성경과 교리 교육>은 청년 양육에 효과적이다. 문학의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이야기는 영화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세대는 감성적이며 감동적인 내용에 마음을 연다. 이야기는 감성과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야기로 가르치는 성경과 교리 교육>은 비전과 정체성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의 마음을 여는 데 효과적이다. 성경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의 다양한 맥락을 바탕 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공시적, 통시적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층위의 배경을 이해하게 될 때 인간 존재는 이야기를 통해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통통성경은 청년으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 속에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야기로 도전할 수 있다. ‘5세부터 20세 청년’에게 성경을 외워야 할 구절의 집합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로 배울 수 있게 한다. 또한 ‘예수 십자가, One Story’로 복음의 핵심내용을 이야기로 전할 수 있다. 과거 소 요리문답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의 정수를 전해 주었다면, 이제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정수를 가르칠 수 있다. 논리적, 과학적 지식을 통해 배운 성경과 교리의 내용은 다변화된 삶과 복잡한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근거로 삼기에는 제한이 많다.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전달해서는 역량 있는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이야기는 단답식 해답을 넘어 삶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지게 한다. 유연성을 가지고 맥락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는 청년들에게 성경을 새롭게 인식하는 좋은 계기를 부여할 수 있다. 실용적 목적으로 성경을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비전과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용되는지 가르쳐서 제국의 변동 속에 시대의 흐름을 파악한 다니엘의 영성과 사회성을 함양시키자는 것이다. <이야기로 가르치는 성경과

교리 교육>은 청년선교와 양육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다.

둘째, <이야기로 가르치는 성경과 교리 교육>은 군인교회 간부신자 양육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짧은 순환주기를 가지고 여러 임지를 다니고 있는 군교회 성도들은 체계적인 성경공부와 연계적인 양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해왔다. 그래서 야전교회를 섬기다가 서울이나 대도시 인근으로 오게 되면 민간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성경과 교리에 대한 갈증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 때로 이러한 시도들이 이단들과 연계되어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민간교회도 체계적인 성경양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을 꿰뚫어 역사순으로 통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성도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통통성경은 초신자들에게는 기본과정을 통해서, 기존신자들에게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한다. 교리적인 내용도 천로역정 강해를 통해 이야기로 배울 수 있다. 성도를 양육할 때 주안점은 성경과 교리를 기본으로 배우며, 기도훈련을 통해서 심화시키는 개인 경건훈련이다.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 심화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학습자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통통성경은 성경 전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통해 습득하게 한다. 역사순으로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통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 개인영성이 심화된다. 통통성경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맥락을 통해서 이해되며,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군교회 성도들은 현역 군인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통통성경학교에서 성경 속 수많은 전쟁이야기와 성경 속 5대 제국의 역사를 연계하여 강의할 때면 매우 흥미진진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았다. 통통성경은 전쟁의 국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배우게 한다. 위기 속에서 쉽게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가져다 준다. 군교회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여러 학교를 전전한 다. 필자의 자녀들도 초등학교를 4번 전학해야 했다. 통통성경은 자녀들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의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한다. 성경 속 인물 이야기가 내 자신의 이야기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어린 자녀들이 성경을 구절이 아니라 이야기로 배우고 외울 수 있다면 수많은 이야기를 통한 자아정체성의 강화는 물론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로 가르치는 성경과 교리 교육>은 대대·연대급, 사·여단급, 군단급 이상 제대의 군종목사(민간성직자)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목회프로그램으로 가능하다. 초임 군종목사는 통상 연대급에 처음 보직된다. 군종목사는 부대 지휘관의 참모장교이며 군인교회의 담임목회자이다. 참모장교로 지휘관의 의도에 맞는 군중활동을 계획하여 부대원의 비전투력 손실예방 - 스트레스 경감대책,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자살사고예방교육, 행복플러스인성교육 등 - 에 노력해야 한다. 교육활동, 상담 및 위문활동으로도 벽찬데, 예배와 설교까지 준비하고 군중병 교육 및 관리를 하려면 제한적인 활동만 할 때가 많게 된다. 이야기로 배우는 통통성경과 천로역정 교육은 초임 군종목사의 설교 및 목회구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여단급 교회는 간부신자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병사신우들을 위한 청년설교와 복음제시형 설교에 집중하다 보면 간부신자들의 신앙성장을 도모하기 쉽지 않다. 간부신자들은 병사신우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지도교사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병사신우들은 다양하고 예측하기 힘든 질문을 자주 한다. 변증적 성격이 필요한 질문을 할 때도 많다. 성경과 교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개인의 영성생활을 위해서 성경과 교리를 중심으로 양육받을 필요가 있다. <이야기로 가르치는 성경과 교리 교육>은 이러한 사·여단급 교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군단급 이상 부대는 간부신자의 비율이 더 높다. 체계적으로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신앙경력이 오래된 성도는 초급반이 아니라 중상급반으로 진행하는 수준별 교육을 요구한다. 통통성경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초급반과 중상급반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제대별로 시행가능한 <이야기로 배우는 통통성경과 교리 교육>의 양육체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2년 목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년이라면 전반기 천로역정 강해, 후반기 통통성경학교로 진행하면 효과적이다.

○ 연대급 교회

- 첫째 해 후반기(7~12월): 통통성경학교
- 둘째 해 전반기(1~6월): 천로역정 강해 세미나, 필그림 하우스 방문
- 둘째 해 후반기(7~12월): 통통성경학교
- 셋째 해 전반기(1~6월): 성경일독 학교

○ 사·여단급 교회

- 첫째 해 전반기: 사순절 특새 천로역정 강해, 필그림 하우스 방문
- 첫째 해 후반기: 통통성경학교 (15~20주)
- 둘째 해 전반기: 통통성경 새벽기도회(일년10독MP3 + 통숲보기)
- 둘째 해 후반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강해

* MCF 대상 성경공부: 『통통성경 길라잡이』 참고 40주 진행

○ 군단급 교회

- 첫째 해 전반기: 천로역정 사순절 특새 또는 천로역정 강해 세미나,
필그림 하우스 방문
- 첫째 해 후반기: 통통성경학교 기본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강해

- 둘째 해 전반기: 역사순 성경통독학교, 천로역정 강해 세미나
- 둘째 해 후반기: 통통성경 심화반(성경과 5대제국, 고대전쟁, 고대정치)
- * 금요 MCF성경공부: 『통통성경 길라잡이』 참고 40주 진행

<이야기로 가르치는 성경과 교리 교육>은 군인교회의 청년을 대상으로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며, 군인교회 간부신자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양육과 군종목사 및 군지원 민간성직자의 세대별 양육 프로그램 운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 확신한다.

참고 문헌

외국어 서적

Charles V. Gerkin, *Widening the Horizons: Pastoral Responses to a Fragmented Socie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6.

James Barr, *The Concept of Biblical Theology: An Old Testament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1999.

Jerome Bruner,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Lesslie Newbegin, *A Word in Season*. Grand Rapids: Eerdmans, 1994.

Lesslie Newbegin, *The Open Secret: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Mission*. Grand Rapids: Eerdmans, 1995.

번역서적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구원론*.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Barry Horner, *천로역정 명강의*. 신호섭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Donald E. Paulkinghorne,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서울: 학지사, 2016.

G.I. Williamson,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나용화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9.

Jeffrey Arthurs, *말씀을 낭독하라*. 김은정 역. 서울: 국민북스, 2017.

Jerome Bruner, *이야기 만들기*. 강현석 외 1인 역. 서울: 교육과학사, 2010.

John Bunyan, *천로역정*. 유성덕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9.

John Bunyan, *죄인의 피수에게 넘치는 은혜*. 고성대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8.

- John Murray, *존 머레이의 구속*. 장호준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1.
- Leonard Sweet,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장택수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5.
- Paul Ricoeur, *시간과 이야기 1*. 김한식 외 1명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7.
- Robert Shaw,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 St. Augustine,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선한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한국어 서적

-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13.
- 김홍만. *52주 스터디 천로역정*.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 김홍만. *해설 천로역정*.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 백금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 선한용. *시간과 영원*. 서울: 성광문화사, 1994.
- 선한용.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통이다 LET'S 通*. 서울: 통독원, 2009.
- 조병호. *통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9.
-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 북 1*. 서울: 통독원, 2017.
-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 북 2*. 서울: 통독원, 2017.
-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 북 3*. 서울: 통독원, 2017.
-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9.
- 조병호. *선지자와 5대 제국*.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성경, 통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1: 모세오경1*. 서울: 통독원, 2019.

조병호. *그 순간*. 서울: 통독원, 2016.

조병호. *성경과 영성*. 서울: 통독원, 2016.

조병호. *마음 훈련*. 서울: 통독원, 2016.

조병호. *성경을 통한 기도*. 서울: 통독원, 2016.

논문, 잡지, 기타 간행물

강현석, 조인숙. “브루너의 내러티브 이론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방향의 탐색.”

초등교육연구 제26호(2013), 187-213.

김영래. “이야기와 기독교 교육.” *신학과 세계 제81호*(2014), 297-324.

김영래. “성경과 기독교교육-교수학습에서의 “이야기”의 재발견.” *신학과 세계*

제75호(2012), 311-335.

김진필. “아빌라 테레사의 궁성이론으로 본 천로역정의 크리스찬 여정 분석.”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김한식. “리콤피르의 이야기론: 『시간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제4호(2002), 159-185.

김한식. “폴 리콤피르의 이야기 해석학.” *국어국문학 제146호*(2007), 211-243.

이훈정. “내러티브의 교육과정적 의미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4), 151-170.

정재창. “『천로역정』에 나타난 구원의 과정.” *영어영문학21 제22권 2호*(2009),

1-18.

웹사이트

<http://m.pckworld.com/article.php?aid=7211244317&page=1>

<http://kma.ac.kr:461/kma/2076/subview.do>

<http://phc.amedd.army.mil/topics/healthyliving/bh/Pages/SpiritualHealth.aspx>

<http://www.teekorea.org:492/>

<http://www.bunyanministries.org>

http://kenpulsmusic.com/Pilgrims_Progress.html

<http://garretttaylor.com>

VITA

PERSONAL DATA

Full Name: Taikjo Kim

Place and Date of Birth: Mungyeong, South Korea, November 23, 193

Parent's Names: Uho and Yeongsun Kim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Jeomchon High School 50, Jeomgo-gil, Mungyeong-si, Gyeongsangbuk-do, Korea	Diploma	Feb 24, 1992
Collegiate: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Korea	B.A	Feb 22, 1996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Korea	M.div	Feb 27, 1999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Taikjo Kim

Name typed

March 12, 2020

Date